

연구보고 17-R12-1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Ⅴ

- 다문화청소년의 발달 추이 분석 -

책임연구원 연보라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연구 V: 다문화청소년의 발달 추이 분석

▶ 책임연구원 : 연보라(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부연구위원)

국 문 초 록

본 연구는 다문화청소년의 발달 추이를 종단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일반청소년과의 비교를 통해 객관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다문화청소년의 발달 추이에 미치는 영향 요인들을 심층적으로 탐색함으로써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방향성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자료를 토대로 전반적인 발달 영역에 대하여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하여 다문화청소년의 발달 추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청소년은 각 발달 영역의 요인에 따라 다양한 변화 궤적을 가지며, 단순히 선형으로 증가 또는 감소한다기보다 좀 더 복잡다단한 양상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학업의 어려움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우관계 수준은 증가하는데 그 속도는 점차 줄어드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심리적응과 관련해서는 학교급별로 상이한 변화 양상이 나타났으며, 비행경험은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문화적응스트레스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였고, 이중문화수용태도는 초등학교 시기에 증가하다가 중학교 시기에 감소하는 상반된 추이를 보였다. 신체만족도는 증가하였으며, 주관적 건강상태는 증가하는데 그 속도는 점차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러한 다문화청소년의 발달 변화에서 집단 내 개인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둘째, 일부 발달 요인에서 다문화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변화 궤적에 차이가 존재하였으나, 특정 집단의 우세나 열세를 발견하기는 어려웠다. 교우관계의 경우 다문화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변화 양상이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학교 진학 이후 삶의 만족도는 다문화청소년이 일반청소년보다 더 빠르게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성별, 부모학력, 소득수준 등 개인의 배경변인에 따라 다문화청소년의 발달 추이에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지원경험과 관련해서는 학습지원경험의 별다른 영향은 발견되지 않은 반면, 문화지원경험과 물적지원경험은 일부 발달 요인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술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객관적 근거에 기반을 둔 다문화청소년 지원 정책 수립, 통합적 관점의 지원 방안 마련, 개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 방안 마련을 제언하였다.

핵심어: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발달, 잠재성장모형

연구 요약

1. 연구목적

- 본 연구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조사된 자료를 토대로 다문화청소년의 발달 추이를 전반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일반청소년과의 비교함으로써 객관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개인 배경 및 정책지원경험 요인들을 중심으로 다문화청소년의 발달 변화에 미치는 요인들을 심층적으로 탐색하고자 함.
- 이를 통해 다문화청소년 발달 과정에 대한 객관적인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방향성을 도출하고자 함.

2. 연구내용

- 다문화청소년의 발달 추이에 대한 기초 분석
- 다문화청소년과 일반청소년 간 발달 추이 비교 분석
- 다문화청소년의 발달 추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3. 연구방법

- 본 연구의 분석자료는 다문화청소년 중단조사 2011년 1차년도(초4)부터 2016년 6차년도(중3)까지 수집된 자료이며, 분석대상은 본 연구의 주 관심 변인에 충실히 응답한 다문화청소년 1,296명임. 비교집단인 일반청소년의 경우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 초4패널의 2010년 1차년도(초4)부터 2015년 6차년도(중3)까지 조사된 자료를 사용하였음.

- 본 연구는 종단분석으로서 잠재성장모형(Latent Growth Model, LGM)을 활용하였으며, 모형 비교(무변화모형, 선형변화모형, 이차변화모형, 분할함수모형)를 통해 각 발달 요인의 변화 궤적을 추정하였음. 다문화청소년과 일반청소년 간 발달 추이를 비교하기 위해서 다집단분석을 수행하였음.

4. 주요결과

1) 다문화청소년의 발달 추이에 대한 기초 분석

- 각 발달 영역의 요인에 따라 다양한 변화 궤적을 나타냄. 상당수의 요인들은 단순히 선형으로 증가하거나 감소한다기보다 이차함수 곡선의 형태나 학교급별로 상이한 궤적을 갖는 등 복잡다단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 각 발달 영역의 초기치와 변화율의 분산이 대부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발달 과정에서 다문화청소년 개인 간에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됨.
- 학업(학교성적, 성적에 대한 만족도, 학습활동 등)과 관련해서는 공통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남. 교우관계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증가 속도는 점차 줄어드는 것으로 확인됨.
- 심리적응에서는 초등학교 시기에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가 증가하였으나, 중학교 진학 이후에는 반대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사회적응에서 진로인식은 별다른 변화 양상을 보이지 않는 반면, 비행경험은 시간에 따라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문화적응스트레스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였고, 한국인 정체성은 초등학교 시기에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이중문화수용태도는 초등학교 시기에 증가하였으나, 중학교 시기에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다문화수용성은 계속 증가하였으나 그 증가 속도는 점차 줄어드는 것으로 확인됨.
- 신체 만족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하였으며, 주관적 건강상태 변인은 증가하다가 증가 속도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남.

2) 다문화청소년과 일반청소년 간 발달 추이 비교 분석

- 다수의 발달 요인에서 다문화청소년과 일반청소년 간 변화 궤적에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됨.
- 학습활동의 경우 다문화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변화 모형이 상이하였으며, 조사시점에 따라 학습활동 수준의 우열이 다르게 나타나 특정 집단의 우위를 논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 다문화수용성과 주관적 건강상태도 다문화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변화 모형이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남.
- 교우관계는 다문화청소년과 일반청소년 간의 변화 궤적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삶의 만족도의 경우 다문화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변화 모형은 동일하였으나, 다문화청소년이 일반청소년보다 중학교 시기에 삶의 만족도가 더 빠르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3) 다문화청소년의 발달 추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 개인의 배경에 따라 다문화청소년의 발달 추이에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성별은 학습활동, 교우관계, 성적에 대한 만족도,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 비행 경험 등 다양한 발달 요인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가정배경으로서 한국인 부모학력은 초기 학업 관련 요인들에 영향을 주었으나, 이러한 효과가 발달의 변화에까지 미치지지는 않았음. 이와 유사하게 월평균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교우관계, 학교성적수준,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의 초기값이 높은 경향이 있었으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음.
- 정책지원경험과 관련해서 학습지원경험은 다문화청소년의 발달에 별다른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았음. 반면, 문화지원경험은 성적에 대한 만족도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물질지원경험은 학습활동, 학교성적수준, 성적에 대한 만족도,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5. 제언

○ 객관적 근거에 기반한 다문화청소년 지원 정책 수립

- 다문화청소년의 발달에 대한 일률적인 평가나 해석은 지양될 필요가 있음.
-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결과적 양태보다는 과정으로서 이들의 발달과 성장 과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요구됨.
- ‘다문화청소년’이라는 특성만으로 결핍된 존재로서 발달 과정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기존의 고정관념은 재고되어야 함.
- 지속적인 종단조사와 분석을 통해 객관적인 자료에 기반하여 정확한 정책 수립의 방향과 지원 방안이 마련될 필요성이 있음.

○ 통합적 관점에서 다문화청소년 지원 방안 마련

- 다문화청소년과 일반청소년 집단 간의 변화 궤적을 설명하는 모형에 차이가 있었지만, 특정 집단의 우세나 열세가 나타나지는 않음.
- 반드시 분리된 지원이 필요한 영역이 아니라면 다문화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통합적인 지원 방식이 바람직함.
- 기존의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기준을 토대로 일반적 특성에 따라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고려될 필요가 있음.

○ 개별 특성에 따른 다문화청소년 맞춤형 지원 방안 마련

- 다문화청소년의 필요와 요구에 부응한 맞춤형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다문화청소년의 발달 시기를 고려한 정책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중학교 시기에 심리·정서적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전문적인 인적자원을 확보하여 체계적인 심리·상담지원시스템 구축이 요구됨.

목 차

I.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 내용	5
3. 분석대상 및 방법	10
II. 다문화청소년의 발달 추이에 대한 기초 분석	23
1. 학업 및 학교생활적응	25
2. 심리적응	38
3. 사회적응	45
4. 문화적응 및 정체성	52
5. 신체발달 및 건강	61
6. 요약 및 소결	66
III. 다문화청소년과 일반청소년 간 발달 차이 비교 분석	69
1. 학습활동	71
2. 교사관계	75
3. 교우관계	78
4. 삶의 만족도	82
5. 다문화수용성	85
6. 건강상태	88
7. 요약 및 소결	91
IV. 다문화청소년의 발달 추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95
1. 학습활동	97
2. 교우관계	100
3. 학교성적수준	102

4. 성적에 대한 만족도	104
5. 자아존중감	107
6. 삶의 만족도	109
7. 비행경험	112
8. 요약 및 소결	114
 V. 결론	 119
1. 요약	121
2. 제언	124
 참고문헌	 131
 부 록	 137
부록 1. 기술통계치(다문화청소년)	139
부록 2. 기술통계치(일반청소년)	143

표 목차

〈표 Ⅰ-1〉 기초 분석 분석영역별 주요 변인	8
〈표 Ⅰ-2〉 다문화청소년과 일반청소년 간 비교 분석 주요 변인	9
〈표 Ⅰ-3〉 심층분석 주요 변인	10
〈표 Ⅰ-4〉 변인 설정	13
〈표 Ⅰ-5〉 모형 설명 및 예시	20
〈표 Ⅱ-1〉 다문화청소년 학습활동 변화의 모형 비교	26
〈표 Ⅱ-2〉 다문화청소년 학습활동 변화의 분할함수모형 분석 결과	28
〈표 Ⅱ-3〉 다문화청소년 교사관계 변화의 모형 비교	29
〈표 Ⅱ-4〉 다문화청소년 교사관계 변화의 분할함수모형 분석 결과	30
〈표 Ⅱ-5〉 다문화청소년 교우관계 변화의 모형 비교	31
〈표 Ⅱ-6〉 다문화청소년 교우관계 변화의 이차변화모형 분석 결과	32
〈표 Ⅱ-7〉 다문화청소년 학교성적수준 변화의 모형 비교	33
〈표 Ⅱ-8〉 다문화청소년 학교성적수준 변화의 선형변화모형 분석 결과	34
〈표 Ⅱ-9〉 다문화청소년 성적에 대한 만족도 변화의 모형 비교	35
〈표 Ⅱ-10〉 다문화청소년 성적에 대한 만족도 변화의 분할함수모형 분석 결과	36
〈표 Ⅱ-11〉 다문화청소년 자아존중감 변화의 모형 비교	38
〈표 Ⅱ-12〉 다문화청소년 자아존중감 변화의 분할함수모형 분석 결과	40
〈표 Ⅱ-13〉 다문화청소년 삶의 만족도 변화의 모형 비교	41
〈표 Ⅱ-14〉 다문화청소년 삶의 만족도 변화의 분할함수모형 분석 결과	42
〈표 Ⅱ-15〉 다문화청소년 우울 변화의 모형 비교	43
〈표 Ⅱ-16〉 다문화청소년 우울 변화의 이차변화모형 분석 결과	44
〈표 Ⅱ-17〉 다문화청소년 사회적 위축 변화의 모형 비교	46
〈표 Ⅱ-18〉 다문화청소년 사회적 위축 변화의 이차변화모형 분석 결과	47
〈표 Ⅱ-19〉 다문화청소년 비행경험 변화의 모형 비교	48
〈표 Ⅱ-20〉 다문화청소년 비행경험 변화의 선형변화모형 분석 결과	49

〈표 II-21〉 다문화청소년 진로의식 변화의 모형 비교	50
〈표 II-22〉 다문화청소년 진로의식의 무변화모형 분석 결과	51
〈표 II-23〉 다문화청소년 한국인 정체성 변화의 모형 비교	52
〈표 II-24〉 다문화청소년 한국인 정체성 분할함수모형 분석 결과	53
〈표 II-25〉 다문화청소년 다문화수용성 변화의 모형 비교	55
〈표 II-26〉 다문화청소년 다문화수용성 변화의 이차변화모형 분석 결과	56
〈표 II-27〉 다문화청소년 이중문화수용태도 변화의 모형 비교	57
〈표 II-28〉 다문화청소년 이중문화수용태도 분할함수모형 분석 결과	58
〈표 II-29〉 다문화청소년 문화적응스트레스 변화의 모형 비교	59
〈표 II-30〉 다문화청소년 문화적응스트레스 변화의 선형변화모형 분석 결과	60
〈표 II-31〉 다문화청소년 건강상태 변화의 모형 비교	62
〈표 II-32〉 다문화청소년 건강상태 변화의 이차변화모형 분석 결과	63
〈표 II-33〉 다문화청소년 신체만족도 변화의 모형 비교	64
〈표 II-34〉 다문화청소년 신체만족도 변화의 분할함수모형 분석 결과	65
〈표 II-35〉 다문화청소년의 발달 모형 요약	67
〈표 III-1〉 일반청소년의 학습활동 변화 모형 비교	72
〈표 III-2〉 일반청소년 학습활동 변화의 이차변화모형 분석 결과	73
〈표 III-3〉 일반청소년의 교사관계 변화 모형 비교	75
〈표 III-4〉 일반청소년 교사관계 변화의 이차변화모형 분석 결과	76
〈표 III-5〉 일반청소년의 교우관계 변화 모형 비교	78
〈표 III-6〉 일반청소년 교우관계 변화의 이차변화모형 분석 결과	79
〈표 III-7〉 교우관계 다집단분석 결과	80
〈표 III-8〉 일반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변화 모형 비교	82
〈표 III-9〉 일반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변화 분할함수모형 분석 결과	83
〈표 III-10〉 삶의 만족도 다집단분석 결과	84
〈표 III-11〉 일반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 변화 모형 비교	86

〈표 Ⅲ-12〉 일반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 변화 분할함수모형 분석 결과	86
〈표 Ⅲ-13〉 일반청소년의 건강상태 변화 모형 비교	89
〈표 Ⅲ-14〉 일반청소년의 건강상태 변화 분할함수모형 분석 결과	89
〈표 Ⅲ-15〉 다문화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발달 변화 비교	93
〈표 Ⅳ-1〉 학습활동 조건모형 적합도	98
〈표 Ⅳ-2〉 학습활동 조건모형 경로계수	99
〈표 Ⅳ-3〉 교우관계 조건모형 적합도	101
〈표 Ⅳ-4〉 교우관계 조건모형 경로계수	101
〈표 Ⅳ-5〉 학교성적수준 조건모형 적합도	103
〈표 Ⅳ-6〉 학교성적수준 조건모형 경로계수	104
〈표 Ⅳ-7〉 성적에 대한 만족도 조건모형 적합도	105
〈표 Ⅳ-8〉 성적에 대한 만족도 조건모형 경로계수	106
〈표 Ⅳ-9〉 자아존중감 조건모형 적합도	108
〈표 Ⅳ-10〉 자아존중감 조건모형 경로계수	109
〈표 Ⅳ-11〉 삶의 만족도 조건모형 적합도	110
〈표 Ⅳ-12〉 삶의 만족도 조건모형 경로계수	111
〈표 Ⅳ-13〉 비행경험 조건모형 적합도	113
〈표 Ⅳ-14〉 비행경험 조건모형 경로계수	113
〈표 Ⅳ-15〉 다문화청소년의 발달 추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17
〈표 Ⅴ-1〉 주요 결과의 시사점 및 정책 지원 방향	125

그림 목차

【그림 Ⅰ-1】 연구 내용의 구성과 흐름	6
【그림 Ⅰ-2】 발달 추이 주요 분석영역	7
【그림 Ⅰ-3】 심층 분석모형(예)	22
【그림 Ⅱ-1】 다문화청소년 학습활동 분할함수모형	27
【그림 Ⅱ-2】 다문화청소년 학습활동의 관찰평균과 예측평균	28
【그림 Ⅱ-3】 다문화청소년 교사관계 분할함수모형	29
【그림 Ⅱ-4】 다문화청소년 교사관계의 관찰평균과 예측평균	30
【그림 Ⅱ-5】 다문화청소년 교우관계 이차변화모형	31
【그림 Ⅱ-6】 다문화청소년 교우관계의 관찰평균과 예측평균	32
【그림 Ⅱ-7】 다문화청소년 학교성적수준 선형변화모형	33
【그림 Ⅱ-8】 다문화청소년 학교성적수준의 관찰평균과 예측평균	34
【그림 Ⅱ-9】 다문화청소년 성적에 대한 만족도 분할함수모형	35
【그림 Ⅱ-10】 다문화청소년 성적에 대한 만족도의 관찰평균과 예측평균	37
【그림 Ⅱ-11】 다문화청소년 자아존중감 분할함수모형	39
【그림 Ⅱ-12】 다문화청소년 자아존중감의 관찰평균과 예측평균	40
【그림 Ⅱ-13】 다문화청소년 삶의 만족도 분할함수모형	41
【그림 Ⅱ-14】 다문화청소년 삶의 만족도 관찰평균과 예측평균	42
【그림 Ⅱ-15】 다문화청소년 우울 이차변화모형	43
【그림 Ⅱ-16】 다문화청소년 우울의 관찰평균과 예측평균	44
【그림 Ⅱ-17】 다문화청소년 사회적 위축 이차변화모형	46
【그림 Ⅱ-18】 다문화청소년 사회적 위축의 관찰평균과 예측평균	47
【그림 Ⅱ-19】 다문화청소년 비행경험 선형변화모형	48
【그림 Ⅱ-20】 다문화청소년 비행경험의 관찰평균과 예측평균	49
【그림 Ⅱ-21】 다문화청소년 진로의식 무변화모형	50
【그림 Ⅱ-22】 다문화청소년 진로의식의 관찰평균과 예측평균	51
【그림 Ⅱ-23】 다문화청소년 한국인 정체성 분할함수모형	53

【그림 II-24】 다문화청소년 한국인 정체성의 관찰평균과 예측평균	54
【그림 II-25】 다문화청소년 다문화수용성 이차변화모형	55
【그림 II-26】 다문화청소년 다문화수용성의 관찰평균과 예측평균	56
【그림 II-27】 다문화청소년 이중문화수용태도 분할함수모형	57
【그림 II-28】 다문화청소년 이중문화수용태도의 관찰평균과 예측평균	58
【그림 II-29】 다문화청소년 문화적응스트레스 선형변화모형	59
【그림 II-30】 다문화청소년 문화적응스트레스의 관찰평균과 예측평균	60
【그림 II-31】 다문화청소년 건강상태 이차변화모형	62
【그림 II-32】 다문화청소년 건강상태의 관찰평균과 예측평균	63
【그림 II-33】 다문화청소년 신체만족도 분할함수모형	64
【그림 II-34】 다문화청소년 신체만족도의 관찰평균과 예측평균	65
【그림 II-35】 다문화청소년의 발달 변화 요약	68
【그림 III-1】 일반청소년 학습활동의 관찰평균과 예측평균	73
【그림 III-2】 다문화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학습활동 변화 비교	74
【그림 III-3】 일반청소년 교사관계의 관찰평균과 예측평균	76
【그림 III-4】 다문화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교사관계 변화 비교	77
【그림 III-5】 일반청소년 교우관계의 관찰평균과 예측평균	79
【그림 III-6】 다문화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교우관계 변화 비교	81
【그림 III-7】 일반청소년 삶의 만족도 관찰평균과 예측평균	83
【그림 III-8】 다문화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변화 비교	85
【그림 III-9】 일반청소년 다문화수용성의 관찰평균과 예측평균	87
【그림 III-10】 다문화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 변화 비교	88
【그림 III-11】 일반청소년 건강상태의 관찰평균과 예측평균	90
【그림 III-12】 다문화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건강상태 변화 비교	91
【그림 IV-1】 학습활동 변화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모형	98
【그림 IV-2】 교우관계 변화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모형	100

【그림 IV-3】 학교성적수준 변화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모형	102
【그림 IV-4】 성적에 대한 만족도 변화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모형	105
【그림 IV-5】 자아존중감 변화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모형	107
【그림 IV-6】 삶의 만족도 변화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모형	110
【그림 IV-7】 비행경험 변화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모형	112

제 I 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3. 분석 대상 및 방법

제 I 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한국사회의 다문화구성원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국제결혼이주여성 및 외국인 노동자, 북한이탈주민의 유입으로 한국 내 거주하는 외국인의 수가 급증하는 상황이다. 법무부 발표에 따르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수는 2017년 현재 203만 명으로 이는 전체 인구의 3.9%에 이르고 있다. 이에 따라 다문화배경을 지닌 청소년의 수도 크게 늘어나는 추세이다. 교육부에서는 2012년부터 매년 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다문화가정 학생 수를 발표하고 있는데, 다문화가정 학생 수는 조사 시행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10,201명으로 그 수가 10만 명을 넘어섰다(교육부, 2017).

다문화청소년 수가 하루가 다르게 증가함에 따라, 이들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수행된 초기 연구들을 살펴보면 이들의 결핍과 어려움에 대한 실태보고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일반적으로 다문화청소년은 학습부진 및 학교 부적응 등의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하고,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언어발달 및 사회성 발달에도 문제점을 지니는 것으로 알려졌다(김갑성, 2008; 김순규, 2011; 김현식, 김두섭, 2014; 김홍주, 박길태, 2010; 배은주, 2006; 서현, 이승은, 2007; 오성배, 2005; 이애련, 2015; 이영주, 2007; 한금섭, 2003).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정부 및 관련 기관에서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돕기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실시하여 왔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련의 노력들은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유도하였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정부부처 및 민간단체, 학계 등이 다문화청소년을 부족하고 결핍된 존재로 인식한다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고정관념을 강화시킨 제한점도 지닌다(양계민, 김승경, 2010, p. 3).

이러한 견지에서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일률적인 평가는 타당하지 않을 수 있다. 다문화청소년 집단 내에 개인차가 크고, 그 특성 또한 매우 다양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문화배경을 지닌

청소년의 발달 과정에 대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파악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양계민 외, 2016, p. 3). 특히 대다수의 관련 연구들은 횡단적 측면에서 다문화청소년의 발달을 결과적 측면에서 살펴보았는데, 발달이라는 것은 본래 장기간에 걸친 하나의 과정으로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종단적 관점에서 이들의 성장과 변화의 모습을 추적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전술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는 다문화청소년의 발달 과정을 포괄적이며 객관적으로 추적함으로써, i) 다문화청소년의 발달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ii) 비(非)다문화청소년과의 발달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마련하고, iii) 궁극적으로 한국사회의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어 왔다(양계민 외, 2016, p. 5). 이러한 목적을 토대로 관련 연구들도 꾸준히 수행되었는데, 그간의 연구 주제를 연도별로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단계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발달과정 추적을 위한 종단연구’에서는 2010년 예비조사를 시작으로 2011년도에 다문화청소년과 취약계층 청소년과의 발달 비교를 실시하였고, 2012년도에는 다문화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을 비교 분석하였다. 2단계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연구’에서는 매년 특정 발달 영역을 중심으로 다채롭게 연구가 수행되어 왔는데, 2013년도에는 학업 및 학교생활을 주제로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2014년도에는 심리, 정서, 사회적응을 중심으로 연구가 수행되었다. 2015년도에는 자아정체성 및 이중문화정체성을 주제로 분석하였고, 2016년도에는 진로의식 및 태도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양계민 외, 2016, p.7-9)

이처럼 지금까지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를 토대로 2011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수행되어온 연구들은 매년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개별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각각의 차별성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각 연구들은 종단자료를 계속해서 축적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분석자료의 시점이 서로 상이할 수밖에 없었고, 다문화청소년의 발달에 대한 종합적인 함의를 도출하기에는 일정부분 제한이 있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2017년도 본 연구에서는 전술한 연구들을 포괄하여 전반적인 발달 영역에서 분석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들과 차이를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다문화청소년의 주요 발달 영역으로서 학업 및 학교생활, 심리적응, 사회적응, 문화적응 및 정체성, 신체발달 및 건강 등을 선정하여 각 발달 영역의 변화를 통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와 함께 다문화청소년의 발달 과정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를 도모하기 위하여 일반청소년과의 비교 분석도 함께 수행하였다. 이를 토대로 다문화청소년의 발달 과정에 대한 전체적인 결론을 도출해보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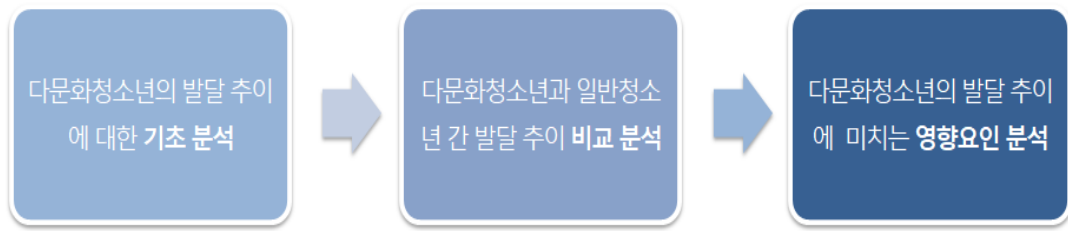
또한 본 연구는 연구방법과 관련해서도 그간 수행되어온 연구들과 차이점을 지닌다.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다문화청소년의 연차별 발달 변화를 기술적으로 분석해왔는데, 본격적인 종단분석

이 이루어졌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보다 정교한 종단분석방법을 적용함으로써 다문화청소년의 발달 변화의 추이와 그 영향요인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는 다문화청소년 관련 연구의 외현을 확장한다는 측면에서도 학술적으로 의미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종단연구에 적합한 것으로 알려진 잠재성장모형(Latent Growth Model, LGM)을 활용하여, 다문화청소년의 발달이 어떠한 궤적으로 변화하는지, 이러한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 엄밀하게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도출된 다문화청소년의 발달 양상이 일반청소년의 발달 양상과 비교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차이가 있는지 정교하게 검증하기 위해 다집단분석(Multigroup analysis)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두 집단의 발달 변화를 체계적으로 비교 분석함으로써 다문화청소년의 발달 과정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고자 노력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목적은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를 활용하여 이들의 발달 추이를 종단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둘째, 일반청소년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다문화청소년의 발달 과정이 일반청소년과 어떠한 차이를 지니는지 객관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셋째, 다문화청소년의 발달에 어떠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궁극적으로는 다문화청소년의 발달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방향성을 도출하고자 한다.

2. 연구 내용

본 연구는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를 활용하여 이들의 발달 추이에 대한 종단분석을 수행함으로써 다문화청소년의 발달 변화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방향성을 도출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그리하여 2011년 1차 조사부터 2016년 6차 조사까지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종단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구체적인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초 분석으로서 다문화청소년의 각 발달 영역의 추이를 분석하였다. 둘째, 기초 분석에서 사용한 발달 변인 가운데 비교가 가능한 변인들을 중심으로 일반청소년의 발달 추이와 비교 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심층 분석으로서 전술한 다문화청소년의 발달 추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 내용의 구성과 흐름을 개괄적으로 제시하면 다음 [그림 I-1]과 같다.



【그림 1-1】 연구 내용의 구성과 흐름

1) 다문화청소년의 발달 추이에 대한 기초 분석

먼저 다문화청소년의 발달 추이에 대한 기초적인 종단분석을 수행하였다. 2011년 조사 당시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하였던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들이 중학교 3학년이 되기까지 6년 간의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기초 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발달에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고, 변화가 있다면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 변화함수를 추정하였다. 아울러 다문화청소년의 발달 추이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난 6년 간의 주요 조사영역을 전반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다문화청소년의 발달과 관련된 영역 가운데 1차년도(2011년)부터 6차년도(2016년)까지 조사된 내용을 중심으로 1) 학업 및 학교생활 적응, 2) 심리적응 3) 사회적응, 4) 문화적응 및 정체성, 5) 신체발달 및 건강 등 총 5개의 영역을 선정하여, 각 영역에 대한 다문화청소년의 발달 변화 양상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림 1-2】 발달 추이 주요 분석영역

다음으로 각 발달 영역별 주요 변인들의 경우 일차적으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조사된 문항들을 중심으로 선정하였으며, 매년 조사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중단분석이 가능한 변인들을 선정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전술한 기준을 토대로 선정된 각 분석영역이 주요 변인들은 다음의 <표 1-1>에 제시하였다.

표 I-1 기초 분석 분석영역별 주요 변인

분석영역	주요 변인
1) 학업 및 학교생활 적응	① 학습활동
	② 교사관계
	③ 교우관계
	④ 학교성적수준
	⑤ 성적에 대한 만족도
2) 심리적응	① 자아존중감
	② 삶의 만족도
	③ 우울
3) 사회적응	① 사회적 위축
	② 비행경험
	③ 진로의식
4) 정체성	① 한국인 정체성
	② 다문화수용성
	③ 이중문화수용태도
	④ 문화적응스트레스
5) 신체발달 및 건강	① 건강상태
	② 신체만족도

* 2016년 청소년용 설문문항 구성내용(표 III-2 참조)과 다문화가정 청소년 6년간 변화추이 비교 영역(2011년~2016년)(표 IV-5 참조)을 재구성함.

출처: 양계민, 윤민중, 신현옥, 최홍일 (2016).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IV: 총괄보고서」

2) 다문화청소년과 일반청소년 간 발달 추이 비교 분석

다음으로 다문화청소년의 발달 추이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를 도모하고자 다문화청소년과 일반청소년 간 발달 추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다문화청소년의 비교 집단으로서 일반청소년 자료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2010년부터 조사된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를 활용하였으며, 이 가운데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 패널과 학년이 동일한 초등학교 4학년 패널을 대상으로

비교 분석을 수행하였다. 다문화청소년과 일반청소년 간 비교 분석에 사용한 주요 변인들을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선정되었다. 앞서 ‘다문화청소년의 발달 추이에 대한 기초 분석’의 주요 변인 가운데,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에서 공통적으로 조사되어 비교가 가능한 문항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전술한 기준을 토대로 선정된 비교 분석의 주요 변인들은 <표 I-2>에 제시되어 있다. 그리하여 각각의 주요 변인에 대하여 다문화청소년과 일반청소년 간 발달 추이에 차이가 존재하는지 체계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표 I-2 다문화청소년과 일반청소년 간 비교 분석 주요 변인

분석영역	주요 변인
1) 학업 및 학교생활 적응	① 학습활동
	② 교사관계
	③ 교우관계
2) 심리적응	① 삶의 만족도
3) 정체성	① 다문화수용성
4) 신체발달 및 건강	① 건강상태

3) 다문화청소년의 발달 추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전술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청소년의 전반적인 발달 추이를 살펴보고, 이를 일반청소년과 비교 분석하였다. 그리하여 다문화청소년의 발달 양상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이러한 발달 양상이 일반청소년과 어떻게 다른지 객관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본 연구에서는 심층 분석으로서 앞서 도출된 다문화청소년의 발달 추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무엇인지 추가적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청소년의 발달 추이에 대한 기초 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를 나타내었던 주요 변인들 가운데, 학술적으로도 의미 있는 변인들을 중심으로 심층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기준으로 선정된 심층분석 주요 변인들은 학습활동, 교우관계, 학교성적수준, 성적에 대한 만족도,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 비행경험으로, 각 발달 변인들의 변화 양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 면밀히 검증해보고자 하였다. 다문화청소년의

발달 추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관련해서는 개인의 배경변인과 정책지원경험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그리하여 다문화청소년의 성별이나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등 개인의 배경에 따라 발달 추이에 차이가 존재하는지 살펴보고, 정책 지원을 받은 경험 등이 각 주요 변인들의 발달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면밀히 분석하였다.

표 1-3 심층분석 주요 변인

분석영역	주요 변인
1) 학업 및 학교생활 적응	① 학습활동
	② 교우관계
	③ 학교성적수준
	④ 성적에 대한 만족도
2) 심리적응	① 자아존중감
	② 삶의 만족도
3) 사회적응	① 비행경험

3. 분석대상 및 방법

1) 분석대상

본 연구에서는 2011년 1차년도 조사부터 2016년 6차년도 조사까지 6년 간 추적된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 자료를 토대로 이들의 전반적인 발달 추이를 심도 있게 분석하였다.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는 2011년 1,625가구로 시작하여 2012년 1,490가구, 2013년 1,433가구, 2014년 1,371가구, 2015년 1,338가구, 2016년 1,322가구가 조사되어 2016년 기준으로 약 81.4%의 비교적 높은 패널유지율을 유지하고 있다(양계민 외, 2016, p. 67). 분석대상은 2011년 조사 당시 초등학교 4학년이었던 다문화가정 청소년으로, 이 가운데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조사에 참여하여 본 연구의 주 관심사인 발달 영역 문항에 충실히 응답한 다문화청소년 1,296명을 대상으로 최종 표본을 구성하였다. 아울러 다문화청소년과 일반청소년 간의 비교 분석에서 일반청소년 분석대

상은 다음과 같다. 비교집단인 일반청소년의 경우 2010년부터 조사된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를 활용하였으며, 그 중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 대상자들과 학년이 동일한 초등학교 4학년 패널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¹⁾. 다문화청소년 분석대상과 마찬가지로 2010년 1차년도 조사부터 2015년 6차년도 조사까지 참여한 일반청소년 중 본 연구의 주요 발달 영역 문항에 충실하게 응답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그리하여 발달 영역별로 활용된 일반청소년의 최종표본은 학습활동, 교사관계, 교우관계는 1,827명이었으며, 삶의 만족도와 다문화수용성은 1,830명, 건강상태는 1,825명이었다.

2) 변인 설정

본 연구에서 사용한 주요 변인들에 대한 측정문항과 각각의 신뢰도를 <표 I-4>에 제시하였다. 발달 영역 순으로 살펴보면, 학업 및 학교생활 영역에서는 학습활동 5문항, 교사관계 5문항, 교우관계 4문항, 학교성적수준 5문항으로 측정하였으며, 성적에 대한 만족도는 단일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여기에서 학습활동, 교사관계, 교우관계, 학교성적수준 변인은 해당 측정문항의 평균값으로 구성하였는데, 신뢰도를 살펴보면 2011년 1차년도부터 2016년 6차년도까지 0.712 ~ 0.900의 범위에 분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심리적응 영역에서는 자아존중감은 4문항, 삶의 만족도는 3문항, 우울은 10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연도별 각 변인들의 신뢰도는 0.747 ~ 0.918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해당 측정문항의 평균값을 내어 투입하였다. 사회적응 영역에서 사회적 위축은 5문항, 진로의식은 10문항, 비행경험은 12문항을 각각 활용하였다. 사회적 위축과 진로의식 변인은 해당 문항들의 평균값으로 분석에 투입하였는데, 이들 문항의 연도별 신뢰도는 0.858 ~ 0.909 범위로 확인되었다. 비행경험의 경우 12개의 해당 문항에서 한번이라도 해당되는 경우 1, 그렇지 않은 경우 0의 값을 투입한 더미변수로 구성하여 분석에 투입하였다. 문화적응 및 정체성 영역에서는 한국인 정체성 4문항, 다문화수용성 5문항, 이중문화수용태도 10문항, 문화적응스트레스 10문항으로 측정하였다. 각 변인들의 연도별 신뢰도는 0.705 ~ 0.889의 범위에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당 문항들의 평균값을 구해 분석에 활용하였다. 신체발달 및 건강 영역에서 건강상태는 단일 문항으로 측정하였고, 신체만족도는 6문항으로 측정하였다.

1)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는 2010년부터 조사되고 있으며, 이는 2011년부터 조사된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보다 1년 먼저 수집된 자료이다. 따라서 다문화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비교 분석의 경우 1년 전의 동일 학년과의 비교라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음을 미리 밝히는 바이다(양계민·신현옥·박주희, 2014, p. 186).

신체만족도의 연도별 신뢰도는 0.706 ~ 0.781 수준이었으며, 6문항의 평균값으로 신체만족도 변인을 구성하였다.

다음으로 심층분석에서 다문화청소년의 발달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는 다문화청소년의 배경 변인과 정책지원경험 변인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먼저, 배경 변인으로서 성별은 남자 청소년의 경우 0, 여자 청소년의 경우 1의 값을 부여한 더미변수로 구성하였다. 부모학력은 한국에서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가늠할 수 있는 가정배경 변인으로서 한국인 부모의 학력으로 투입하였다. 그리하여 한국인 부모의 학력에 대하여 1) 안 받음, 2) 초등학교, 3) 중학교, 4) 고등학교, 5) 대학교(4년제 미만), 6) 대학교(4년제 이상), 7) 대학원 석사과정, 8) 대학원 박사과정 등 8점 척도로 측정된 문항을 그대로 활용하였다. 가정의 경제적 여건으로서 월평균 소득은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1년 연간 가계동향 조사를 토대로 소득 5분위 별 경계값을 활용하였다. 경계값을 기준으로 1분위에서 5분위까지 5점 척도로 구성하여 분석에 투입하였다²⁾.

이어서 정책지원경험은 학습지원경험, 문화지원경험, 물적지원경험으로 구분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학교나 기타 다른 기관에서 다문화가족이라고 하여 어떤 지원들을 받았는지 물어보는 문항에서 학습지원경험 변인은 방과 후 수업료 지원(바우처 등), 대학생 멘토링, 학습보조 선생님 지원, 학습지 지원 등 총 4개 문항을 활용하여 구성하였다. 그리하여 해당 문항들에서 한번이라도 지원을 받은 경우 1, 그렇지 않은 경우 0의 값을 투입하였다. 문화지원경험 변인은 문화공연관람(뮤지컬, 연극, 영화, 음악회 등), 놀이공원 방문, 문화체험활동(박물관, 역사탐방, 답사여행, 한국문화체험, 농촌체험 등) 등 3개의 문항을 활용하였으며, 이 가운데 한번이라도 지원 받은 경우 1, 그렇지 않은 경우 0의 값을 투입하였다. 물적지원경험 변인의 경우 물적지원(책, 학용품 등 지원), 급식비 지원 등 2개 문항에 대하여 한번이라도 지원 받은 경우 1, 그렇지 않은 경우 0의 값을 투입하였다. 그리하여 최종적으로 학습지원경험, 문화지원경험, 물적지원경험은 각 연도별로 조사된 것의 평균값으로 투입하였으며, 이는 평균적으로 해당 지원경험을 받은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 이상의 본 연구에서 활용한 변인들에 대한 기술통계는 부록에 제시하였다.

2) 기준 1분위: 2,013.9(천원) 미만, 2분위: 2,013.9(천원) 이상~3,014.5(천원) 미만, 3분위: 3,014.5(천원) 이상~3,974.2(천원) 미만, 4분위: 3,974.2(천원) 이상~5,298.2(천원) 미만, 5분위: 5,298.2(천원) 이상 (통계청, 2012)

표 I-4 변인 설정

영역	주요 변인	문항 내용	신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학업 및 학교생활 적응	① 학습활동	• 나는 학교 수업시간이 재미있다 • 나는 학교숙제를 빼뜨리지 않고 한다 • 나는 모든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잘 알고 있다 • 나는 모르는 것이 있을 때 다른 사람(부모님이나 선생님 또는 친구들)에게 물어본다 • 나는 공부시간에 딴짓을 한다	0.712	0.721	0.744	0.769	0.785	0.783
	② 교사관계	• 나는 선생님을 만나면 반갑게 인사한다 • 나는 선생님과 이야기하는 것이 편하다 • 나는 학교 밖에서 선생님을 만나면 반갑다 • 우리 선생님께서는 나에게 친절하시다 • 나는 내년에도 지금 선생님께서 담임선생님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0.887	0.886	0.900	0.886	0.877	0.886
	③ 교우관계	• 나는 우리 반 아이들과 잘 어울린다 • 나는 친구와 다투었을 때 먼저 사과한다 • 나는 내 짝이 교과서나 준비물을 안 가져왔을 때 함께 보거나 빌려준다 • 놀이나 모듬활동을 할 때 친구들이 내 말을 잘 따라준다	0.737	0.767	0.737	0.731	0.735	0.729
	④ 학교성적수준	•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0.732	0.732	0.793	0.794	0.791	0.788
	⑤ 성적에 대한 만족도	• 학생은 자신의 성적에 대해 얼마나 만족합니까?	-	-	-	-	-	-

영역	주요 변인	문항 내용	신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심리적응	① 자존감	- 나는 내 자신이 자랑스럽다 - 나는 내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한다 - 나는 학급임원(반장, 부반장)이 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 - 나는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다	0.747	0.793	0.810	0.824	0.813	0.831
		- 나는 사는 게 즐겁다 - 나는 걱정거리가 별로 없다 - 나는 내 삶이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0.807	0.858	0.853	0.862	0.864	0.823
		- 나는 기운이 별로 없다 -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하거나 슬퍼하고 우울해한다 - 나는 걱정이 많다 - 나는 죽고 싶은 생각이 든다 - 나는 울기를 잘한다 - 나는 어떤 일이 잘못 되었을 때 나 때문이라는 생각을 자주 한다 - 나는 외롭다 - 나는 모든 일에 관심과 흥미가 없다 - 나는 장래가 희망적이지 않은 것 같다 - 나는 모든 일이 힘들다	-	0.905	0.916	0.918	0.907	0.905
사회적응	① 사회적 위축	- 나는 주위에 사람들이 많으면 어색하다 - 나는 부끄럼을 많이 탄다 -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내 의견을 분명하게 말하기 어렵다 - 나는 수줍어한다 - 나는 사람들 앞에 나서기를 싫어한다	-	0.893	0.904	0.909	0.903	0.908

영역	주요 변인	문항 내용	신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학생은 지난 1년 동안 다음의 행동을 한 적이 있습니까? • 담배를 피운 적이 있다 • 술을 마신 적이 있다 • 기출한 적이 있다 • 학교를 빼먹은 적이 있다 • 성인사이트를 본 적이 있다 • 남의 돈이나 물건을 슬쩍 훔친 적이 있다 • 다른 사람을 심하게 때린 적이 있다 • 남의 돈이나 물건을 뺏은(빼앗은) 적이 있다 • 폭력씨클(집단)에 가입한 적이 있다 • 패싸움을 해 본 적이 있다 • 이성과 키스를 해본 적이 있다 • 이성과 성관계를 해본 적이 있다	-	-	-	-	-	-
	② 비행경험							
		• 나는 장래에 무슨 일을 할 것인지 이미 정해놓았다 • 나는 하고 싶은 일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역) • 나는 이미 진로가 결정되어 있어 진로선택을 하는데 별로 고민하지 않는다 • 앞으로 되고자 하는 모습에 대해 자주 생각해보기 하지만, 실제로 어떤 직업을 가져야겠다고 구체적으로 생각해본 적이 없다(역) • 주위 사람마다 서로 생각이 달라서 어떤 진로를 선택해야 할지 혼란스럽다(역) • 졸업 후 진로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어 무엇을 할지 막막하다(역) • 자신의 진로에 대해 확실한 결정을 해 놓은 상태이다	-	-	-	0.858	0.876	0.890
	③ 진로의식							

영역	주요 변인	문항 내용	신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문화적응 및 정체성	① 한국인 정체성	• 나중에 바뀔지 모르겠지만 일단 하고 싶은 일을 결정해 놓았다 • 무엇을 해야 할지 확실하게 결정된 것이 없다(역) • 어떤 진로를 선택해야 할지 결정하기가 힘들다(역)						
		• 누군가 한국을 칭찬하면 내가 칭찬받는 것 같다 • 나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한국에 관해서 어떤 생각을 갖는지에 관심이 많다 • 한국의 성공이 곧 나의 성공이다 • 누군가 한국에 대해 나쁘게 이야기하면 나에게 욕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상한다	0.775	0.821	0.856	0.870	0.882	0.889
문화적응 및 정체성	② 다문화수용성	• 나와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을 이웃으로 받아들이 수 있다 • 나와 문화적 배경이 다른 청소년을 같은 반 친구로 받아 들일 수 있다 • 나와 문화적 배경이 다른 청소년과 가장 친한 단짝이 될 수 있다 • 이성친구를 사귀게 된다면, 나와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을 이성친구로 사귄 수 있다 • 커서 나와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과 결혼할 수 있다	-	0.857	0.856	0.873	0.885	0.882

영역	주요 변인	문화 내용	신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 나는 한국문화(음악, 영화, 음식, 옷 등)를 즐기는 편이다 - 나는 외국인 부모님 나라의 문화(음악, 영화, 음식, 옷 등)를 즐기는 편이다 - 나는 외국인 부모님이 외국인이라는 것이 자랑스럽다 - 나는 한국에 살고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다 - 나는 앞으로 계속 한국에 살고 싶다 - 나는 앞으로 외국인 부모님 나라에 가서 살고 싶다 - 나는 한국의 대학이나 회사에 다니고 싶다 - 나는 외국인 부모님 나라로 가서 대학이나 회사에 다니고 싶다 - 나는 외국인 부모님 나라의 문화를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 한국문화를 배우는 것은 내게 중요하다	0.705	0.730	0.730	0.730	0.741	0.745
	③ 이중문화 수용태도							
		- 다른 사람이 외국인 부모님 나라의 문화를 갖고 농담할 때 스트레스를 받는다 - 외국인 부모님이 다른 나라 사람이라서 학교에 가고 싶지 않다 - 한국에 사는 것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 한국어를 잘 못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 주변에서 한국 사람처럼 행동하라고 스트레스를 준다 - 외국인 부모님이 외국인이라서 무시를 당한다 - 외국인 부모님이 외국인이라고 친구들이 따돌린다 - 우리 동네 사람들은 우리 식구를 못살게 군다 - 한국 사람들은 우리 식구를 못살게 군다 - 외국인 부모님 나라보다 한국에서 더 잘 살 수 있을 것이 다(역)	0.759	0.761	0.780	0.721	0.761	0.738
	④ 문화적응 스트레스							

영역	주요 변인	문항 내용	신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신체발달 및 건강	① 건강상태	• 또래들과 비교해 볼 때 학생의 건강상태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역)	-	-	-	-	-	-
		• 나는 내가 매력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 나는 내가 원하는 만큼 잘 생겼다고 생각한다 • 나는 신체모습 중 몇 군데를 바꾸고 싶다(역) • 나는 좋은 느낌을 주는 얼굴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 나는 현재의 나의 외모에 만족한다 • 나는 나의 외모 때문에 괴롭다(역)	0.706	0.738	0.731	0.766	0.775	0.781
	② 신체만족도							
		• 남자 청소년=0, 여자 청소년=1	-	-	-	-	-	-
배경변인	② 부모학력	• 한국인 부모의 학력	-	-	-	-	-	-
	③ 월평균 소득	• 2011년 기준 월평균 소득 5분위	-	-	-	-	-	-
		• 방과 후 수업료 지원(바우처 등) • 대학생 멘토링 • 학습보조 선생님 지원 • 학습지 지원	-	-	-	-	-	-
	① 학습지원경험							
정책지원 경험		• 문화공예관람(뮤지컬, 연극, 영화, 음악회 등) • 놀이공원 방문 • 문화체험활동(박물관, 역사탐방, 답사여행, 한국문화체험, 농촌체험 등)	-	-	-	-	-	-
	② 문화지원경험							
		• 물적지원(책, 학용품 등 지원) • 급식비 지원	-	-	-	-	-	-
	③ 물적지원경험							

(역) 척도를 역으로 코딩하여 분석에 투입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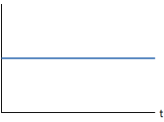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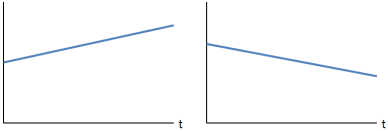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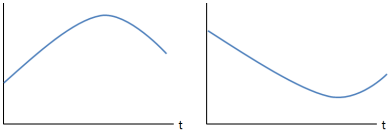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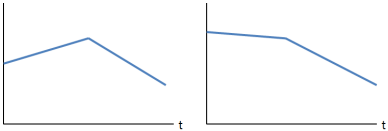
3) 분석방법

(1) 다문화청소년의 발달 추이에 대한 기초 분석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청소년의 발달 추이에 대한 기초 분석을 수행하기 위하여 잠재성장모형(Latent Growth Model, LGM)을 활용하였다. 잠재성장모형은 여러 시점에 걸쳐 조사된 자료로서 연구 대상자 안에 반복측정치들이 내재된 다층자료 또는 위계적 자료 분석에 적합한 종단연구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Duncan and Duncan, 2004). 그리하여 2011년 1차 조사부터 2016년 6차 조사까지 6년 동안 수집된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이들의 발달 추이를 추정하는 본 연구의 목적에 적합한 분석방법이라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발달 영역의 주요 변인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각각의 변화 함수를 추정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각 변인들에 대하여 무변화모형, 선형변화모형, 이차변화모형, 분할함수모형을 분석하고 정교한 모형 평가를 통해 적절한 모형을 도출하였다. 모형 비교에서 사용한 각각의 변화모형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무변화모형은 시간에 따라 변화하지 않는 고정된 모형이다. 다음으로 선형변화모형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선형으로 변화하는 것을 가정하는데, 가령 직선의 형태로 증가 또는 감소하는 모형을 일컫는다. 이차변화모형은 이차함수의 곡선을 따라 변화하는 모형을 말하는데, U자 혹은 역U자 형태의 궤적을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분할함수모형은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변화가 상이한 형태를 지닌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급에 따라 변화양상에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초등학교와 중학교 사이를 경계시점으로 서로 다른 선형변화율을 갖는 모형으로 설정하였다. 전술한 모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표 I-5>에는 각 모형에 대한 설명과 예시 그래프를 제시하였다.

표 1-5 모형 설명 및 예시

모형	설명	예시
1) 무변화모형	변화가 없는 모형	
2) 선형변화모형	선형으로 변화하는 모형	
3) 이차변화모형	이차함수 곡선으로 변화하는 모형	
4) 분할함수모형	특정시점을 기준으로 변화가 상이한 모형	

한편, 모형 평가에서는 구조방정식 모형의 대표적인 Chi-Square, TLI(Tucker-Lewis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등의 적합도 지수(goodness-of-fit index)를 사용하였다(홍세희, 2000). Chi-Square는 표본 크기에 민감하다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으므로 다른 적합도 지수를 함께 사용할 필요가 있는데(홍세희, 2000; Kline, 2010), TLI와 CFI는 대략 0.9 이상인 경우 연구 모형의 적합도가 좋다고 볼 수 있다(홍세희, 2000). RMSEA의 경우 대략 0.05보다 작으면 좋은 적합도, 0.08보다 작으면 괜찮은 적합도, 0.1보다 작으면 보통의 적합도로 해석할 수 있다(Browne and Cudeck, 1993; Hoe, 2008).

(2) 다문화청소년과 일반청소년 간 발달 추이 비교 분석

전술한 분석에서 도출된 다문화청소년의 발달 추이를 보다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일반청소년과의 비교 분석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청소년과 일반청소년 간 발달 추이를 비교하기 위한 목적으로,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하였으며 비교 가능한 변인들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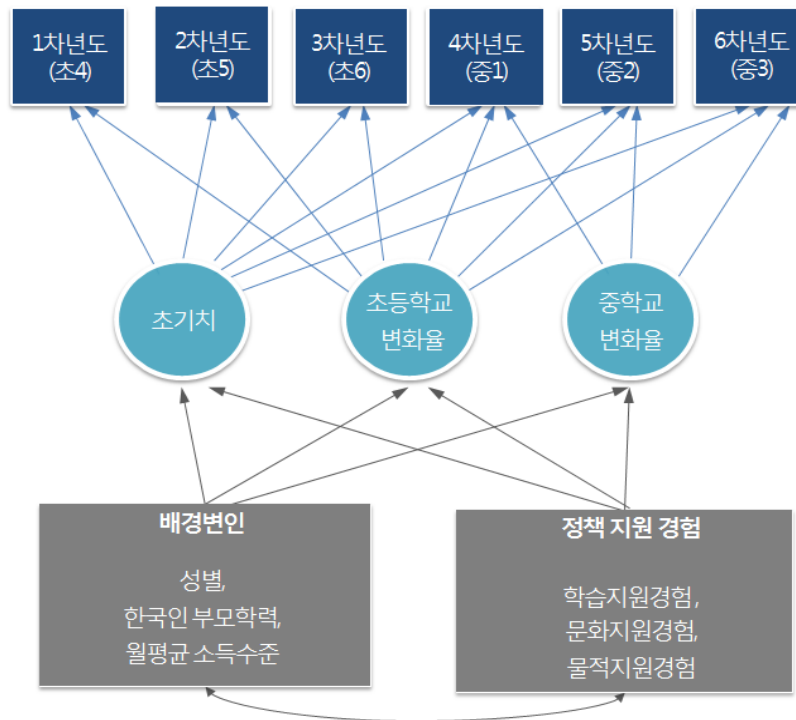
중심으로 체계적인 다집단분석(Multi-group Analysis)을 수행하였다. 다집단분석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되었다. 먼저 잠재성장모형의 절차에 따라 집단 간 형태동일성을 확인하였다. 형태동일성이란 다문화청소년과 일반청소년 두 집단에서 해당 변인의 변화를 설명하는 데에 동일한 모형이 적합한지 검증하는 것이다. 형태동일성이 충족되면 다문화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변화에 대한 추정 모수의 평균값에 차이가 존재하는지 비교하였다. 이는 두 집단에서 변화 함수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초기치나 변화율에 차이가 존재하면, 그 변화 양상이 상이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무변화모형의 경우 초기치가 동일한지 비교하고, 선형변화모형의 경우 초기치와 선형변화율을 비교할 수 있다. 이차변화모형의 경우 초기치와 일차변화율, 이차변화율, 분할함수모형의 경우 초기치와 초등학교시기 변화율, 중학교시기 변화율을 비교하는데, 각각의 추정모수에서 집단 간 차이가 존재하는지 살펴보았다. 여기에서 추정모수의 평균값 차이를 분석하는 방법은 다문화청소년과 일반청소년 두 집단의 각 초기치와 변화율의 평균값을 동일하게 고정시키는 모형 비교를 통해 검증할 수 있다. 가령 집단 간 특정 요인의 평균값을 고정시킨 모형이 기각되면, 해당 요인의 평균값이 집단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때, 평균값에 대한 고정은 두 집단 간 가장 차이가 적은 요인 순으로 실시하였으며, 이러한 분석 절차를 토대로 체계적인 다집단분석을 수행하였다. 모형에 대한 평가는 기초 분석과 마찬가지로 Chi-Square뿐만 아니라 TLI, CFI, RMSEA 등 다른 적합도 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증하였다.

(3) 다문화청소년의 발달 추이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청소년의 발달 양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심층 분석을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 학습활동, 교우관계, 학교성적수준, 성적에 대한 만족도,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 비행경험 등 발달 변인들에 대한 심층 분석을 각각 수행하였다. 그리하여 다문화청소년의 개인 배경변인에 따라 발달 변화에 차이가 존재하는지 살펴보고, 정책 지원을 받았던 경험들이 이들의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발휘하는지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심층 분석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앞서 기초 분석에서 모형 비교를 통해 각 발달 변인의 변화 궤적을 가장 잘 설명하는 변화 모형을 도출하였는데,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심층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리하여 각 변인들의 변화 모형에 다문화청소년의 배경변인과 정책지원경험 변인을 투입하여 조건모형을 구성하였다. 구체적으로 개인의 배경변인으로서 성별, 부모학력, 월평균 소득수준 변인을 투입하였으며, 정책지원경험으로서 학습지원경험, 문화지원

경험, 물적지원경험 변인을 추가로 투입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에 따라 발달 요인별로 분석모형에 약간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 분석 모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분할함수모형을 예시로 도식화하면 다음 [그림 1-3]과 같다.



【그림 1-3】 심층 분석모형(예)

이상의 분석모형은 통계프로그램 AMOS를 활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기술통계와 상관관계 분석은 SPSS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결측치 처리 방법은 완전정보 최대우도법(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 FIML)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6년 간의 축적된 조사자료를 토대로 수행되는 종단분석으로서, 다수의 결측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결측치를 사례제거법(listwise deletion) 및 쌍별제거법(pairwise deletion)과 같은 전통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분석대상의 사례 수가 많이 감소하는 문제점을 갖는다. FIML은 결측자료가 MCAR(missing completely at random) 또는 MAR(missing at random)을 만족하는 경우 사례제거법과 쌍별제거법과 같은 전통적인 결측처리 방법보다 정확한 추정방법으로 볼 수 있으며, MCAR과 MAR을 충족하지 못하여도 여타 방법에 비해 정확하게 추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Arbuckle, 1996).

제 II 장

다문화청소년의 발달 추이에 대한 기초 분석

1. 학업 및 학교생활적응
2. 심리적응
3. 사회적응
4. 문화적응 및 정체성
5. 신체발달 및 건강
6. 요약 및 소결

제 II 장

다문화청소년의 발달 추이에 대한 기초 분석

이 절에서는 기초 분석으로서 다문화청소년의 발달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개괄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11년 조사 당시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하였던 다문화청소년 가운데 2016년까지 종단조사에 지속적으로 참여한 청소년을 분석대상으로 두고, 주요 문항에 충실히 응답한 1,296명을 최종표본으로 선정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리하여 6년 간의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다문화청소년의 전반적인 발달 영역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모형 비교를 통해 각 발달 영역에 주요 요인들이 어떠한 궤적으로 변화하는지 엄밀하게 추정하고자 하였다³⁾. 분석 결과는 1) 학업 및 학교생활 적응, 2) 심리적응 3) 사회적응, 4) 정체성, 5) 신체발달 및 건강 순으로 제시되어 있다.

1. 학업 및 학교생활적응

학업 및 학교생활적응 영역에서는 학습활동, 교사관계, 교우관계, 학교성적수준, 성적에 대한 만족도 변인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해당 변인들을 중심으로 다문화청소년의 발달 변화 양상을 살펴보았다.

3) 본 연구에서는 6년 동안 수집된 종단자료를 변화 함수를 추정하는 모형으로서 무변화모형, 선형변화모형, 이차변화모형, 분할함수모형을 선정하여 모형 비교를 실시하였다. 최대 6년 동안 자료가 수집된 요인의 경우 3차 이상의 변화모형도 고려할 수 있겠으나, 모형이 매우 복잡하고 그 해석 과정에서 실제적인 의미를 부여하기에 다소 어려움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분석결과에 대한 이해가 비교적 용이하고 해석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무변화모형, 선형변화모형, 이차변화모형, 분할함수모형으로 모형 비교를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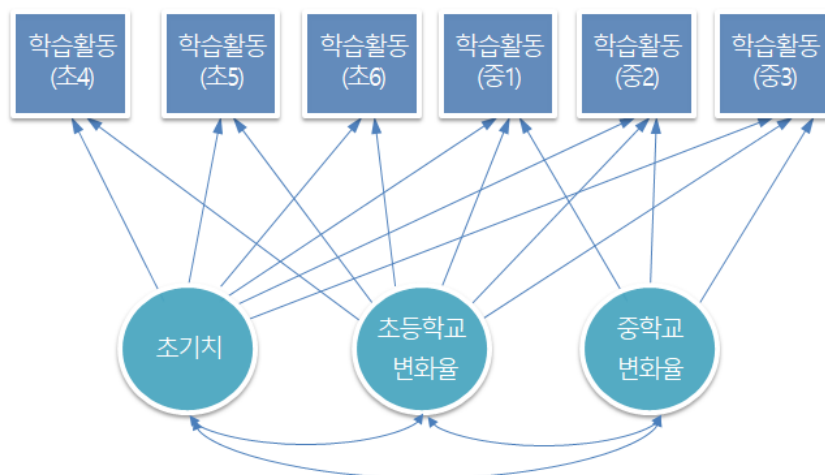
1) 학습활동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다문화청소년의 학습활동의 변화 양상을 추정하고자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하여 모형 비교를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무변화모형, 선형변화모형, 이차변화모형, 분할함수모형을 비교하였다. 이때, 본 연구에서 분석한 자료는 초등학교 재학 3년(초등학교 4학년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중학교 재학 3년(중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동안 수집된 총 6년 간의 종단자료이다. 분할함수모형의 경우 변화의 경계를 설정할 기준 시점이 필요한데, 본 연구에서는 학교급에 따라 변화양상에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는 가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경계를 기준시점으로 설정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표 II-1>에 제시된 결과와 같이 카이자승 값과 적합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봤을 때, 다문화청소년의 6년 간의 학습활동 변화를 가장 잘 설명해주는 모형은 분할함수모형인 것으로 확인되었다⁴⁾. 분할함수모형에서 TLI는 0.976, CFI는 0.981로 적합도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RMSEA는 0.058로 괜찮은 적합도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 설정한 모형이 자료를 잘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II-1 다문화청소년 학습활동 변화의 모형 비교

모형	χ^2	df	TLI	CFI	RMSEA
무변화모형	373.559	19	0.896	0.868	0.12
선형변화모형	97.702	16	0.971	0.97	0.063
이차변화모형	63.565	12	0.976	0.981	0.058
분할함수모형	63.431	12	0.976	0.981	0.058

4) 학습활동 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보면 이차변화모형과 분할함수모형의 적합도가 대등하게 나타났으나, 해석가능성 및 해석 용이성을 고려하여(손수경, 이현정, 홍세희, 2017) 최종적으로 분할함수모형을 선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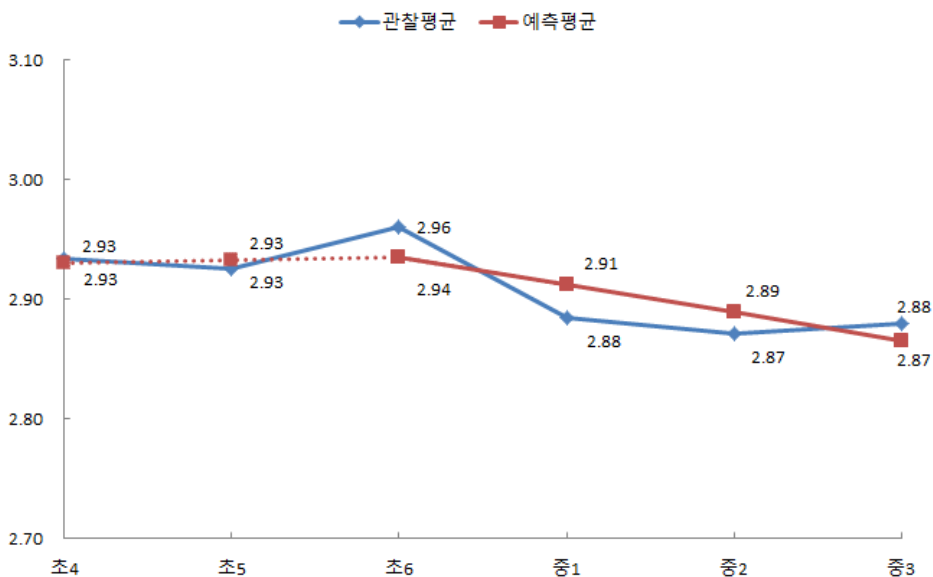
【그림 II-1】 다문화청소년 학습활동 분할함수모형

분할함수모형에 기초하여 학습활동의 변화를 추정한 분석결과를 <표 II-2>에 제시하였으며, [그림 II-2]는 실제 관측값과 모형으로 추정한 예측값을 나타낸 것이다. 초등학교 4학년 당시 학습활동 초기치의 평균은 2.931이었으며, 중학교 시기의 변화율은 -0.023로 확인되었으며, 모두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초등학교 시기의 변화율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유의미한 결과만을 살펴보았을 때, 다문화청소년의 학습활동은 중학교 시기에 평균적으로 그 수준이 점차 저조해지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초기치와 초등학교 시기 변화율의 공분산은 부적으로 나타났으며 초기치와 중학교 시기 변화율과의 공분산도 부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종단연구에서 흔히 일어나는 양상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학습활동의 초기값이 높을수록 감소하는 속도는 더 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학습활동의 초기치와 초등학교 변화율, 중학교 변화율 모두 분산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이는 다문화청소년의 학습활동의 변화 과정에서 개인 간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표 II-2 다문화청소년 학습활동 변화의 분할함수모형 분석 결과

	I (초기치)		S1 (초등학교 변화율)		S2 (중학교 변화율)		I-S1의 공분산	I-S2의 공분산	S1-S2의 공분산
	평균	분산	평균	분산	평균	분산			
학습 활동	2.931***	0.126***	0.002	0.016***	-0.023***	0.011***	-0.013*	-0.006**	-0.001

*** $p < 0.001$, ** $p < 0.01$, * $p < 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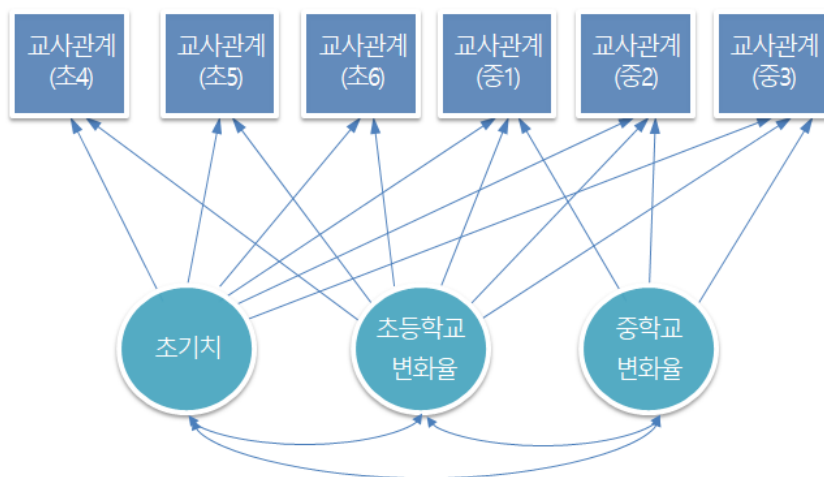
【그림 II-2】 다문화청소년 학습활동의 관찰평균과 예측평균

2) 교사관계

다음으로 다문화청소년의 교사관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 양상을 분석하였다. 앞서 학습활동 분석과 동일하게 무변화모형, 선형변화모형, 이차변화모형, 분할함수모형을 비교 분석하였으며 분석결과는 <표 II-3>에 제시되어 있다. 2011년 초등학교 4학년부터 2016년 중학교 3학년까지 교사관계 변화를 분석한 결과, 분할함수모형이 타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모형 적합도는 분할함수모형이 TLI 0.979, CFI 0.983, RMSEA 0.037로 가장 좋은 적합도를 나타내었다.

표 II-3 다문화청소년 교사관계 변화의 모형 비교

모형	χ^2	df	TLI	CFI	RMSEA
무변화모형	175.166	19	0.902	0.876	0.080
선형변화모형	49.662	16	0.975	0.973	0.040
이차변화모형	35.214	12	0.977	0.982	0.039
분할함수모형	33.196	12	0.979	0.983	0.0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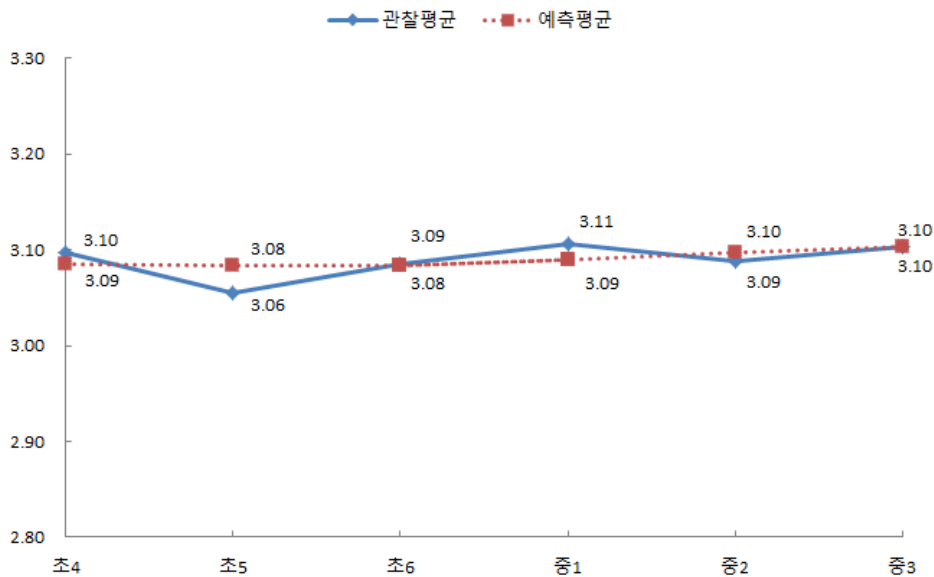
【그림 II-3】 다문화청소년 교사관계 분할함수모형

<표 II-4>에는 교사관계에 대한 분할함수모형 추정 결과가 제시되었으며, [그림 II-4]는 실제 관측값과 모형으로 추정된 예측값을 나타낸 것이다. 초등학교 4학년 당시 초기치는 평균적으로 3.085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또한 초기치의 분산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교사관계의 변화 과정에서 개인 간의 차이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초등학교 시기의 선형변화율과 중학교 시기의 선형변화율의 평균값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반면 두 변화율의 분산은 모두 유의미한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전술한 결과는 다문화청소년의 교사관계 변화에서 평균적인 뚜렷한 흐름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개인차는 존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아울러 학습활동과 마찬가지로 초기치와 초등학교 시기 변화율, 초기치와 중학교 시기 변화율 간의 공분산은 부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II-4 다문화청소년 교사관계 변화의 분할함수모형 분석 결과

	I (초기치)		S1 (초등학교 변화율)		S2 (중학교 변화율)		I-S1의 공분산	I-S2의 공분산	S1-S2의 공분산
	평균	분산	평균	분산	평균	분산			
교사 관계	3.085***	0.155***	-0.001	0.024***	0.007	0.015***	-0.03**	-0.011**	-0.002

*** $p < 0.001$, ** $p < 0.01$, * $p < 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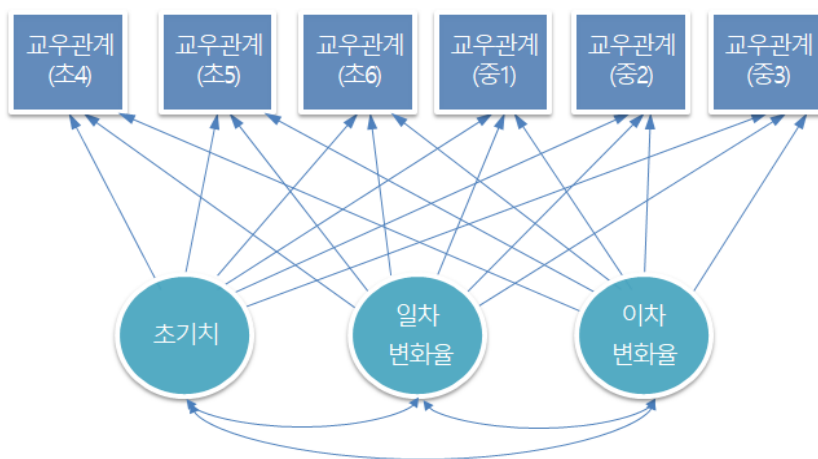
【그림 II-4】 다문화청소년 교사관계의 관찰평균과 예측평균

3) 교우관계

다음으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다문화청소년의 교우관계 변화함수를 추정하기 위한 모형 비교를 실시하였다. 무변화모형, 선형변화모형, 이차변화모형, 분할함수모형을 비교한 결과를 <표 II-5>에 제시하였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6년 간의 교우관계 변화 양상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모형은 이차변화모형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차변화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보면 TLI는 0.989, CFI는 0.991, RMSEA는 0.034로 다른 모형의 적합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II-5 다문화청소년 교우관계 변화의 모형 비교

모형	χ^2	df	TLI	CFI	RMSEA
무변화모형	293.907	19	0.89	0.86	0.106
선형변화모형	94.105	16	0.963	0.96	0.061
이차변화모형	29.899	12	0.989	0.991	0.034
분할함수모형	42.412	12	0.981	0.985	0.044



【그림 II-5】 다문화청소년 교우관계 이차변화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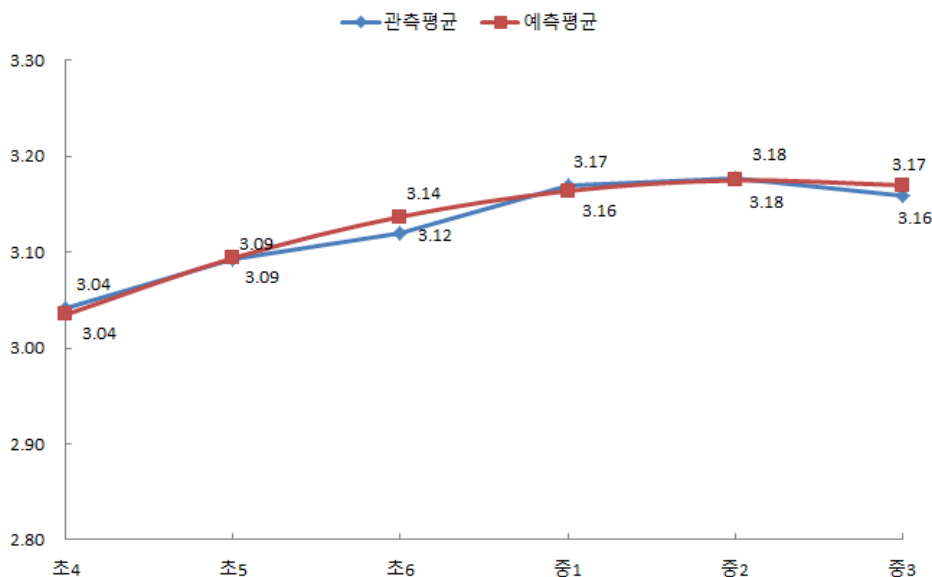
이차변화모형에 기초하여 교우관계 변화를 분석한 결과가 <표 II-6>에 제시되어 있으며, 실제 관측값과 모형으로 추정된 예측값이 [그림 II-6]에 제시되어 있다. 초등학교 4학년 당시 교우관계 초기치의 평균은 3.035이었으며, 일차 변화율의 평균값은 0.067, 이차 변화율은 -0.008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여기에서 일차 변화율은 초등학교 4학년 시기의 순간 변화율로서 초기에 증가 추세이었음을 시사하고 있으며, 이차 변화율은 부적으로 나타나 시간이 흐를수록 그러한 교우관계의 증가세가 둔화되는 역-U자 형태의 양상으로 변화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실제로 분석결과를 토대로 각 시점별 예측값을 계산해보면, (초4) 3.035, (초5) 3.094, (초6) 3.137, (중1) 3.164, (중2) 3.175, (중3) 3.170으로 초등학교 4학년 이후 증가하다가 그 증가속도가 점차 감소하여 중학교 3학년에는 오히려 중학교 2학년때보다 더 낮아지는 양상을 나타낸다. 한편 초기치와 일차 변화율, 이차 변화율의 분산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교우관계의 변화 양상에서 다문화청소년의 개인에 따라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표 II-6 다문화청소년 교우관계 변화의 이차변화모형 분석 결과

	I (초기치)		S (일차 변화율)		Q (이차 변화율)		I-S의 공분산	I-Q의 공분산	S-Q의 공분산
	평균	분산	평균	분산	평균	분산			
교우 관계	3.035***	0.121***	0.067***	0.023***	-0.008***	0.001***	-0.015	0.001	-0.004

*** $p < 0.001$, ** $p < 0.01$, * $p < 0.05$



【그림 II-6】 다문화청소년 교우관계의 관찰평균과 예측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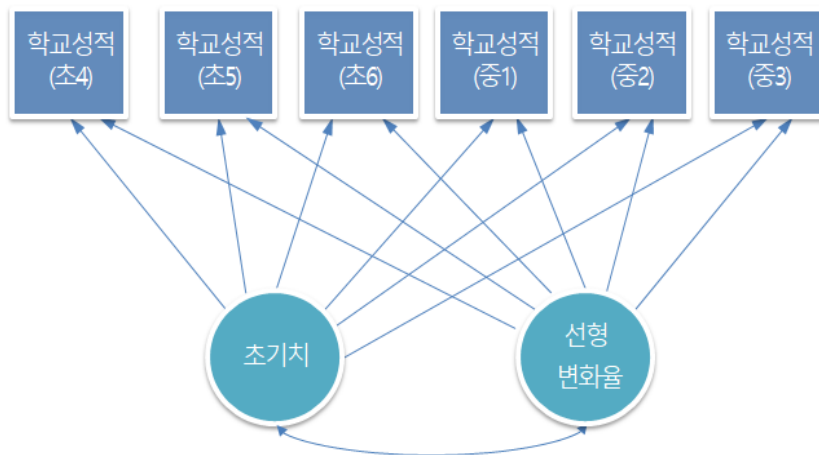
4) 학교성적수준

다음으로 다문화청소년의 학업적 측면에서 학교성적수준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모형 비교를 수행하였으며, 분석결과를 <표 II-7>에 제시하였다. 2011년 초등학교 4학년부터 2016년 중학교 3학년까지 학교성적수준의 변화양상을 분석한 결과, 선형으로 변화하는 모형이 가장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학교성적수준에 대한 선형변화모형의 적합도는 TLI 0.929, CFI 0.924, RMSEA 0.113으로 상대적으로 다른 모형에 비해 적합도가 더 좋은 것으로 확인되어 최종 모형으로 선정하였다).

표 II-7 다문화청소년 학교성적수준 변화의 모형 비교

모형	χ^2	df	TLI	CFI	RMSEA
무변화모형	1148.868	19	0.746	0.679	0.214
선형변화모형	281.503	16	0.929	0.924	0.113
이차변화모형	250.988	12	0.915	0.932	0.124
분할함수모형	221.078	12	0.926	0.940	0.116



【그림 II-7】 다문화청소년 학교성적수준 선형변화모형

<표 II-8>에는 학교성적수준에 대한 선형변화모형 추정 결과가 제시되었으며, [그림 II-8]은 실제 관측값과 모형으로 추정한 예측값을 나타낸다. 초등학교 4학년 당시 초기치의 평균값은 3.445, 선형 변화율의 평균값은 -0.077로 나타났으며, 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술한 결과는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성적수준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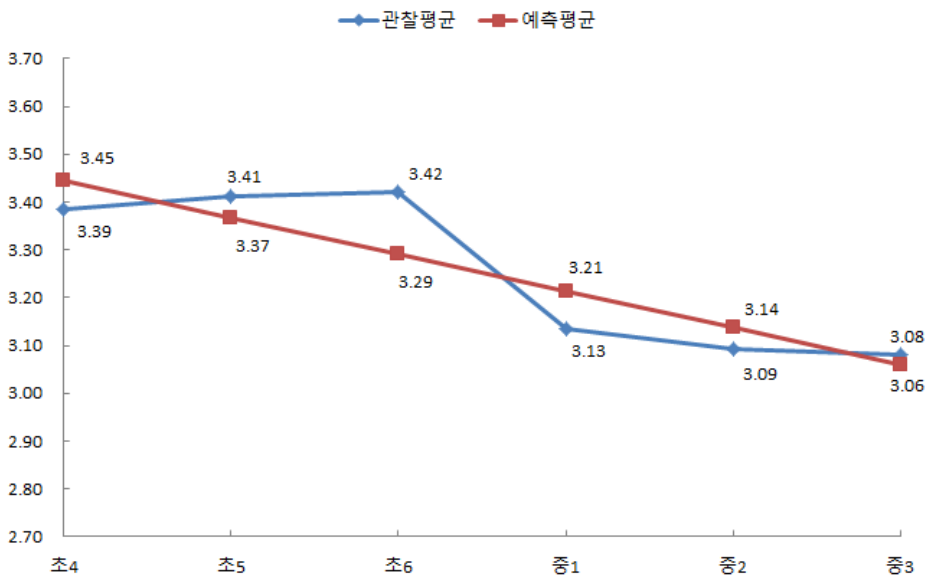
5) 학교성적수준의 선형변화모형의 적합도를 분석한 결과 RMSEA의 값이 허용수준(0.1)에 다소 미치지 못하였으나, TLI와 CFI의 값은 0.90이상으로 좋은 적합도인 것으로 나타나, 적합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모형으로 선정하였다.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감소경향이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초기치와 선형 변화율의 분산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학교성적수준이 감소하는 과정에서 다문화청소년 개인 간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아울러 학교성적수준의 초기치와 선형 변화율의 공분산은 부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초기에 학교성적수준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학교성적수준의 감소폭이 더 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II-8 다문화청소년 학교성적수준 변화의 선형변화모형 분석 결과

	I (초기치)		S (선형 변화율)		I-S의 공분산
	평균	분산	평균	분산	
학교성적수준	3.445***	0.271***	-0.077***	0.013***	-0.017***

*** $p < 0.001$, ** $p < 0.01$, * $p < 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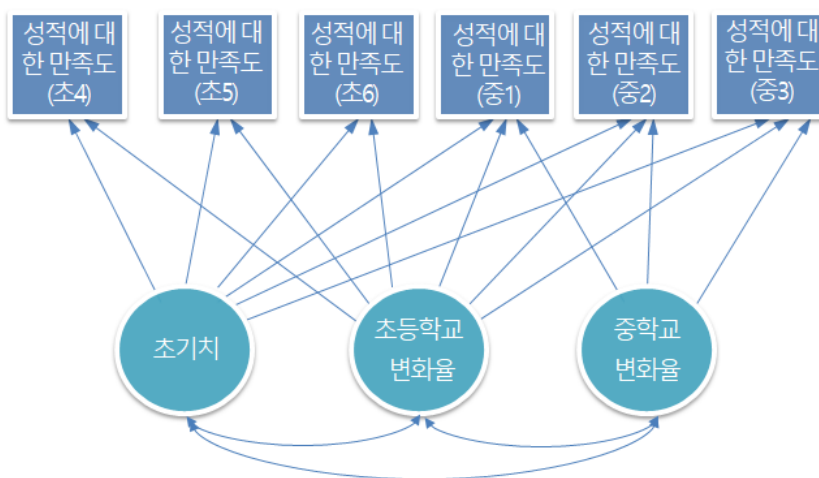
【그림 II-8】 다문화청소년 학교성적수준의 관찰평균과 예측평균

5) 성적에 대한 만족도

다음으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다문화청소년의 성적에 대한 만족도 변화함수를 추정하였다. 무변화모형, 선형변화모형, 이차변화모형, 분할함수모형을 비교한 결과를 <표 II-9>에 제시하였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성적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의 변화 양상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모형은 분할함수모형으로 초등학교 시기와 중학교 시기에 상이한 변화 궤적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아래의 표에 제시된 바와 같이 분할함수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보면 TLI는 0.954, CFI는 0.963, RMSEA는 0.064로 다른 모형의 적합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해당 모형이 다문화청소년의 성적에 대한 만족도의 변화를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표 II-9 다문화청소년 성적에 대한 만족도 변화의 모형 비교

모형	χ^2	df	TLI	CFI	RMSEA
무변화모형	1040.775	19	0.539	0.416	0.204
선형변화모형	141.755	16	0.933	0.928	0.078
이차변화모형	97.075	12	0.939	0.951	0.074
분할함수모형	76.195	12	0.954	0.963	0.0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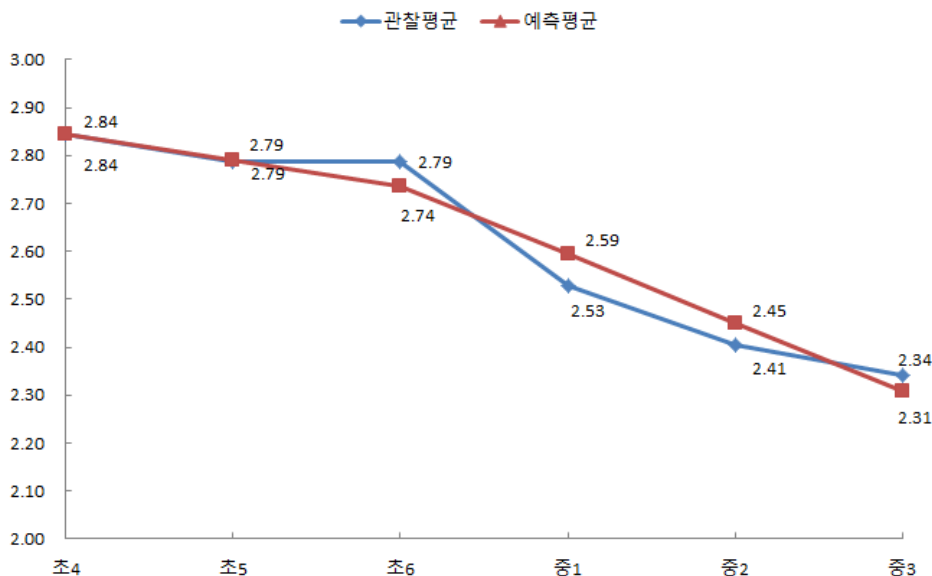
【그림 II-9】 다문화청소년 성적에 대한 만족도 분할함수모형

<표 II-10>은 분할함수모형에 기초하여 성적에 대한 만족도 변화를 분석한 결과이며, [그림 II-10]은 실제 관측값과 모형으로 추정한 예측값을 보여준다. 그리하여 초기치인 초등학교 4학년 당시 성적에 대한 만족도 평균은 2.844이었으며, 초등학교 시기 변화율은 -0.054, 중학교 시기 변화율은 -0.143으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술한 결과는 성적에 대한 만족도가 초등학교 시기와 중학교 시기 모두 평균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감소세는 중학교 시기에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초기치와 초등학교 변화율, 중학교 변화율의 분산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성적에 대한 만족도의 변화 양상에 다문화청소년 집단 내에 개인 간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아울러 초기치와 중학교 시기의 변화율 간 공분산은 부적으로(-0.033)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수치였다. 이러한 결과는 초기 성적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던 청소년일수록 중학교에 진입 이후 만족도의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II-10 다문화청소년 성적에 대한 만족도 변화의 분할함수모형 분석 결과

	I (초기치)		S1 (초등학교 변화율)		S2 (중학교 변화율)		I-S1의 공분산	I-S2의 공분산	S1-S2의 공분산
	평균	분산	평균	분산	평균	분산			
성적에 대한 만족도	2.844***	0.212***	-0.054***	0.028**	-0.143***	0.023***	-0.009	-0.033***	0.002

*** $p < 0.001$, ** $p < 0.01$, * $p < 0.05$



【그림 II-10】 다문화청소년 성적에 대한 만족도의 관찰평균과 예측평균

요약

- 학업 및 학교생활 적응 영역에서 각 하위 요인들의 다양한 변화 궤적이 확인됨.
- 학업과 관련한 요인들(학습활동, 학교성적수준, 성적에 대한 만족도)은 시기적으로 약간의 차이는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이 확인됨.
- 교우관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좋아지다가 그 상승세가 점차 둔화하는 이차함수 곡선으로 변화하는 경향성이 나타남.
- 교사관계는 학교급에 따라 다른 변화 궤적을 갖는 분할함수모형이 타당하였으나 뚜렷한 평균적인 변화 흐름은 나타나지 않음.

2. 심리적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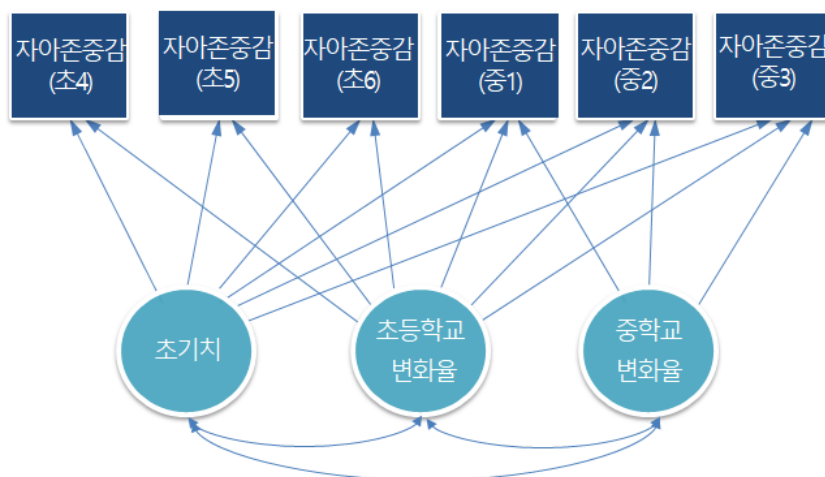
심리적응 영역과 관련해서는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 우울 등의 변인을 살펴보았으며, 모형 비교를 통해 각 변인들의 변화 궤적을 추정하였다.

1) 자아존중감

2011년 초등학교 4학년부터 2016년까지 중학교 3학년에 이르기까지 다문화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변화 양상을 추정하고자 모형 비교를 실시하였다. 앞서 학업 및 학교생활적응 영역과 마찬가지로 무변화모형, 선형변화모형, 이차변화모형, 분할함수모형을 비교하였으며, 분할함수모형의 경우 학교급에 따라 독립적인 변화율을 갖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표 II-11>에 제시된 결과와 같이 카이자승 값과 적합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봤을 때, 다문화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변화 양상을 설명해주는 모형은 초등학교 시기와 중학교 시기에 상이한 변화를 가지는 분할함수모형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자아존중감에 대한 분할함수모형의 적합도는 TLI 0.998, CFI는 0.998, RMSEA 0.016으로 다른 모형에 비하여 더 좋은 적합도를 나타내었다.

표 II-11 다문화청소년 자아존중감 변화의 모형 비교

모형	χ^2	df	TLI	CFI	RMSEA
무변화모형	225.424	19	0.931	0.913	0.092
선형변화모형	91.918	16	0.97	0.968	0.061
이차변화모형	17.231	12	0.997	0.998	0.018
분할함수모형	16.222	12	0.998	0.998	0.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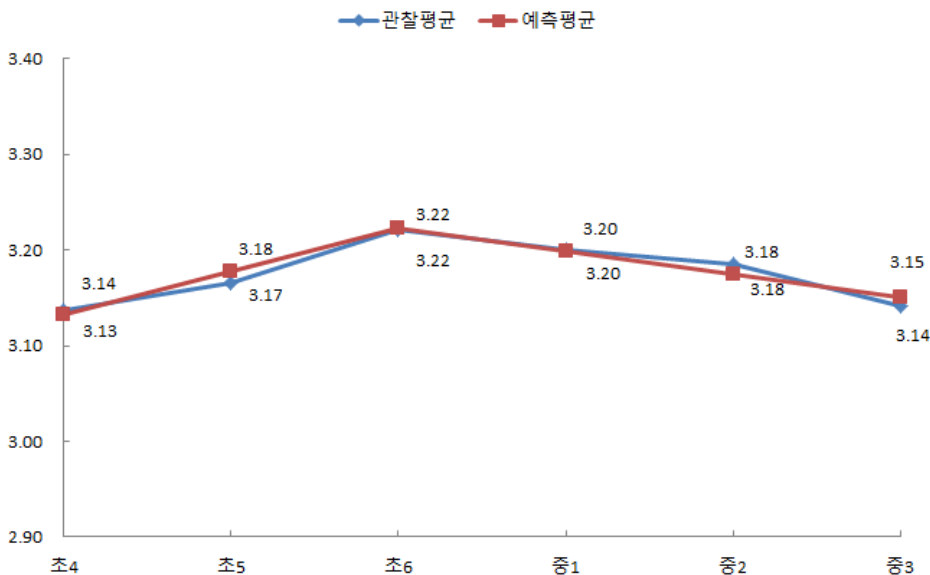


【그림 II-11】 다문화청소년 자아존중감 분할함수모형

분할함수모형에 기초하여 자아존중감을 변화를 추정한 분석결과를 <표 II-12>에 제시하였으며, [그림 II-12]에 실제 관측값과 모형으로 추정한 예측값을 제시하였다. 초등학교 4학년 당시 자아존중감 초기치의 평균은 3.133이었으며, 초등학교 시기의 변화율의 평균은 0.045, 중학교 시기의 변화율은 -0.024로 나타났으며,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술한 결과는 다문화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초등학교 시기에는 점차 증가하였으나 중학교에 진학 후에는 오히려 반대로 감소하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아울러 초기치와 초등학교 시기 변화율의 공분산은 부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초기치와 중학교 시기 변화율의 공분산도 부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종단연구에서 흔히 발생하는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자아존중감의 초기치가 높은 청소년일수록 초등학교 시기에 덜 증가하거나 중학교 시기에 감소폭이 더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자아존중감의 초기치 및 초등학교 시기 변화율, 중학교 시기 변화율의 분산을 분석한 결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어 다문화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변화 양상에서 개인 간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II-12 다문화청소년 자아존중감 변화의 분할함수모형 분석 결과

	I (초기치)		S1 (초등학교 변화율)		S2 (중학교 변화율)		I-S1의 공분산	I-S2의 공분산	S1-S2의 공분산
	평균	분산	평균	분산	평균	분산			
자아 존중감	3.133***	0.151***	0.045***	0.021***	-0.024***	0.012***	-0.019**	-0.007**	-0.002

*** $p < 0.001$, ** $p < 0.01$, * $p < 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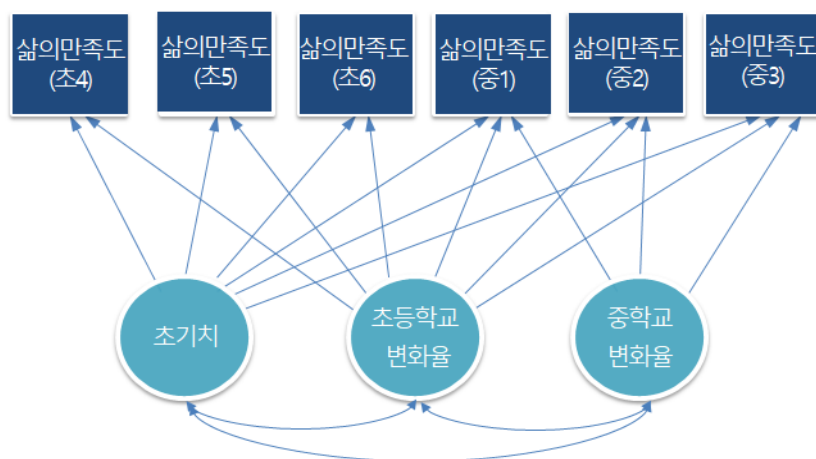
【그림 II-12】 다문화청소년 자아존중감의 관찰평균과 예측평균

2) 삶의 만족도

다음으로 다문화청소년을 대상으로 삶의 만족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 양상을 분석하였다. 앞서 자아존중감에 대한 분석과 동일하게 무변화모형, 선형변화모형, 이차변화모형, 분할함수모형을 비교 분석하였으며 분석결과는 <표 II-13>에 제시되어 있다. 2011년 초등학교 4학년부터 2016년 중학교 3학년까지 삶의 만족도 변화를 분석한 결과, 학교급에 따라 변화에 차이가 존재하는 분할함수모형이 가장 타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분할함수모형의 적합도는 TLI 0.994, CFI 0.996, RMSEA 0.023으로 가장 좋은 적합도를 나타내었다.

표 II-13 다문화청소년 삶의 만족도 변화의 모형 비교

모형	χ^2	df	TLI	CFI	RMSEA
무변화모형	438.935	19	0.82	0.772	0.131
선형변화모형	165.907	16	0.924	0.919	0.085
이차변화모형	24.571	12	0.991	0.993	0.028
분할함수모형	20.136	12	0.994	0.996	0.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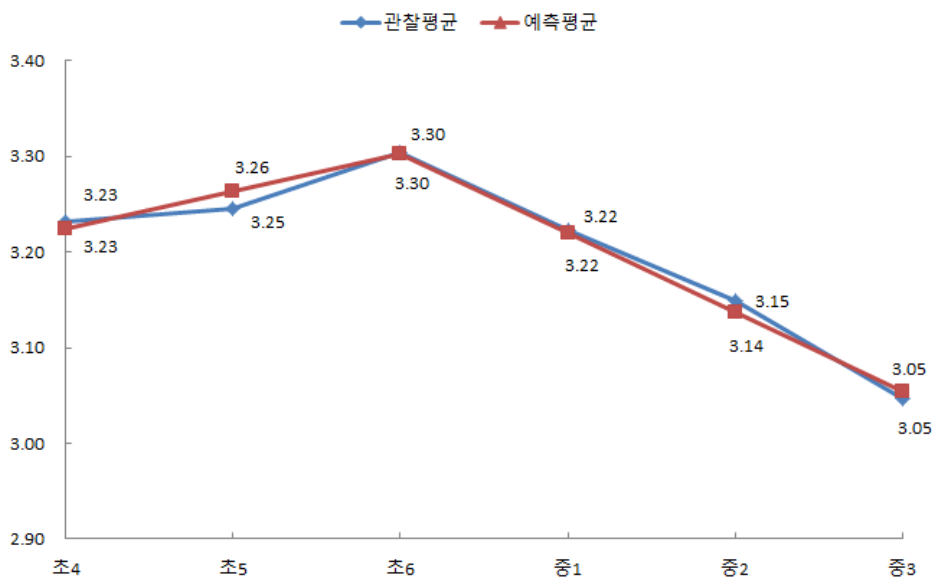


【그림 II-13】 다문화청소년 삶의 만족도 분할함수모형

<표 II-14>에는 삶의 만족도에 대한 분할함수모형 추정 결과가 제시되어 있으며, [그림 II-14]는 실제 관측값과 모형으로 추정된 예측값을 나타낸다. 초등학교 4학년 당시 다문화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초기치는 평균적으로 3.225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또한 초등학교 시기의 변화율의 평균값(0.039)은 정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반대로 중학교 시기의 변화율의 평균값(-0.083)은 부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앞서 분석한 자아존중감의 변화 패턴과 유사한 것으로서, 초등학교 시기에 다문화청소년의 삶의 만족도가 점차 증가하다가 중학교 진학 이후에는 감소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아울러 이러한 삶의 만족도 초기치와 변화율 모두 분산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삶의 만족도 변화에서 다문화청소년 집단 내에 개인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자아존중감과 마찬가지로 초기치와 초등학교 시기 변화율, 초기치와 중학교 시기 변화율 간의 공분산은 부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14 다문화청소년 삶의 만족도 변화의 분할함수모형 분석 결과

	I (초기치)		S1 (초등학교 변화율)		S2 (중학교 변화율)		I-S1의 공분산	I-S2의 공분산	S1-S2의 공분산
	평균	분산	평균	분산	평균	분산			
삶의 만족도	3.225***	0.179***	0.039***	0.035***	-0.083***	0.016***	-0.036***	-0.005*	-0.006

*** $p < 0.001$, ** $p < 0.01$, * $p < 0.05$ 

【그림 II-14】 다문화청소년 삶의 만족도 관찰평균과 예측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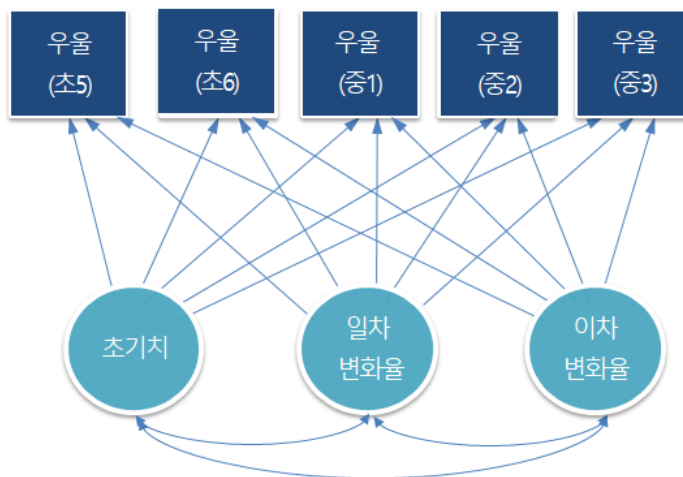
3) 우울

이어서 다문화청소년의 우울 수준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추정하기 위해 모형 비교를 실시하였다.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에서 우울에 대한 조사는 2012년 초등학교 5학년부터 수행되었으며, 이에 따라 2016년 중학교 3학년까지 총 5번 시점의 자료를 토대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무변화모형, 선형변화모형, 이차변화모형, 분할함수모형을 비교한 결과를 <표 II-15>에 제시하였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우울의 변화 양상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모형은 이차함수 곡선으로 변화하는 모형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차변화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보면 TLI는 0.999,

CFI는 1.000, RMSEA는 0.009로 다른 모형의 적합도에 비해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나 타당한 모형임을 확인할 수 있다.

표 II-15 다문화청소년 우울 변화의 모형 비교

모형	χ^2	df	TLI	CFI	RMSEA
무변화모형	257.151	14	0.891	0.848	0.116
선형변화모형	53.006	11	0.976	0.974	0.054
이차변화모형	7.716	7	0.999	1.000	0.009
분할함수모형	15.622	7	0.992	0.995	0.031



【그림 II-15】 다문화청소년 우울 이차변화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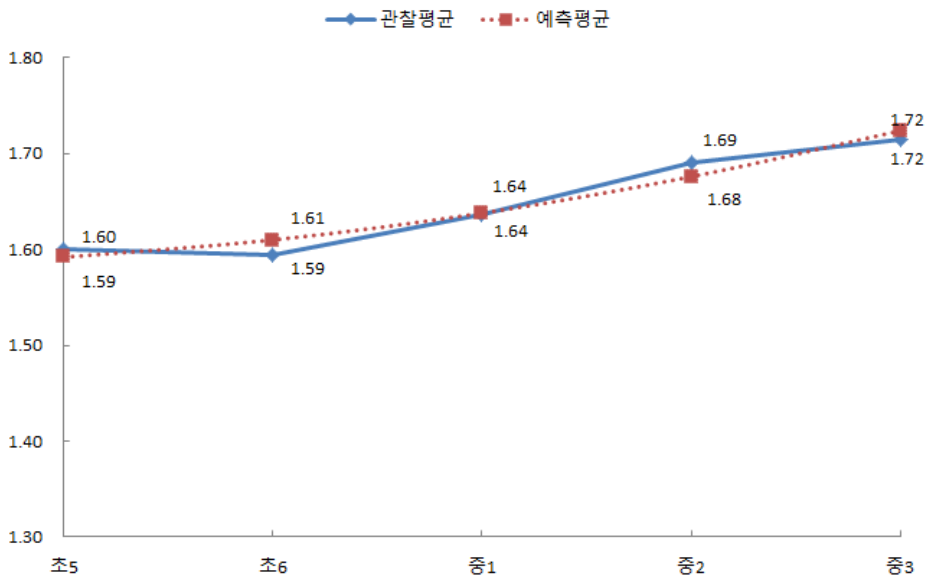
이차변화모형에 기초하여 다문화청소년의 우울 변화를 분석한 결과가 <표 II-16>에 제시되어 있다. 초등학교 5학년 당시 우울의 초기치 평균은 1.592이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또한 초기치의 분산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초기 우울 정도에 개인 간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일차 변화율과 이차 변화율의 평균값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분산은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다문화청소년을 대상으로 우울의 변화를 추정한 결과 변화의 평균적인 뚜렷한 흐름은 나타나지 않았으나, 변화의 개인차는 존재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아울러 초기치와 일차 변화율의 공분산(-0.023), 일차 변화율과 이차 변화율의 공분산(-0.012)은 부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II-16]은 다문화청소년 우울의 실제 관측값과 모형으로 추정한 예측값을 제시한 것이다.

표 II-16 다문화청소년 우울 변화의 이차변화모형 분석 결과

	I (초기치)		S (일차 변화율)		Q (이차 변화율)		I-S의 공분산	I-Q의 공분산	S-Q의 공분산
	평균	분산	평균	분산	평균	분산			
우울	1.592***	0.124***	0.013	0.061***	0.005	0.003***	-0.023**	0.003	-0.012***

*** $p < 0.001$, ** $p < 0.01$, * $p < 0.05$



【그림 II-16】 다문화청소년 우울의 관찰평균과 예측평균

요약

- 심리적응 영역에서도 하위 요인들의 다양한 변화 궤적이 확인됨.
-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의 경우 초등학교 시기에는 증가하다가 중학교 진학 이후에는 반대로 감소하는 분할함수의 형태로 변화하는 것으로 확인됨.
- 우울의 경우 이차변화모형이 타당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평균적인 뚜렷한 흐름은 나타나지 않음.

3. 사회적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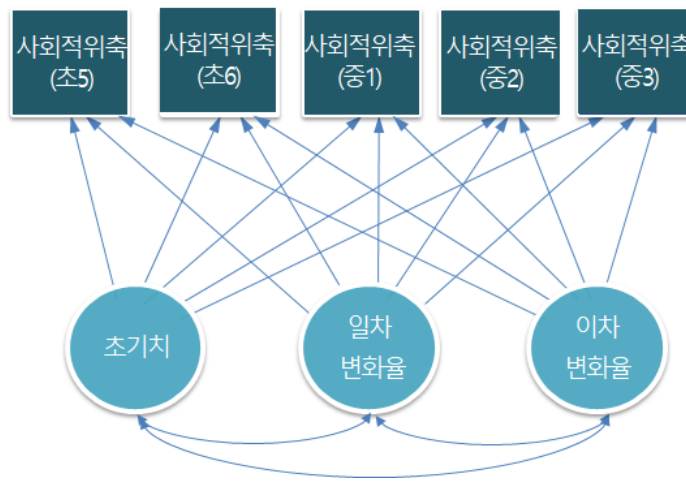
다음으로 다문화청소년의 사회적응 영역에서는 사회적 위축, 비행경험, 진로의식 등의 변인들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각 변인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떠한 변화 궤적을 나타내는지 추정하였다.

1) 사회적 위축

다문화청소년의 사회적 위축 변화 양상을 추정하기 위하여 모형 비교를 실시하였다. 사회적 위축에 대한 조사는 2012년 초등학교 5학년부터 수행되었으며, 이에 따라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 동안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사회적 위축의 변화 양상에 대한 무변화모형, 선형변화모형, 이차변화모형, 분할함수모형을 비교하였으며, 분석 결과를 <표 II-17>에 제시하였다. 표에 제시된 결과와 같이 다문화청소년의 사회적 위축 변화 양상은 이차함수 곡선으로 변화하는 모형이 타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회적 위축에 대한 이차변화모형의 적합도는 TLI 0.986, CFI는 0.991, RMSEA 0.044로 다른 모형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좋은 적합도를 나타내었다.

표 II-17 다문화청소년 사회적 위축 변화의 모형 비교

모형	χ^2	df	TLI	CFI	RMSEA
무변화모형	251.285	14	0.908	0.872	0.114
선형변화모형	58.099	11	0.977	0.975	0.058
이차변화모형	24.506	7	0.986	0.991	0.044
분할함수모형	43.304	7	0.972	0.98	0.0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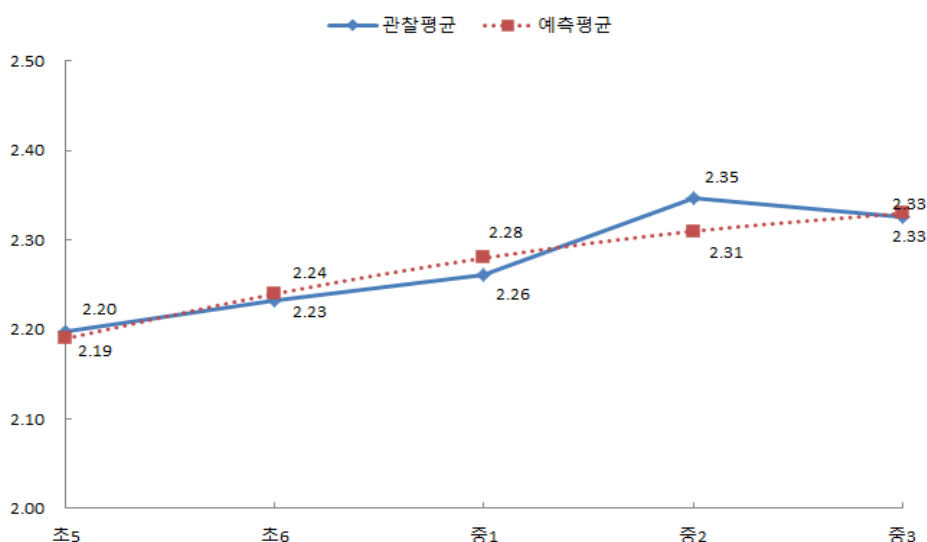
【그림 II-17】 다문화청소년 사회적 위축 이차변화모형

이차변화모형에 기초한 사회적 위축 변화의 분석결과를 <표 II-18>에 제시하였으며, [그림 II-18]은 실제 관측값과 모형으로 추정된 예측값을 나타낸 것이다. 초등학교 5학년 당시 사회적 위축의 초기치의 평균은 2.190이었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수준이었다. 사회적 위축의 일차 변화율 평균은 0.055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이는 초등학교 5학년 당시 사회적 위축의 순간변화율로서 초기에 증가추세이었음을 시사한다. 한편 이차 변화율의 평균값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이러한 초기 증가추세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평균적인 흐름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사회적 위축의 초기치 및 일차 변화율, 이차 변화율의 분산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어 사회적 위축의 변화 양상에서 개인 간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일차 변화율과 이차 변화율의 공분산은 부정적(-0.002)으로 확인되었다.

표 II-18 다문화청소년 사회적 위축 변화의 이차변화모형 분석 결과

	I (초기치)		S (일차 변화율)		Q (이차 변화율)		I-S의 공분산	I-Q의 공분산	S-Q의 공분산
	평균	분산	평균	분산	평균	분산			
사회적 위축	2.190***	0.255***	0.055**	0.078***	-0.005	0.004**	-0.021	-0.002***	-0.014

*** $p < 0.001$, ** $p < 0.01$, * $p < 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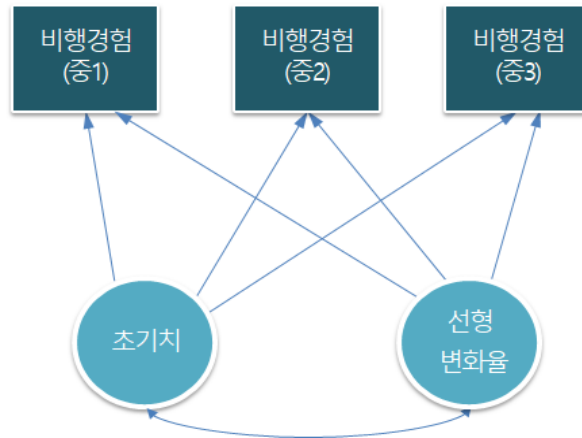
【그림 II-18】 다문화청소년 사회적 위축의 관찰평균과 예측평균

2) 비행경험

다음으로 다문화청소년의 비행경험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았다. 비행경험의 경우 2014년 중학교 1학년부터 2016년 중학교 3학년까지 공통적으로 조사된 문항을 토대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에 따라 세 시점에 대한 모형 설정이 가능한 무변화모형, 선형변화모형으로 모형 비교를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는 <표 II-19>에 제시되어 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다문화청소년의 비행경험 변화를 분석한 결과, 선형으로 변화하는 모형이 가장 타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선형변화모형의 적합도는 TLI 1.002, CFI 1.000, RMSEA 0.000으로 무변화모형보다 좋은 적합도를 나타내었다.

표 II-19 다문화청소년 비행경험 변화의 모형 비교

모형	χ^2	df	TLI	CFI	RMSEA
무변화모형	49.268	4	0.897	0.863	0.093
선형변화모형	0.771	1	1.002	1.000	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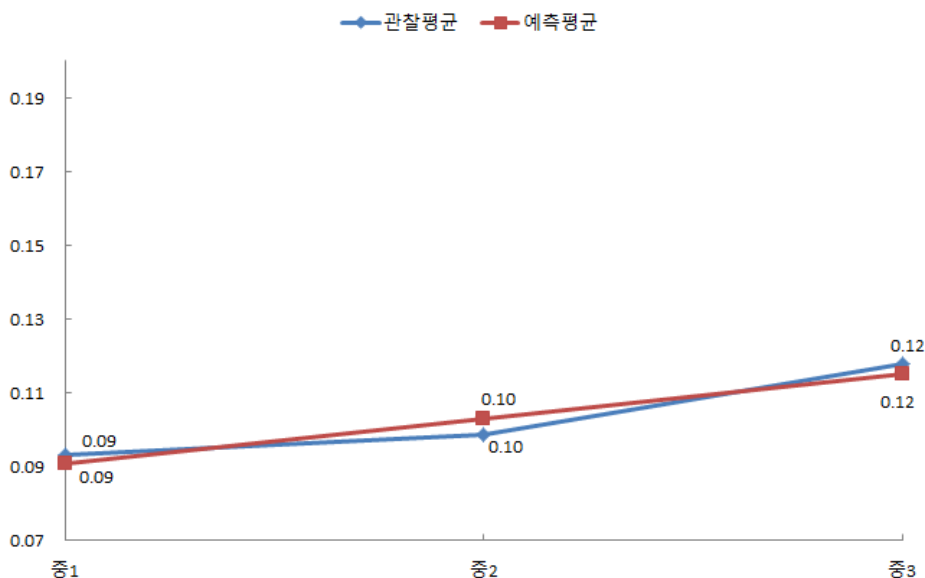
【그림 II-19】 다문화청소년 비행경험 선형변화모형

<표 II-20>에 비행경험에 대한 선형변화모형의 추정 결과가 제시하였으며, [그림 II-20]에 실제 관측값과 모형으로 추정한 예측값을 제시하였다. 중학교 1학년 당시 비행경험의 초기치 평균값은 0.091, 선형 변화율의 평균값은 0.012로 나타났으며, 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전술한 결과는 다문화청소년의 비행경험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아울러 초기치와 선형 변화율의 분산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러한 비행경험의 변화 궤적에서 다문화청소년 집단 내에 개인차가 존재하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비행경험의 초기치와 선형 변화율의 공분산은 부적으로 (-0.011)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종단연구에서 흔히 나타나는 현상으로 다문화청소년의 비행경험 초기값이 높을수록 더디게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II-20 다문화청소년 비행경험 변화의 선형변화모형 분석 결과

	I (초기치)		S (선형 변화율)		I-S의 공분산
	평균	분산	평균	분산	
비행경험	0.091***	0.038***	0.012*	0.016***	-0.011***

*** $p < 0.001$, ** $p < 0.01$, * $p < 0.05$



【그림 II-20】 다문화청소년 비행경험의 관찰평균과 예측평균

3) 진로의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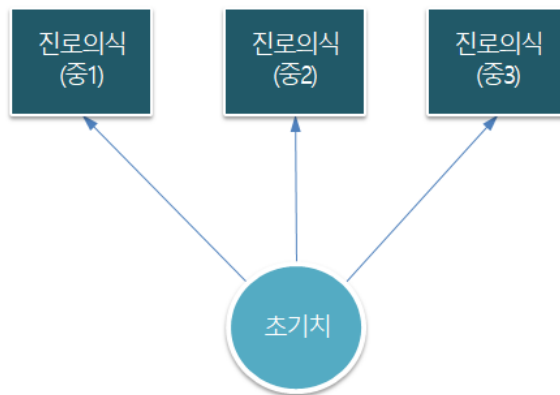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의식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추정하기 위해 모형 비교를 실시하였다. 진로의식은 2014년 중학교 1학년부터 조사가 수행되었으며, 이에 따라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무변화모형과 선형변화모형을 비교 분석하였다. <표 II-21>에 제시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진로의식의 변화 양상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모형은 무변화모형인 것으로 확인되었다⁶⁾. 무변화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보면 TLI 0.974, CFI 0.965로 좋은 적합도로 볼 수

6) 진로의식의 무변화모형에서 적합도 CF 값(0.965)은 선형변화모형(0.986)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TLI(0.974), RMSEA(0.064)는 선형변화모형에 비하여 더 좋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적합도를 종합적으로 고

있으며, RMSEA 0.064로 괜찮은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전술한 결과는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의식에 대한 3년간의 변화 양상을 추정한 결과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II-21 다문화청소년 진로의식 변화의 모형 비교

모형	χ^2	df	TLI	CFI	RMSEA
무변화모형	25.513	4	0.974	0.965	0.064
선형변화모형	9.83	1	0.957	0.986	0.083



【그림 II-21】 다문화청소년 진로의식 무변화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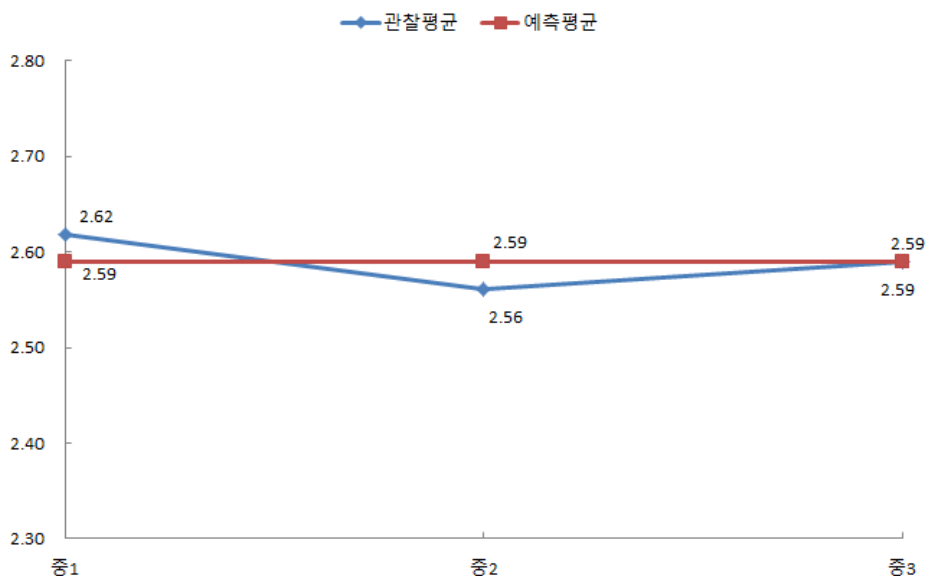
진로의식의 무변화모형을 분석한 결과가 <표 II-22>에 제시되어 있으며, 실제 관측값과 모형으로 추정한 예측값은 [그림 II-22]에 제시되었다. 중학교 1학년 당시 진로의식의 초기치 평균은 2.590이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치였다. 또한 초기치의 분산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드러나 초기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의식 수준에 개인 간의 차이가 존재함을 시사하고 있다.

려하여, 무변화모형을 최종 모형으로 선정하였다.

표 II-22 다문화청소년 진로의식의 무변화모형 분석 결과

	I (초기치)	
	평균	분산
진로의식	2.590***	0.130***

*** $p < 0.001$, ** $p < 0.01$, * $p < 0.05$



【그림 II-22】 다문화청소년 진로의식의 관찰평균과 예측평균

요약

- 사회적응 영역에서 각 요인들의 변화 궤적이 다양하게 나타남.
- 사회적 위축은 이차함수 곡선을 따르며 변화하는데, 초등학교 5학년 당시 순간 증가추세였으나 이후 평균적인 뚜렷한 변화 궤적은 나타나지 않음.
- 비행경험은 선형으로 변화하였으며, 시간에 따라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됨.
- 진로의식은 별다른 변화가 감지되지 않음.

4. 문화적응 및 정체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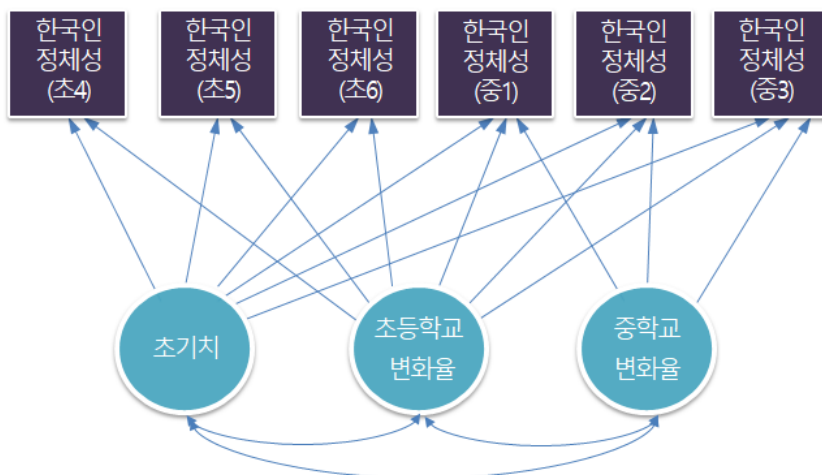
다음으로 문화적응 및 정체성 영역을 살펴보면, 한국인 정체성, 다문화수용성, 이중문화수용태도, 문화적응스트레스 등의 변인들이 여기에 포함된다. 해당 변인들을 중심으로 다문화청소년의 변화 추이를 탐색하였다.

1) 한국인 정체성

2011년 당시 초등학교 4학년이었던 다문화청소년이 2016년 중학교 3학년이 되기까지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고자 모형 비교를 실시하였다. 앞서 수행된 분석들과 마찬가지로 무변화모형, 선형변화모형, 이차변화모형, 분할함수모형을 비교하였으며, 분할함수모형의 경우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경계를 기준시점으로 설정하여 학교급에 따라 독립적인 변화율을 갖는 모형으로 분석하였다. <표 II-23>에 제시된 결과와 같이 카이자승 값과 적합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봤을 때, 6년 간의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변화를 가장 잘 설명해주는 모형은 분할함수모형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분할함수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보면 TLI는 0.998, CFI는 0.998, RMSEA는 0.014로 가장 좋은 적합도를 나타내었다.

표 II-23 다문화청소년 한국인 정체성 변화의 모형 비교

모형	χ^2	df	TLI	CFI	RMSEA
무변화모형	279.641	19	0.874	0.84	0.103
선형변화모형	54.282	16	0.978	0.976	0.043
이차변화모형	20.879	12	0.993	0.995	0.024
분할함수모형	15.048	12	0.998	0.998	0.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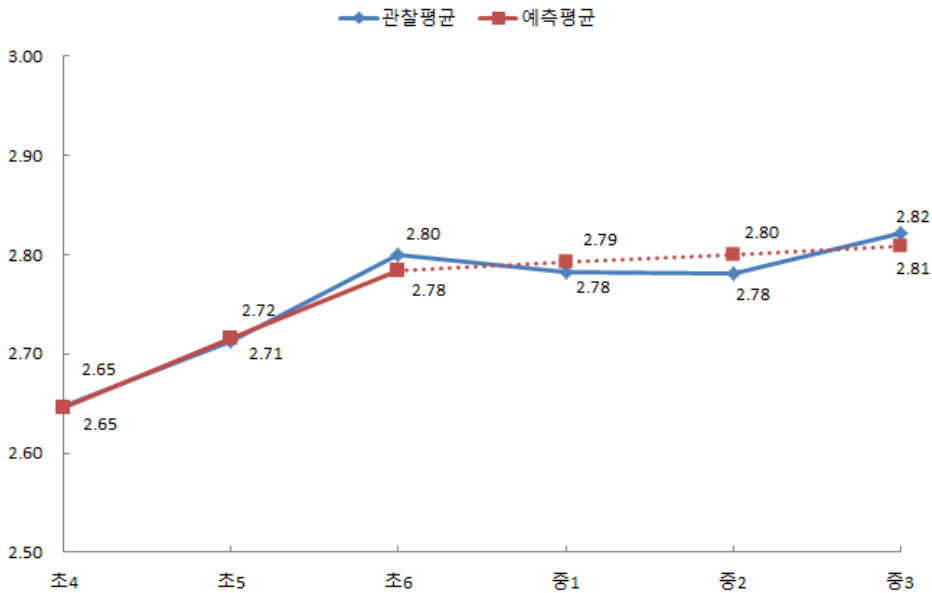
【그림 II-23】 다문화청소년 한국인 정체성 분할함수모형

분할함수모형에 기초하여 한국인 정체성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가 <표 II-24>에 제시되었으며, 실제 관측값과 모형으로 추정한 예측값은 [그림 II-24]에 제시되었다. 초등학교 4학년 당시 학습활동 초기치의 평균은 2.646이었으며, 초등학교 시기의 변화율의 평균은 0.069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중학교 시기의 변화율은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은 아니었다. 유의미한 결과를 중심으로 살펴볼 때,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은 초등학교 시기에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아울러 초기치와 초등학교 시기 변화율의 공분산은 부적(-0.035)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초기 한국인 정체성이 높을수록 그 증가속도는 더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초기치와 초등학교 변화율, 중학교 변화율 모두 분산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이는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변화양상에 개인차가 존재함을 보여준다.

표 II-24 다문화청소년 한국인 정체성 분할함수모형 분석 결과

	I (초기치)		S1 (초등학교 변화율)		S2 (중학교 변화율)		I-S1의 공분산	I-S2의 공분산	S1-S2의 공분산
	평균	분산	평균	분산	평균	분산			
한국인 정체성	2.646***	0.177***	0.069***	0.036***	0.008	0.014***	-0.035**	-0.008	0.000

*** $p < 0.001$, ** $p < 0.01$, * $p < 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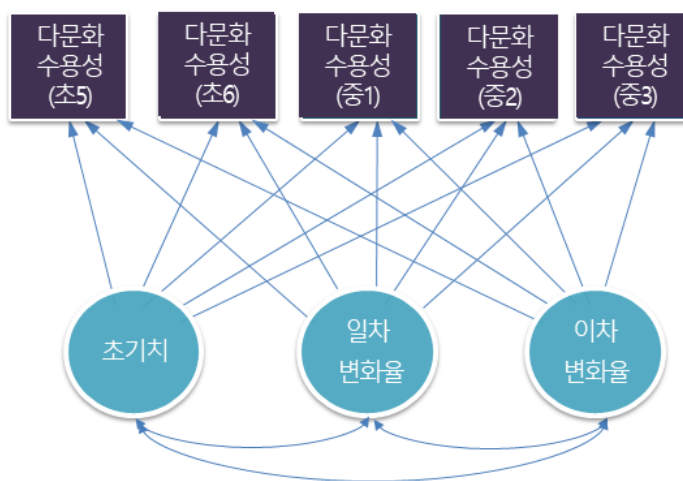
【그림 II-24】 다문화청소년 한국인 정체성의 관찰평균과 예측평균

2) 다문화수용성

다음으로 다문화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추정하였다. 다문화수용성에 대한 조사는 2012년 초등학교 5학년부터 수행되었으며, 이에 따라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무변화모형, 선형변화모형, 이차변화모형, 분할함수모형을 비교한 결과를 <표 II-25>에 제시하였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다문화수용성 변화 양상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모형은 이차함수 곡선으로 변화하는 모형이었다. 이차변화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보면 TLI는 1.003, CFI는 1.000, RMSEA는 0.000로 다른 모형의 적합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나 가장 타당한 모형으로 선정되었다.

표 II-25 다문화청소년 다문화수용성 변화의 모형 비교

모형	χ^2	df	TLI	CFI	RMSEA
무변화모형	333.990	14.000	0.771	0.679	0.134
선형변화모형	66.514	11.000	0.950	0.945	0.062
이차변화모형	4.931	7.000	1.003	1.000	0.000
분할함수모형	31.393	7.000	0.966	0.976	0.052



【그림 II-25】 다문화청소년 다문화수용성 이차변화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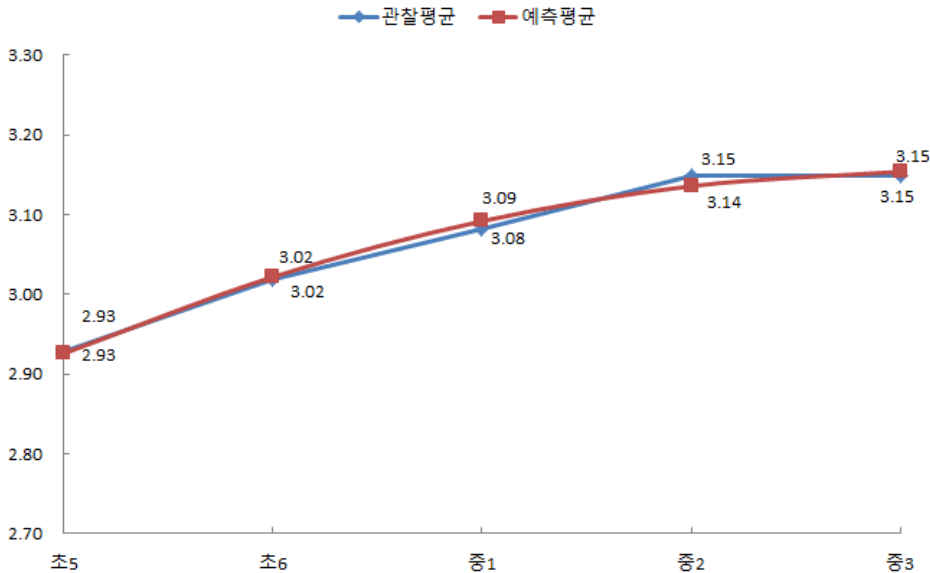
<표 II-26>에는 다문화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에 대한 이차변화모형 추정 결과가 제시되어 있으며, [그림 II-26]에는 실제 관측값과 모형으로 추정한 예측값이 제시되었다. 초등학교 5학년 당시 다문화수용성의 초기치 평균은 2.926이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수준이었다. 또한 다문화수용성의 일차 변화율의 평균은 0.109, 이차 변화율의 평균은 -0.013으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여기에서 일차 변화율은 초등학교 5학년 시기의 순간 변화율로서 이해할 수 있는데, 초기 다문화수용성이 증가추세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차 변화율은 부적으로 나타났으며, 시간이 흐를수록 그 성장세가 둔화되는 역-U자 형태로 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각 시점별 예측값을 도출해보면, (초5) 2.926, (초6) 3.022, (중1) 3.092, (중2) 3.136, (중3) 3.154로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다문화수용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지만, 그 증가폭은 점차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초기치와

일차 변화율, 이차 변화율의 분산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다문화수용성의 변화 양상에서 다문화청소년 개인 간에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II-26 다문화청소년 다문화수용성 변화의 이차변화모형 분석 결과

	I (초기치)		S (일차 변화율)		Q (이차 변화율)		I-S의 공분산	I-Q의 공분산	S-Q의 공분산
	평균	분산	평균	분산	평균	분산			
다문화 수용성	2.926***	0.154***	0.109***	0.089***	-0.013***	0.005***	-0.057***	0.009***	-0.019***

*** $p < 0.001$, ** $p < 0.01$, * $p < 0.05$



【그림 II-26】 다문화청소년 다문화수용성의 관찰평균과 예측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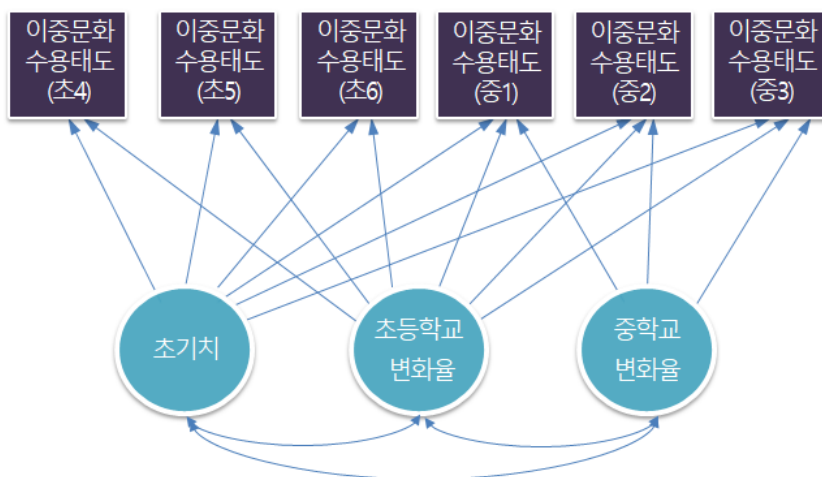
3) 이중문화수용태도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다문화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 변화함수를 추정하기 위한 모형 비교를 실시하였다. 무변화모형, 선형변화모형, 이차변화모형, 분할함수모형을 비교한 결과를 <표 II-27>에 제시하였다. 표에 제시된 바와 같이, 6년 간의 이중문화수용태도 변화 양상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모형은 초등학교 시기와 중학교 시기에 서로 다른 변화 양상을 나타내는 분할함수모형인 것으로 드러났다. 분할함수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보면 TLI는 0.989, CFI는 0.991, RMSEA는 0.029로 다른 모형에 비해 가장 좋은 적합도를 나타내었다.

표 II-27 다문화청소년 이중문화수용태도 변화의 모형 비교

모형	χ^2	df	TLI	CFI	RMSEA
무변화모형	196.744	19	0.906	0.881	0.085
선형변화모형	66.433	16	0.968	0.966	0.049
이차변화모형	32.594	12	0.983	0.986	0.036
분할함수모형	24.894	12	0.989	0.991	0.029



【그림 II-27】 다문화청소년 이중문화수용태도 분할함수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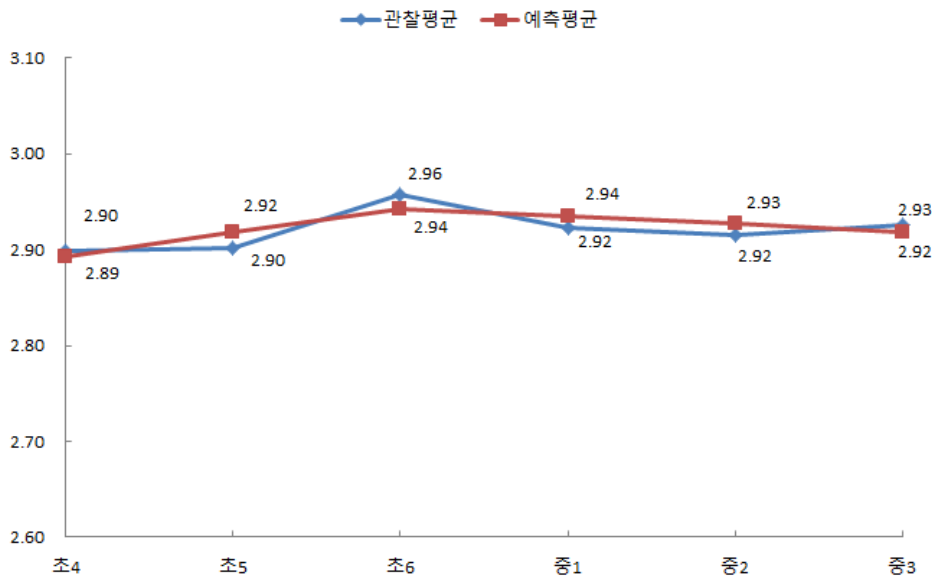
분할함수모형에 기초하여 다문화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 변화를 분석한 결과를 <표 II-28>에 제시하였으며, 실제 관측값과 모형으로 예측된 값을 [그림 II-28]에 도식화하였다. 표에 제시된 바와 같이 초기치인 초등학교 4학년 당시 이중문화수용태도의 평균은 2.893이었으며, 초등학교 시기 변화율은 0.025, 중학교 시기 변화율은 -0.008으로 확인되었고, 이는 모두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수준이었다. 전술한 결과는 다문화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가 초등학교 시기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하는데, 중학교에 진학 이후에는 반대로 감소하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이중문화수용태도의 초기치와 초등학교 변화율, 중학교 변화율의 분산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다문화청소년 집단 내에 개인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초기치와 초등학교 시기의 변화율 간 공분산(-0.022)은 부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초기 이중문화수용태도 수준이 높았던 다문화청소년일수록 초등학교 시기에 더디게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II-28 다문화청소년 이중문화수용태도 분할함수모형 분석 결과

	I (초기치)		S1 (초등학교 변화율)		S2 (중학교 변화율)		I-S1의 공분산	I-S2의 공분산	S1-S2의 공분산
	평균	분산	평균	분산	평균	분산			
이중문화 수용태도	2.893***	0.084***	0.025***	0.017***	-0.008***	0.006***	-0.022***	-0.003	-0.001

*** $p < 0.001$, ** $p < 0.01$, * $p < 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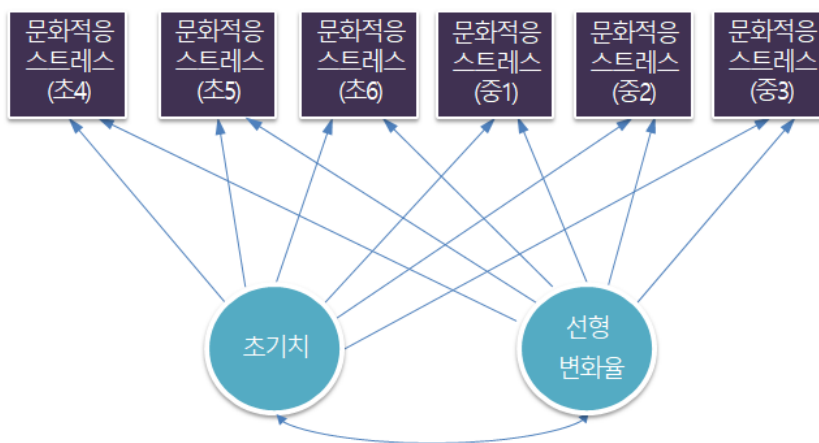
【그림 II-28】 다문화청소년 이중문화수용태도의 관찰평균과 예측평균

4) 문화적응스트레스

다음으로 다문화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는 어떻게 변화하는지 비교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분석결과를 <표 II-29>에 제시하였다. 2011년 초등학교 4학년부터 2016년 중학교 3학년까지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문화적응스트레스의 변화양상을 분석한 결과, 선형으로 변화하는 모형이 가장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문화적응스트레스에 대한 선형변화모형의 적합도는 TLI 0.970, CFI 0.968, RMSEA 0.041로 전체적인 적합도를 고려해보았을 때, 다른 모형에 비해 적합도가 더 좋은 것으로 판단되었다⁷⁾.

표 II-29 다문화청소년 문화적응스트레스 변화의 모형 비교

모형	χ^2	df	TLI	CFI	RMSEA
무변화모형	115.602	19	0.929	0.911	0.063
선형변화모형	51.022	16	0.970	0.968	0.041
이차변화모형	39.149	12	0.969	0.975	0.042
분할함수모형	42.104	12	0.965	0.972	0.044



【그림 II-29】 다문화청소년 문화적응스트레스 선형변화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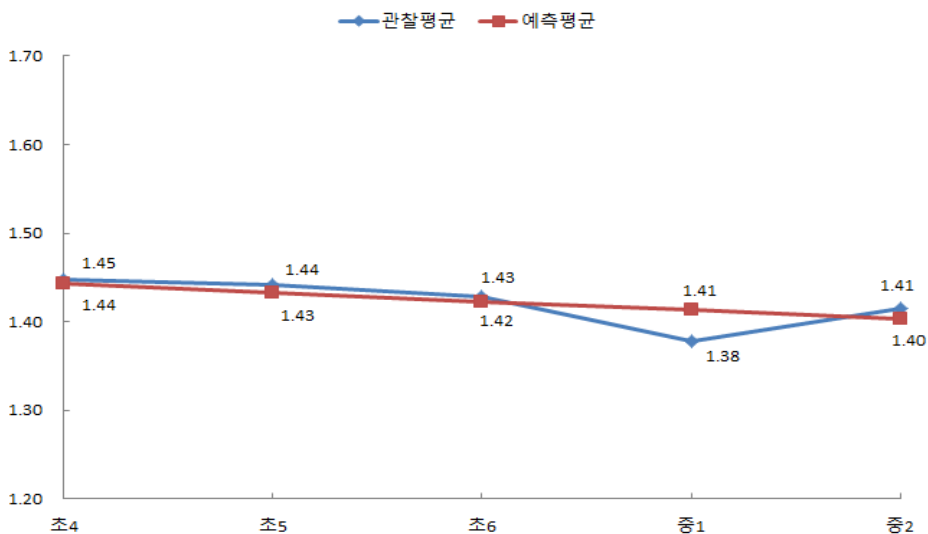
7) 문화적응스트레스 선형변화모형의 적합도를 분석한 결과 CFI 값은 0.968로 이차변화모형(0.975)이나 분할함수모형(0.972)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선행연구(Cheng and Rensvold, 2002)에 따르면 모형 비교에서 CFI가 .01보다 작은 경우 두 모형의 적합도가 대등하다고 볼 수 있으며, TLI와 RMSEA 등 다른 적합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선형변화모형을 최종 모형으로 선정하였다.

<표 II-30>에는 문화적응스트레스의 선형변화모형 추정 결과가 제시되어 있으며, [그림 II-30]은 실제 관측값과 모형에 의한 예측값을 나타낸다. 초등학교 4학년 당시 문화적응스트레스 초기치 평균은 1.443, 선형 변화율의 평균은 -0.010으로 나타났으며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다문화청소년의 문화적응과정에서 스트레스 정도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초기치와 선형 변화율의 분산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문화적응스트레스의 초기값과 변화에서 개인 간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문화적응스트레스의 초기치와 선형 변화율의 공분산은 부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초기에 문화적응스트레스 정도가 높은 청소년일수록 스트레스의 감소 속도가 더 빠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II-30 다문화청소년 문화적응스트레스 변화의 선형변화모형 분석 결과

	I (초기치)		S (선형 변화율)		I-S의 공분산
	평균	분산	평균	분산	
문화적응 스트레스	1.443***	0.048***	-0.010***	0.001***	-0.005***

*** $p < 0.001$, ** $p < 0.01$, * $p < 0.05$



【그림 II-30】 다문화청소년 문화적응스트레스의 관찰평균과 예측평균

요약

- 문화적응 및 정체성 영역에서 각 하위 요인들의 다양한 변화 궤적이 도출됨.
- 한국인 정체성과 초등학교 시기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문화수용태도는 초등학교 시기에 증가하였으나, 중학교에 진학 후 감소하는 분할함수모형의 형태로 변화함.
- 다문화수용성은 이차함수의 형태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높아지다가 그 상승세가 점차 둔화하는 경향이 나타남.
- 문화적응스트레스는 선형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됨.

5. 신체발달 및 건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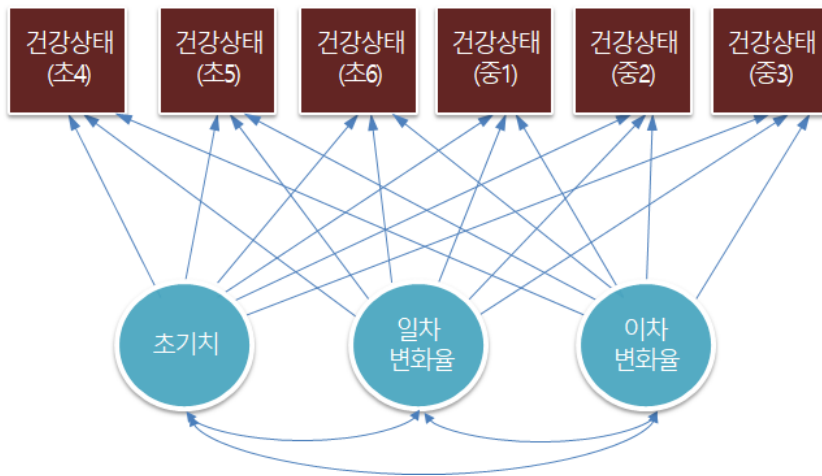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다문화청소년의 신체발달 및 건강과 관련해서는 건강상태, 신체만족도 변인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모형 비교를 통해 각 변인들의 변화 궤적을 추정하였다.

1) 건강상태

2011년 초등학교 4학년부터 2016년 중학교 3학년에 이르기까지 다문화청소년이 생각하는 자신의 건강상태 수준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추정하고자 모형 비교를 실시하였다. 무변화모형, 선형변화모형, 이차변화모형, 분할함수모형을 비교하였으며, 분할함수모형의 경우 학교급에 따라 독립적인 변화율을 갖도록 기준시점을 설정하였다. <표 II-11>에 제시된 결과와 같이 카이자승 값과 적합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봤을 때, 다문화청소년의 건강상태 변화 양상을 설명해주는 모형으로서 이차함수 곡선으로 변화하는 모형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건강상태에 대한 이차변화모형의 적합도는 TLI 0.953, CFI는 0.963, RMSEA 0.048로 다른 모형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좋은 적합도를 나타내었다.

표 II-31 다문화청소년 건강상태 변화의 모형 비교

모형	χ^2	df	TLI	CFI	RMSEA
무변화모형	132.67	19	0.907	0.883	0.068
선형변화모형	73.068	16	0.945	0.941	0.052
이차변화모형	48.332	12	0.953	0.963	0.048
분할함수모형	55.463	12	0.944	0.955	0.053



【그림 II-31】다문화청소년 건강상태 이차변화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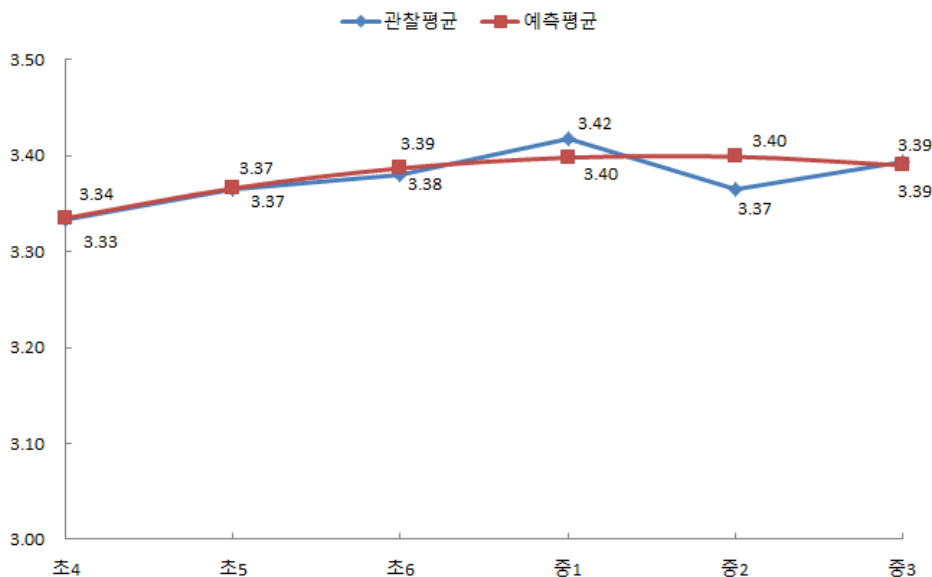
<표 II-32>에는 이차변화모형에 기초한 건강상태 변화의 추정 결과가 제시되어 있으며, [그림 II-32]에는 실제 관측값과 모형에 의한 추정값이 제시되어 있다. 초등학교 4학년 당시 다문화청소년이 생각하는 자신의 건강상태 평균은 3.335이었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수준이었다. 건강상태의 일차 변화율의 평균은 0.036, 이차 변화율의 평균은 -0.005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일차 변화율은 초등학교 4학년 당시의 순간 변화율로서 다문화청소년의 건강상태가 증가추세이었음을 의미한다. 이차 변화율은 부정적으로 나타났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이러한 증가추세가 둔화되는 역-U자 형태로 변화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해석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분석결과를 토대로 각 시점별로 예측값을 계산해보면, (초4) 3.335, (초5) 3.366, (초6) 3.387, (중1) 3.398, (중2) 3.399, (중3) 3.390으로 확인되었다. 즉, 다문화청소년의 주관적 건강상태는

초등학교 4학년 이후 증가하다가 그 증가속도가 점차 감소하여 중학교 3학년에는 수치가 다소 낮아지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표 II-32 다문화청소년 건강상태 변화의 이차변화모형 분석 결과

	I (초기치)		S (일차 변화율)		Q (이차 변화율)		I-S의 공분산	I-Q의 공분산	S-Q의 공분산
	평균	분산	평균	분산	평균	분산			
건강 상태	3.335***	0.091***	0.036**	0.023	-0.005*	0.001	-0.001	-0.001	-0.003

*** $p < 0.001$, ** $p < 0.01$, * $p < 0.05$



【그림 II-32】 다문화청소년 건강상태의 관찰평균과 예측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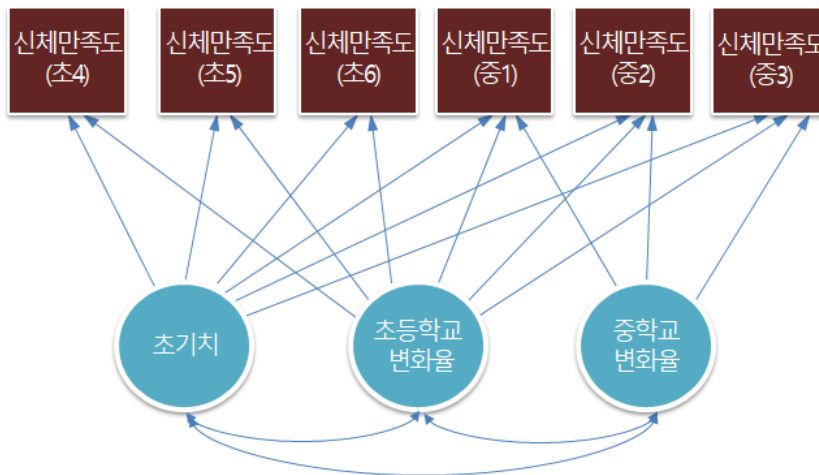
2) 신체만족도

다음으로 다문화청소년의 신체만족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 양상을 분석하였다. 마찬가지로 무변화모형, 선형변화모형, 이차변화모형, 분할함수모형을 비교 분석하였으며 분석결과는 <표 II-33>에 제시하였다. 2011년 초등학교 4학년부터 2016년 중학교 3학년까지 6년 간의 신체만족도

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가장 적절한 모형으로 학교급에 따라 상이한 궤적을 지니는 분할함수모형이 선정되었다. 분할함수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보면 TLI 0.982, CFI 0.986, RMSEA 0.046으로 다른 모형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더 좋은 적합도를 나타내었다.

표 II-33 다문화청소년 신체만족도 변화의 모형 비교

모형	χ^2	df	TLI	CFI	RMSEA
무변화모형	383.436	19	0.873	0.839	0.122
선형변화모형	98.897	16	0.966	0.963	0.063
이차변화모형	46.221	12	0.981	0.985	0.047
분할함수모형	44.279	12	0.982	0.986	0.046



【그림 II-33】 다문화청소년 신체만족도 분할함수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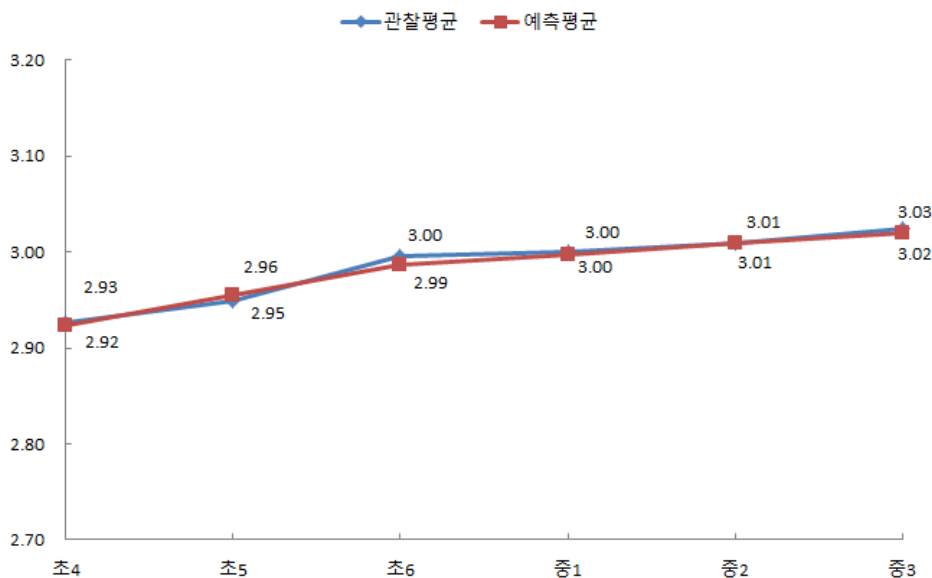
<표 II-34>에는 신체만족도에 대한 분할함수모형 추정 결과가 제시되어 있으며, [그림 II-34]는 실제 관측값과 모형으로 추정한 예측값이 제시되었다. 초등학교 4학년 당시 다문화청소년의 신체만족도 초기치는 평균값은 2.923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또한 초등학교 시기의 변화율의 평균값은 0.034, 중학교 시기의 변화율의 평균값은 0.011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처럼 다문화청소년의 초등학교 시기와 중학교 시기 모두 신체에 대한 만족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만족도가 증가하는 경향이 초등학교 시기에

좀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아울러 신체만족도의 초기치와 두 변화율 모두 분산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변화 양상에서 다문화청소년 집단 내에 개인차가 존재함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초기치와 초등학교 시기 변화율의 공분산(-0.021), 초기치와 중학교 시기 변화율 간의 공분산(-0.008)은 부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초기 신체만족도가 높은 청소년일수록 신체만족도가 더디게 증가하는 것으로 의미한다.

표 II-34 다문화청소년 신체만족도 변화의 분할함수모형 분석 결과

	I (초기치)		S1 (초등학교 변화율)		S2 (중학교 변화율)		I-S1의 공분산	I-S2의 공분산	S1-S2의 공분산
	평균	분산	평균	분산	평균	분산			
신체 만족도	2.923***	0.132***	0.034***	0.022***	0.011*	0.014***	-0.021***	-0.008***	-0.003

*** $p < 0.001$, ** $p < 0.01$, * $p < 0.05$



[그림 II-34] 다문화청소년 신체만족도의 관찰평균과 예측평균

요약

- 신체발달 및 건강 영역의 발달 요인마다 변화 궤적이 다양하게 나타남.
- 다문화청소년의 주관적 건강상태는 이차변화모형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높아지다가 그 상승세가 점차 둔화하는 경향이 확인됨.
- 신체만족도는 분할함수모형으로서 초등학교 시기와 중학교 시기에 모두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초등학교 시기에 이러한 증가 경향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남.

6. 요약 및 소결

지금까지 기초 분석으로서 다문화청소년의 전반적인 발달 영역에 대한 변화 궤적을 살펴보았다. 2011년 초등학교 4학년부터 2016년 중학교 3학년까지 다문화청소년의 학업 및 학교생활적응, 심리적응, 사회적응, 문화적응 및 정체성, 신체발달 및 건강 영역에서 주요 요인들의 변화 양상을 분석하였으며,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다문화청소년의 발달 변화를 살펴본 결과, 각각의 발달 요인에 따라 다양한 변화 궤적을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II-35>에 제시된 바와 같이 무변화모형, 선형변화모형, 이차변화모형, 분할함수모형 등 각각의 요인들의 변화 추이가 상이한 것을 볼 수 있다. 전술한 결과는 다문화청소년의 발달에 대한 일괄적인 해석은 지양할 필요가 있으며, 각 발달 영역 및 요인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교우관계, 우울, 사회적 위축, 다문화수용성, 건강상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차함수 곡선의 형태로 변화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학습활동, 교사관계, 성적에 대한 만족도,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 한국인 정체성, 이중문화수용태도, 신체만족도는 초등학교 시기와 중학교 시기에 변화 궤적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학교성적, 비행경험, 문화적응스트레스 변인은 선형으로 변화하였으며, 진로인식의 경우 별다른 변화가 감지되지 않았다. 이처럼 다문화청소년의 상당수의 발달 요인들은 이차함수 곡선으로 변화하거나 학교급에 따라 서로

다른 궤적을 갖는 모형이 타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문화청소년의 발달 과정을 6년 동안 추적하여 분석한 결과로서 대다수의 발달 요인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동시에, 이러한 변화가 단순히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형태를 나타내기보다는 좀 더 복잡다단한 양상을 띠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표 II-35 다문화청소년의 발달 모형 요약

영역 모형	학업 및 학교생활적응	심리적응	사회적응	문화적응 및 정체성	신체발달 및 건강
무변화모형			진로의식		
선형변화모형	학교성적		비행경험	문화적응스트레스	
이차변화모형	교우관계	우울	사회적위축	다문화수용성	건강상태
분할함수모형	학습활동 교사관계 성적에 대한 만족도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		한국인 정체성 이중문화수용태도	신체만족도

<그림 II-35>은 모형분석을 통해 각 요인들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던 변화를 압축적으로 요약한 것이다. 먼저 학업과 관련한 요인들의 경우 공통적으로 부적인 변화 양상이 발견되었다. 학교성적수준과 성적에 대한 만족도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학교 시기에 학습활동 요인도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다문화청소년이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학업과 관련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학업적인 측면에서 이러한 다문화청소년의 부정적인 변화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학교생활과 관련해서는 교우관계 요인의 경우 정적인 변화 양상을 보였는데, 단순 증가가 아닌 이차변화모형으로서 그 증가속도는 감소하고 있어 향후 추적조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다음으로 심리적응 영역에서는 학교급에 따라 다문화청소년의 변화 양상에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초등학교 시기에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 요인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중학교에 진학 이후에는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아동기를 벗어나 사춘기에 들어서면서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적인 어려움이 증가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청소년기의 심리·정서적 발달의 중요성을 고려해볼 때,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적인 안정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이 필요한 대목이다.

이어서 사회적응 영역에서는 다문화청소년의 비행경험 변화에서 뚜렷한 경향성이 발견되었다. 구체적으로 다문화청소년의 비행경험이 시간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비행경험의 증가 양상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다문화청소년이 한국사회의 건강한 성인으로서 성장해가는 데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다문화청소년의 비행 가담 가능성을 낮추고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비행 예방교육 및 적절한 대응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또한 문화적응 및 정체성 영역을 살펴보면 발달 변인별로 상이한 변화를 나타내는데, 초등학교 시기에 한국인 정체성은 증가하였으며, 이중문화수용태도는 초등학교 시기에 증가하다가 중학교 시기에는 감소하는 양상이 확인되었다. 문화적응스트레스의 경우 부적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나 다문화청소년이 문화적응 과정에서 받는 스트레스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다문화수용성의 경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내었는데, 그 증가 속도는 점차 감소하는 모습이다.

마지막으로 다문화청소년의 신체발달 및 건강 영역에서는 긍정적인 변화를 포착할 수 있었는데, 신체만족도는 초등학교 시기와 중학교 시기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문화청소년의 주관적 건강상태도 시간에 지남에 따라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그 증가폭은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후 변화 양상을 계속 추적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학업 및 학교생활 적응	심리적응	사회적응	문화적응 및 정체성	신체발달 및 건 강
↑ 정적 변화	교우관계(↑)	자존중감(↓) 삶의만족도(↓)	비행경험	한국인정체성(↓) 다문화수용성(↓) 이중문화수용태도(↓)	건강상태(↑) 신체만족도
↓ 부적 변화	학습활동(↓) 학교성적 성적에대한만족도	자존중감(↓) 삶의만족도(↓)		이중문화수용태도(↓) 문화적응스트레스	

【그림 II-35】 다문화청소년의 발달 변화 요약

제 III 장

다문화청소년과 일반청소년 간 발달 추이 비교 분석

1. 학습활동
2. 교사관계
3. 교우관계
4. 삶의 만족도
5. 다문화수용성
6. 건강상태
7. 요약 및 소결

제 III 장

다문화청소년과 일반청소년 간 발달 차이 비교 분석

여기에서는 다문화청소년의 발달 추이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다문화청소년과 일반청소년 간의 비교 분석을 실시하고자 하였다. 일반청소년 자료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수행된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를 활용하였으며, 제 II장에서 분석한 주요 변인 가운데 다문화청소년과 일반청소년 간의 비교가 가능한 문항을 중심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 학습활동, 교사관계, 교우관계, 삶의 만족도, 다문화수용성, 건강상태 등 6개 발달 요인에 대한 체계적인 다집단분석을 실시함으로써 다문화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변화 양상에 차이가 존재하는지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1. 학습활동

1) 일반청소년의 학습활동 변화

학습활동 변화에 대한 다문화청소년과 일반청소년 간 비교 분석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다문화청소년과 마찬가지로 먼저 일반청소년의 학습활동 변화 궤적을 추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2010년 조사 당시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한 일반청소년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2015년 중학교 3학년까지 해당 측정 문항에 충실히 응답한 1,827명을 최종 비교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다문화청소년과 마찬가지로 일반청소년의 학습활동에 대하여 무변화모형, 선형변화모형, 이차변화모형, 분할함수모형을 비교하였으며, 분석 결과를 <표 III-1>에 제시하였다. 표에 제시된 바와 같이 카이자승 값과 적합도를 살펴보면, 일반청소년의 학습활동 변화 양상을 설명하는 데에 가장 타당한 모형은 이차함수 곡선의 형태로 변화하는 모형이었다. 이차변화모형

의 적합도는 TLI 0.987, CFI 0.989, RMSEA는 0.040으로 다른 모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III-1 일반청소년의 학습활동 변화 모형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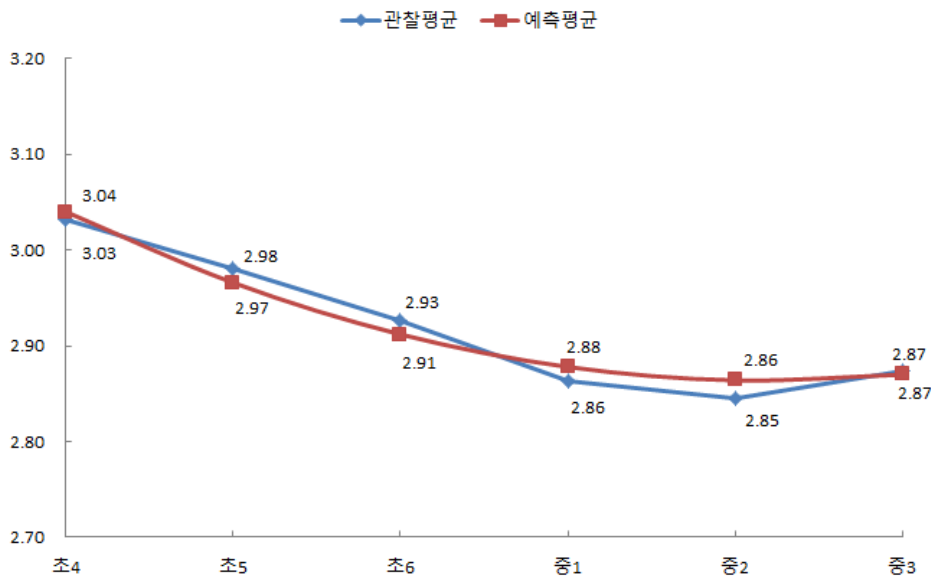
모형	χ^2	df	TLI	CFI	RMSEA
무변화모형	718,284	19	0.834	0.79	0.142
선형변화모형	142,454	16	0.964	0.962	0.066
이차변화모형	47,523	12	0.987	0.989	0.040
분할함수모형	70,207	12	0.978	0.983	0.052

이차변화모형에 기초한 일반청소년의 학습활동 변화 분석결과를 <표 III-2>에 제시하였으며, 실제 관측값과 모형에 의한 예측값은 【그림 III-1】에 제시하였다. 다문화청소년의 발달 변화 요약초등학교 4학년 당시 학습활동 초기치의 평균은 3.040이었으며, 일차 변화율의 평균은 -0.084, 이차 변화율의 평균은 0.010이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 일차 변화율은 초기 순간변화율로서 초등학교 4학년 당시 일반청소년의 학습활동 수준이 감소추세였음을 의미한다. 한편, 이차 변화율은 정적으로 나타나 시간이 흐를수록 이러한 감소추세가 둔화되는 U자 형태의 변화 궤적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실제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각 시점별 예측값을 도출해보면, (초4) 3.040, (초5) 2.966, (초6) 2.912, (중1) 2.878, (중2) 2.864, (중3) 2.870으로 초등학교 4학년 이후 감소하다가 그 감소추세가 둔화되어 중학교 3학년에는 오히려 학습활동 수준이 증가한 모습을 보인다. 한편 초기치, 일차 변화율, 이차 변화율의 분산은 모두 유의하여 일반청소년 집단 내에 개인 간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아울러 초기치와 일차 변화율의 공분산(-0.029)과 일차 변화율과 이차 변화율의 공분산(-0.005)은 부적인 관계로, 초기치와 이차 변화율의 공분산(0.003)은 정적인 관계로 확인되었다. 전술한 결과를 직관적으로 이해하기에 다소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간략히 논의하면 초기 학습활동 수준이 높은 청소년의 경우 순간 감소속도가 더 빠른 경향이 있으며, 이후의 궤적도 더 가파른 U자 형태로 변화할 수도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표 III-2 일반청소년 학습활동 변화의 이차변화모형 분석 결과

	I (초기치)		S (일차 변화율)		Q (이차 변화율)		I-S의 공분산	I-Q의 공분산	S-Q의 공분산
	평균	분산	평균	분산	평균	분산			
학습 활동	3.040***	0.152***	-0.084***	0.034***	0.010***	0.001***	-0.029***	0.003**	-0.005***

*** $p < 0.001$, ** $p < 0.01$, * $p < 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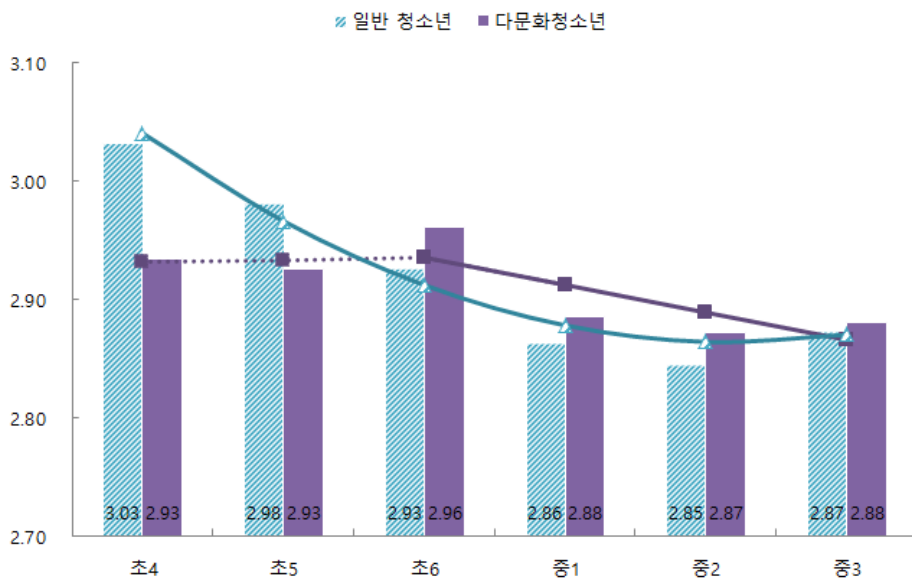
【그림 III-1】 일반청소년 학습활동의 관찰평균과 예측평균

2) 다문화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학습활동 변화 비교

다집단분석에서 집단 간의 비교를 위해서는 형태동일성이 우선적으로 성립되어야 한다(김주환, 김민규, 홍세희, 2009). 즉, 발달 변화를 설명하는 모형이 다문화청소년과 일반청소년 집단에서 동일한지 평가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형태동일성 검증을 위하여 각 집단에 대해 모형 비교를 실시하였고, 학습활동 변화에 대한 가장 적합한 모형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 다문화청소년의 학습활동 변화 모형은 분할함수모형으로서 초등학교 시기와 중학교 시기에 서로 다른 선형변

화율을 갖는 모형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일반청소년의 학습활동 변화 추이를 설명하는 데에 적합한 모형은 이차변화모형으로 확인되었다. 이처럼 다문화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학습활동 변화 궤적을 설명하는 모형이 서로 상이한 것으로 드러나 형태동일성을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따라 다집단분석으로 추가적인 집단 간 계수 비교 분석은 실시하지 않았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다문화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학습활동 변화 양상은 그 궤적의 형태 자체가 서로 상이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구체적으로 다문화청소년의 경우 학습활동의 변화율이 학교급에 따라 차이가 존재하였으며, 중학교 진학 이후 감소하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반면에 일반청소년의 경우 학습활동 수준이 점차 감소하다가 감소세가 둔화되는 U자 형태의 궤적을 그리며 중학교 3학년에는 오히려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따라서 조사시점에 따라 학습활동의 수준이 높은 집단이 다를 수 있으며, 특정 집단의 우위를 논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았다. 이러한 집단 간 학습활동 변화 차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그림 III-1]에 다문화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학습활동 변화가 함께 제시하였다. 각 집단에 대한 학습활동의 평균값을 제시하였으며, 실선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 궤적을 의미한다.



【그림 III-2】 다문화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학습활동 변화 비교

2. 교사관계

1) 일반청소년의 교사관계 변화

교사관계에 대한 다문화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변화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먼저 2010년 초등학교 4학년때부터 2015년 중학교 3학년까지 조사에 참여한 일반청소년 1,827명을 대상으로 교사관계 변화 추이를 살펴보았다. 앞서 학습활동 요인에 대한 분석과 마찬가지로 일반청소년의 교사관계 변화 양상에 적합한 모형을 선정하기 위해 무변화모형, 선형변화모형, 이차변화모형, 분할함수모형을 비교하였고, 분석결과를 <표 III-3>에 제시하였다. 이차변화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보면 TLI 0.946, CFI 0.957, RMSEA 0.049로 다른 모형의 적합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더 좋은 적합도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라 일반청소년의 교사관계 변화를 설명하는 모형으로서 이차함수로 변화하는 모형이 가장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표 III-3 일반청소년의 교사관계 변화 모형 비교

모형	χ^2	df	TLI	CFI	RMSEA
무변화모형	393.037	19	0.761	0.698	0.104
선형변화모형	193.918	16	0.865	0.856	0.078
이차변화모형	65.529	12	0.946	0.957	0.049
분할함수모형	105.28	23	0.906	0.925	0.0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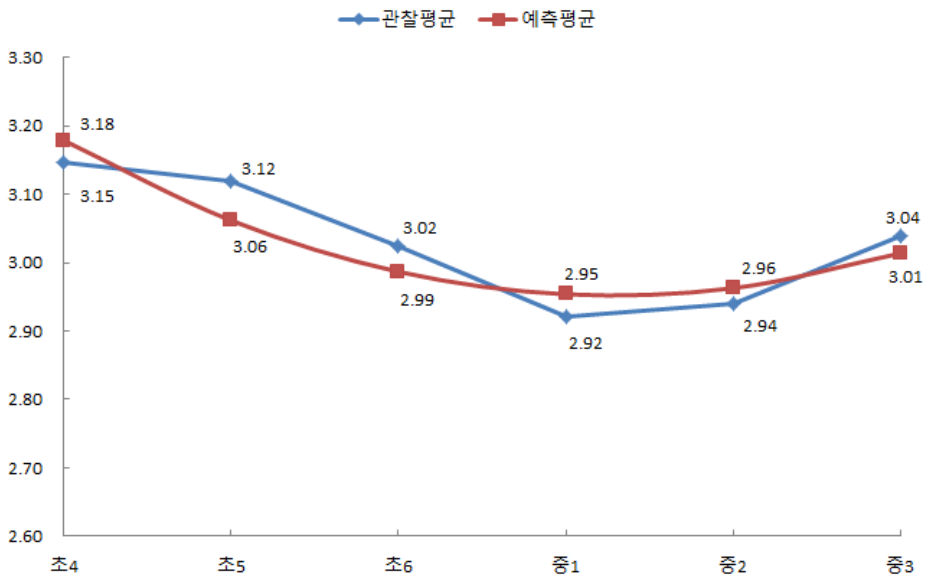
이차변화모형에 기초하여 일반청소년의 교사관계 변화를 분석한 결과가 <표 III-4>에 제시되어 있으며, 연도별 실제 관측값과 모형에 의한 예측값이 [그림 III-3]에 제시되었다. 초등학교 4학년 당시 교사관계 초기치 평균은 3.179이었으며, 일차 변화율의 평균은 -0.138, 이차 변화율의 평균은 0.021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차 변화율은 초등학교 4학년 시기의 순간 변화율로서 초기 감소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차 변화율은 정적으로 나타나 일반청소년의 학습활동 변화 궤적과 마찬가지로 U자 형태의 변화 궤적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각 시점별 예측값을 도출해보면, (초4) 3.179, (초5) 3.062, (초6) 2.987, (중1) 2.954, (중2) 2.963, (중3) 3.014로 초등학교 4학년 이후 감소하다가 그 추세가 둔화되어 중학교 2학년부터

오히려 증가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초기치, 일차 변화율, 이차 변화율의 분산은 모두 유의하여 이러한 변화 양상에서 일반청소년 집단 내에 개인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초기치와 일차 변화율의 공분산(-0.043)은, 일차 변화율과 이차 변화율의 공분산(-0.007)은 부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초기치와 이차 변화율의 공분산(0.005)은 정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기 교사와의 관계가 좋은 일반청소년의 경우 순간 감소세가 더 빠른 경향이 있으며, 이후에는 더 가파른 U자 형태의 궤적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표 III-4 일반청소년 교사관계 변화의 이차변화모형 분석 결과

	I (초기치)		S (일차 변화율)		Q (이차 변화율)		I-S의 공분산	I-Q의 공분산	S-Q의 공분산
	평균	분산	평균	분산	평균	분산			
교사 관계	3.179***	0.154***	-0.138***	0.047***	0.021***	0.001***	-0.043***	0.005*	-0.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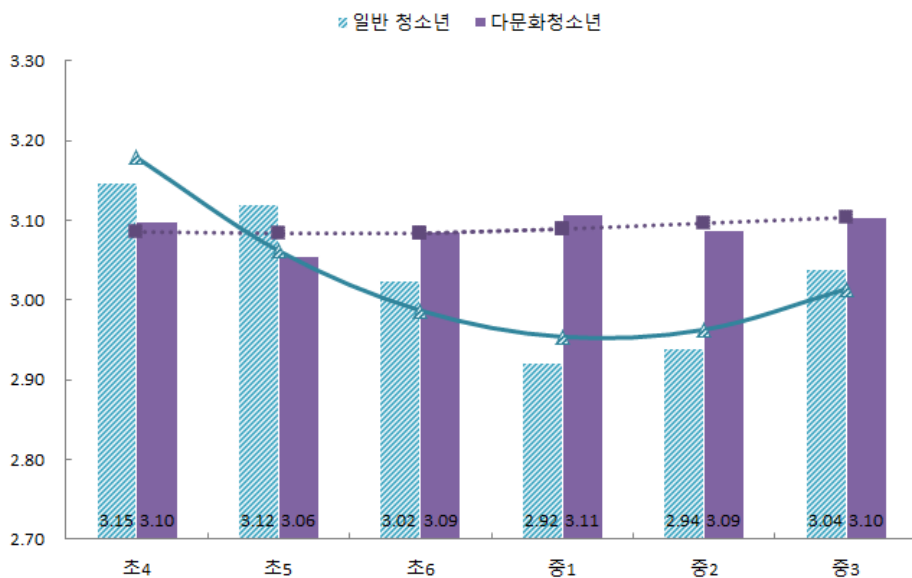
*** $p < 0.001$, ** $p < 0.01$, * $p < 0.05$



【그림 III-3】 일반청소년 교사관계의 관찰평균과 예측평균

2) 다문화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교사관계 변화 비교

다문화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교사관계 변화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각 집단의 발달 모형이 형태적으로 동일해야 한다. 앞서 다문화청소년의 교사관계 변화 모형은 분할함수모형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일반청소년의 교사관계 변화 모형은 이차변화모형으로 판명되었다. 이에 따라 다문화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교사관계 변화 추이가 서로 다른 모형을 갖는 것으로 드러나, 형태동일성이 기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하여 다문화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교사관계 변화에 대한 추가적인 모형 비교는 실시할 수 없었다. 전술한 다문화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교사관계 변화 양상을 [그림 III-4]에 제시하였다. 그림에는 각 집단에 대한 교사관계 평균값이 제시되어 있으며, 실선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 궤적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III-4] 다문화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교사관계 변화 비교

3. 교우관계

1) 일반청소년의 교우관계 변화

다음으로 다문화청소년과 일반청소년 간 교우관계의 변화를 비교하였다. 먼저, 일반청소년의 변화 궤적을 추정하기 위하여 2010년 초등학교 3학년부터 2015년 중학교 3학년까지 해당 측정 문항에 충실히 응답한 1,827명을 대상으로 모형 비교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III-5>에 제시된 바와 같이 무변화모형, 선형변화모형, 이차변화모형, 분할함수모형을 비교한 결과, 일반청소년의 교우관계 변화는 이차함수 곡선으로 변화하는 모형이 가장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교우관계에 대한 이차변화모형의 적합도는 TLI 0.985, CFI 0.988, RMSEA 0.036으로 다른 모형에 비해 적합도가 더 좋은 것으로 판명되어 최종 모형으로 선정되었다.

표 III-5 일반청소년의 교우관계 변화 모형 비교

모형	χ^2	df	TLI	CFI	RMSEA
무변화모형	470.467	19	0.849	0.809	0.114
선형변화모형	110.288	16	0.963	0.96	0.057
이차변화모형	39.812	12	0.985	0.988	0.036
분할함수모형	41.716	12	0.984	0.987	0.0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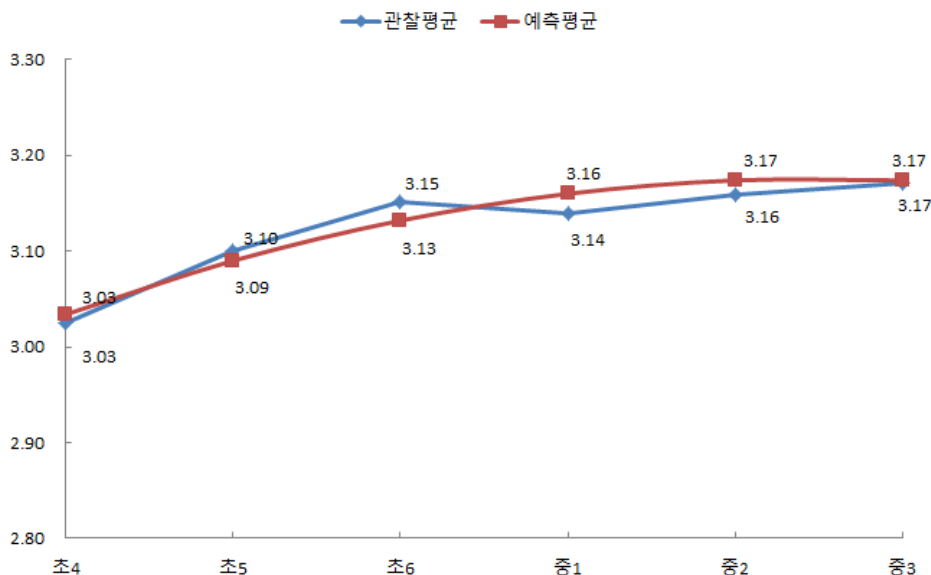
<표 III-6>에는 일반청소년의 교우관계에 대한 이차변화모형 추정값이 제시되어 있으며, [그림 III-5]에는 연도별 실제 관측값과 모형에 의한 예측값이 제시되었다. 초등학교 4학년 당시 일반청소년의 교우관계 초기치 평균은 3.034이었으며, 일차 변화율 평균은 0.063, 이차 변화율의 평균은 -0.007이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수준이었다. 먼저 일차 변화율은 초등학교 4학년 당시 순간변화율로서 교우관계가 초기 증가추세였음을 나타낸다. 이차 변화율은 부적으로 유의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증가폭이 감소하는 역-U자 형태의 변화 궤적을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해를 돕기 위해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각 시점별 예측값을 도출해보면, (초4) 3.034, (초5) 3.090, (초6) 3.132, (중1) 3.160, (중2) 3.174, (중3) 3.174로 초등학교 4학년 이후 증가하다가 증가 속도가 점차 감소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초기치, 일차 변화율,

이차 변화율의 분산은 모두 유의하였으며, 이는 교우관계의 변화 과정에서 일반청소년 집단 내에 개인 간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아울러 초기치와 일차 변화율의 공분산(-0.046), 일차 변화율과 이차 변화율의 공분산(-0.006)은 부적으로 나타났으며, 초기치와 이차 변화율의 공분산(0.005)은 정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술한 결과는 초기 교우관계가 좋은 청소년의 경우 순간 증가속도는 더딘 경향이 있으며, 완만한 역-U자 형태로 변화할 경향성이 있음을 나타낸다.

표 III-6 일반청소년 교우관계 변화의 이차변화모형 분석 결과

	I (초기치)		S (일차 변화율)		Q (이차 변화율)		I-S의 공분산	I-Q의 공분산	S-Q의 공분산
	평균	분산	평균	분산	평균	분산			
교우 관계	3.034***	0.173***	0.063***	0.037***	-0.007***	0.001***	-0.046***	0.005**	-0.006***

*** $p < 0.001$, ** $p < 0.01$, * $p < 0.05$



【그림 III-5】 일반청소년 교우관계의 관찰평균과 예측평균

2) 다문화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교우관계 변화 비교

다문화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교우관계 변화에 대한 다집단분석을 수행하였다. 다집단 잠재성장모형의 절차에 따라 먼저 두 집단에 동일 모형이 적합한지 형태동일성을 확인하였다. 앞서 다문화청소년의 교우관계 변화 양상은 이차변화모형이 가장 타당한 것으로 판명되었으며, 마찬가지로 일반청소년의 교우관계 변화 양상도 이차변화모형이 적절한 것으로 드러났다. 즉, 동일한 모형(이차변화모형)이 다문화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교우관계 변화 양상을 설명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형태동일성이 충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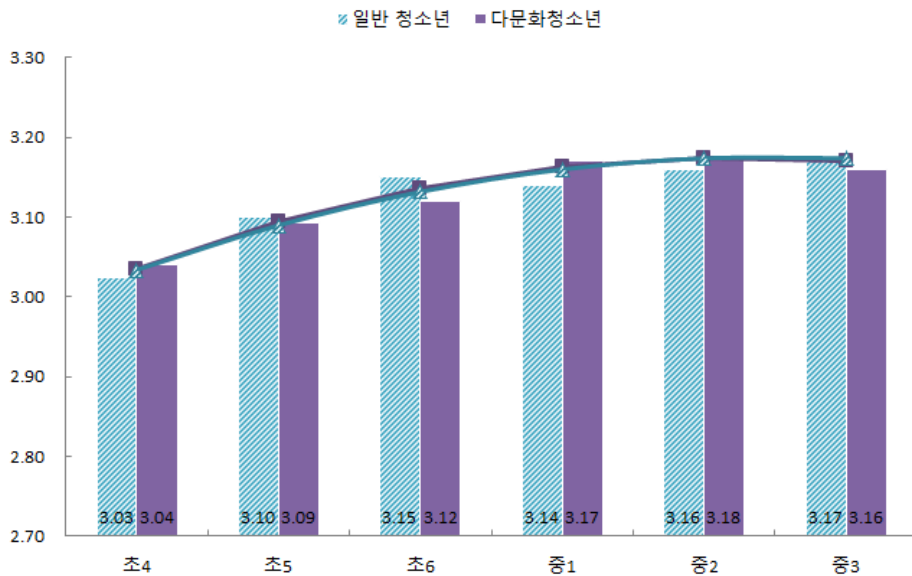
다음으로 다문화청소년과 일반청소년 사이에서 집단 간 초기치와 일차 변화율, 이차 변화율의 평균값에 차이가 존재하는지 비교하였다. 이는 각 요인의 평균값을 집단 간 동일하게 고정시키는 모형을 비교함으로써 검증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집단 간 해당 요인의 평균값을 고정시킨 모형이 기각되면, 두 집단의 해당 요인 평균값이 유의미한 수준에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평균값에 대한 고정은 두 집단 간 가장 차이가 적은 요인 순으로 실시하였으며, 이러한 분석 절차를 토대로 도출된 결과를 <표 III-7>에 제시하였다.⁸⁾

표 III-7 교우관계 다집단분석 결과

모형	χ^2	df	TLI	CFI	RMSEA	비고
모형1: 기저모형	69.711	24	0.987	0.989	0.025	
모형2: + 초기치 고정모형	69.716	25	0.988	0.990	0.024	
모형3: + 일차 변화율 고정모형	69.933	26	0.988	0.990	0.023	
모형4: + 이차 변화율 고정모형	70.010	27	0.989	0.990	0.023	채택

8) 모형1은 두 집단의 모든 요인이 서로 다른 평균값을 갖는 것을 허용하는 기저모형이다. 모형2는 기저모형에서 초기치의 평균값이 집단 간 서로 동일하다고 고정한 모형이다. 모형3은 모형2에서 추가로 일차 변화율의 평균값이 집단 간 동일하다고 고정한 모형이다. 모형4는 모형3에서 추가로 이차 변화율의 평균값이 집단 간 동일하다고 고정한 모형으로서 모든 요인의 평균값이 두 집단에서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한 모형이다.

기저모형인 모형1과 초기치의 평균값에 동일성제약을 가한 모형2의 적합도를 비교해보면, χ^2 값의 유의미하게 나빠지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적합도도 더 좋아진 것으로 나타나($\Delta TLI = 0.001$, $\Delta CFI=0.001$, $\Delta RMSEA=-0.001$) 초기치 평균동일성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초기치의 평균값만 고정한 모형 2와 초기치와 일차 변화율의 평균값을 함께 고정한 모형3을 비교해볼 때, 모형의 적합도가 나빠지지 않거나 오히려 더 좋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모형3에서 일차 변화율의 평균값도 다문화청소년과 일반청소년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모형3과 이차 변화율의 평균값까지 모두 고정한 모형인 모형4를 비교하였을 때, 적합도가 나빠지지 않거나 더 좋게 나타나 이차 변화율의 평균동일성도 성립된 것으로 드러났다. 즉, 이차변화모형에서 초기치, 일차 변화율, 이차 변화율의 평균값이 두 집단 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술한 결과는 다문화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교우관계 변화를 추정한 이차변화모형이 서로 동일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III-6]에는 각 집단에 대한 교우관계 평균값과 변화 궤적을 함께 제시하였다.



【그림 III-6】 다문화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교우관계 변화 비교

4. 삶의 만족도

1) 일반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변화

다음으로 일반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변화를 추정하기 위하여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조사에 참여한 1,830명을 대상으로 모형 비교를 실시하였다. 삶의 만족도에 대한 무변화모형, 선형변화모형, 이차변화모형, 분할함수모형을 비교한 분석결과를 <표 III-8>에 제시하였다. 표에 제시된 바와 같이 일반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를 가장 잘 설명하는 모형은 학교급별 상이한 변화 양상을 갖는 분할함수모형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분할함수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보면 TLI 0.973, CFI 0.978, RMSEA 0.047로 다른 모형의 적합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더 좋은 적합도를 나타내고 있다.

표 III-8 일반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변화 모형 비교

모형	χ^2	df	TLI	CFI	RMSEA
무변화모형	526.287	19	0.821	0.773	0.121
선형변화모형	151.031	16	0.943	0.94	0.068
이차변화모형	90.064	12	0.956	0.965	0.060
분할함수모형	60.377	12	0.973	0.978	0.0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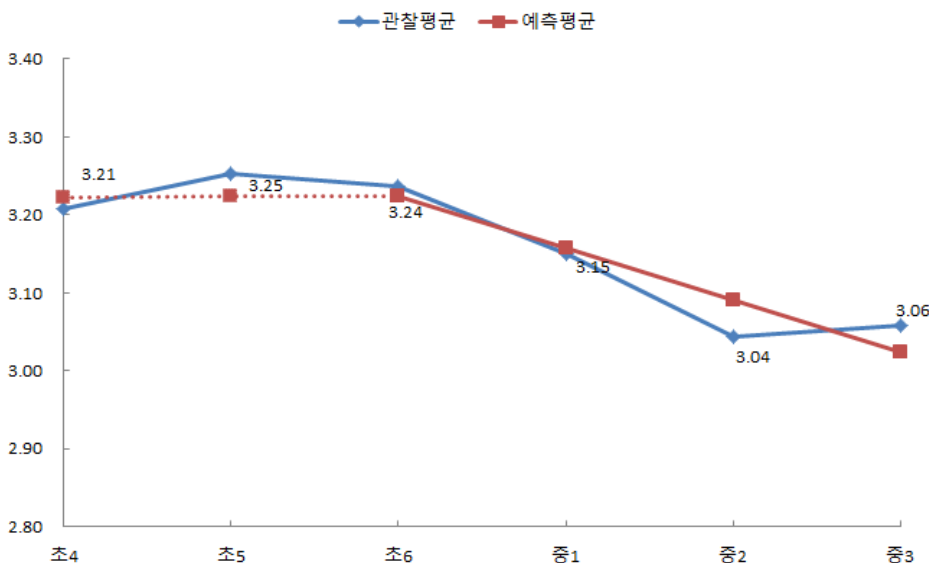
<표 III-9>은 분할함수모형에 기초하여 일반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변화를 분석한 결과이며, [그림 III-7]은 연도별 실제 관측값과 모형에 의한 예측값을 나타낸 것이다. 유의미한 결과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초등학교 4학년 당시 삶의 만족도 초기치의 평균은 3.223이었으며, 중학교 시기의 변화율은 -0.067으로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중학교에 진학 이후 일반청소년의 삶의 만족도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아울러 초기치와 초등학교 시기 변화율의 공분산(-0.046)과 초기치와 중학교 시기 변화율과의 공분산(-0.015)은 부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초기에 삶의 만족도가 높은 청소년의 경우 중학교 시기 삶의 만족도 감소폭이 더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초등학교 시기 변화율과 중학교 시기 변화율과의 공분산(-0.006)도 부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삶의 만족도 초기치와

초등학교 변화율, 중학교 변화율 모두 분산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일반청소년 집단 내에 삶의 만족도 변화 양상에서 개인차가 존재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표 III-9 일반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변화 분할함수모형 분석 결과

	I (초기치)		S1 (초등학교 변화율)		S2 (중학교 변화율)		I-S1의 공분산	I-S2의 공분산	S1-S2의 공분산
	평균	분산	평균	분산	평균	분산			
삶의 만족도	3.223***	0.212***	0.001	0.044***	-0.067***	0.015***	-0.046***	-0.015***	-0.006*

*** $p < 0.001$, ** $p < 0.01$, * $p < 0.05$



【그림 III-7】 일반청소년 삶의 만족도 관찰평균과 예측평균

2) 다문화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변화 비교

다문화청소년과 일반청소년 간 삶의 만족도 변화 양상을 비교하기 위하여 다집단분석을 수행하였다. 먼저 두 집단 간 형태동일성을 확인하였는데, 다문화청소년과 일반청소년 모두 삶의 만족도 변화에 가장 적절한 모형은 분할함수모형으로 판명되었으며, 이에 따라 형태동일성

이 충족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초기치와 초등학교 시기의 변화율, 중학교 시기의 변화율이 집단 간 차이가 존재하는지 모형 비교를 통해 분석하였다. 앞서 교우관계에 대한 다집단분석과 마찬가지로 집단 간 가장 차이가 적은 요인 순으로 평균값을 차례로 고정하여 모형 비교를 실시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표 III-10>에 제시하였다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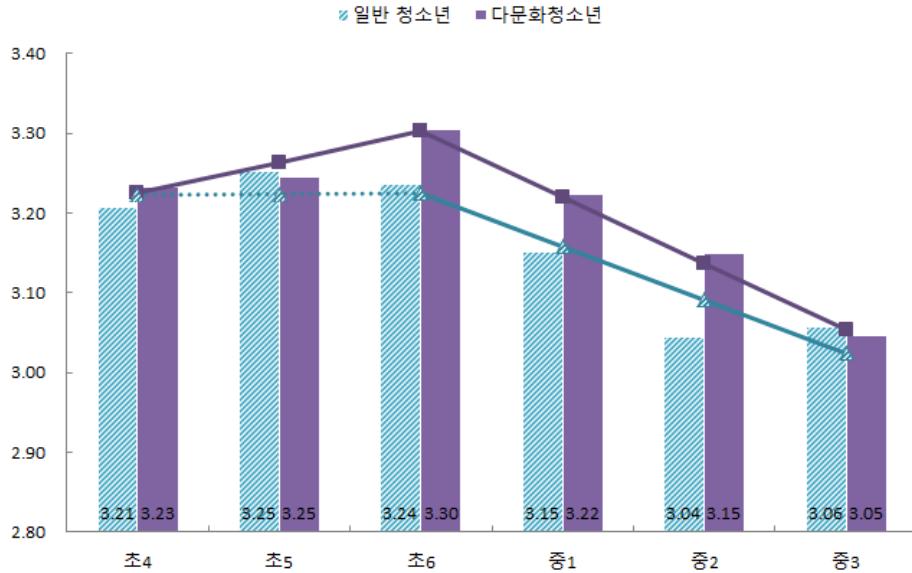
표 III-10 삶의 만족도 다집단분석 결과

모형	χ^2	df	TLI	CFI	RMSEA	비고
모형1: 기저모형	80.510	24	0.983	0.986	0.027	
모형2: + 초기치 고정모형	80.519	25	0.984	0.986	0.027	채택
모형3: + 중학교 변화율 고정모형	84.740	26	0.983	0.986	0.027	기각

표에 제시된 바와 같이 기저모형인 모형1과 초기치를 고정한 모형2를 비교해보면, χ^2 값은 유의미하게 나빠지지 않았고, 적합도는 동일하거나 더 좋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Delta TLI = 0.001$, $\Delta CFI = 0.000$, $\Delta RMSEA = 0.000$). 이에 따라 두 집단 간 삶의 만족도 초기치의 평균이 동일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중학교 시기의 변화율을 추가로 고정한 모형3을 분석한 결과 모형2에 비해 χ^2 값이($\Delta \chi^2 = 4.221$)가 유의한 수준에서 나빠졌으며, 모형의 적합도도($\Delta TLI = -0.001$) 일부 나빠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중학교 시기의 변화율과 관련하여 다문화청소년과 일반청소년 사이에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초기치만 고정한 모형2가 채택되었다.

결론적으로 다문화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궤적은 공통적으로 분할함수모형을 따르는데, 변화율의 크기에서 의미 있는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던 변화율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중학교 시기에 다문화청소년과 일반청소년 집단 모두 삶의 만족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러한 감소경향이 다문화청소년 집단에서 좀 더 두드러지는 양상을 볼 수 있다. [그림 III-8]에 각 집단에 대한 삶의 만족도 평균값과 변화 궤적을 제시하였다.

9) 모형1은 다문화청소년과 일반청소년 집단에서 모든 요인이 각각의 고유한 평균값을 갖는 기저모형이다. 모형2는 기저모형에서 초등학교 4학년 당시의 초기치가 서로 동일하다고 고정한 모형이다. 모형3은 모형2에서 추가로 중학교 시기의 변화율까지 서로 동일하다고 고정한 모형이다.



【그림 Ⅲ-8】 다문화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변화 비교

5. 다문화수용성

1) 일반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 변화

다문화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 변화를 비교하기 위하여 먼저, 일반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 변화 궤적을 추정하였다. 2011년부터 초등학교 5학년부터 2015년 중학교 3학년까지 조사에 참여한 1,830명을 대상으로 무변화모형, 선형변화모형, 이차변화모형, 분할함수모형을 분석하였다. <표 Ⅲ-1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일반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 변화 양상을 분석한 결과, 분할함수모형이 변화를 설명하는 데에 가장 타당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분할함수모형의 적합도는 TLI 0.981, CFI 0.987, RMSEA 0.041로 다른 모형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좋은 적합도를 나타내었다.

표 III-11 일반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 변화 모형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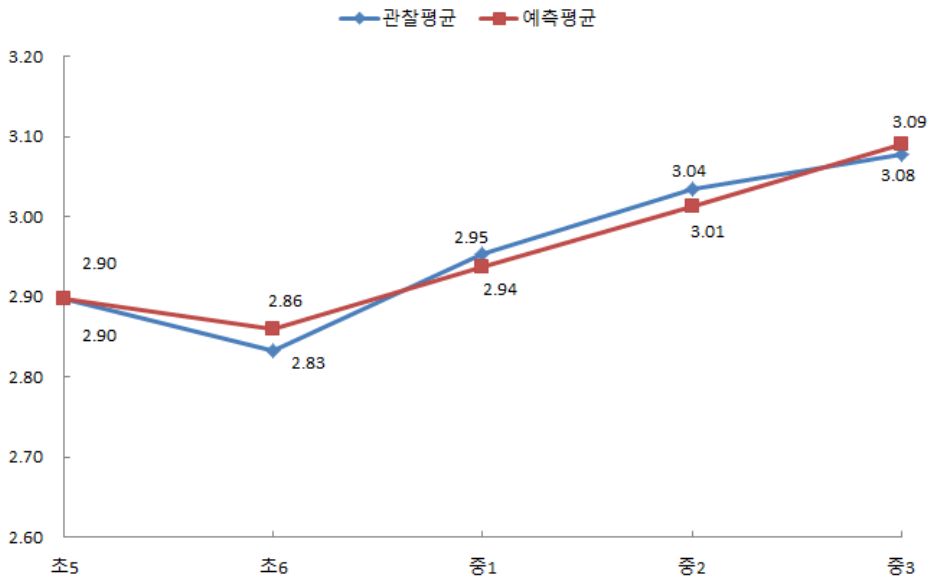
모형	χ^2	df	TLI	CFI	RMSEA
무변화모형	459.668	14	0.812	0.736	0.132
선형변화모형	92.614	11	0.956	0.952	0.064
이차변화모형	61.772	7	0.954	0.968	0.065
분할함수모형	29.029	7	0.981	0.987	0.041

<표 III-12>에는 다문화수용성에 대한 분할함수모형 추정 결과가 제시되었으며, [그림 III-9]에는 실제 관측값과 모형에 의한 예측값이 제시되었다. 초등학교 4학년 당시 일반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 초기치의 평균은 2.898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또한 초등학교 시기의 변화율의 평균값은 -0.038, 중학교 시기의 변화율은 0.077로 모두 유의미한 수준이었다. 이는 일반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이 초등학교 시기에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나, 중학교 진학 이후에는 다문화수용성이 증가하는 상반된 양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아울러 다문화수용성의 초기치와 중학교 시기 변화율은 모두 분산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변화 양상에 개인차가 존재하였다. 한편 초기치와 중학교 시기 변화율 간의 공분산(-0.019)은 부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이는 다문화수용성이 초기에 높은 청소년일수록 중학교 시기 증가추세가 더디게 진행될 경향이 있음을 시사한다.

표 III-12 일반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 변화 분할함수모형 분석 결과

	I (초기치)		S1 (초등학교 변화율)		S2 (중학교 변화율)		I-S1의 공분산	I-S2의 공분산	S1-S2의 공분산
	평균	분산	평균	분산	평균	분산			
다문화 수용성	2.898***	0.124***	-0.038*	0.019	0.077***	0.019***	0.011	-0.019***	-0.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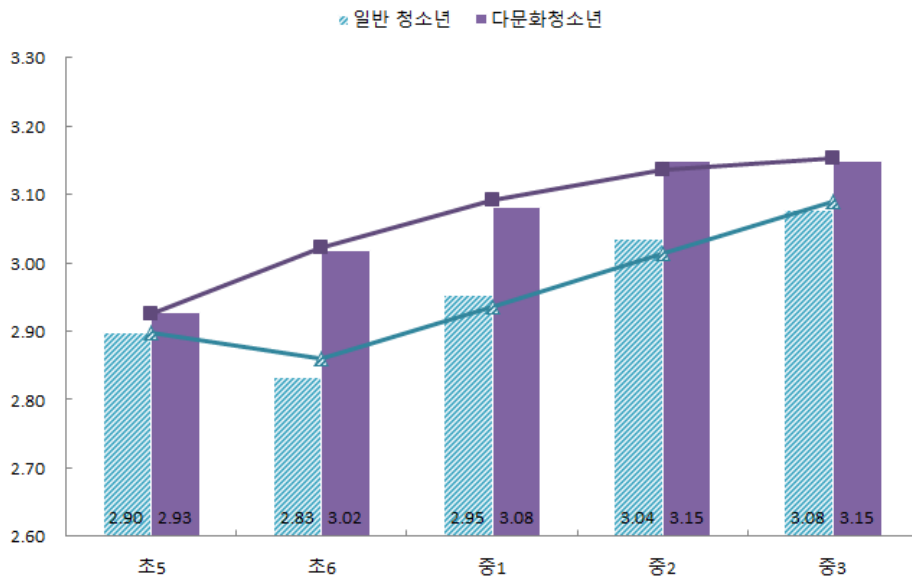
*** $p < 0.001$, ** $p < 0.01$, * $p < 0.05$



【그림 III-9】 일반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의 관찰평균과 예측평균

2) 다문화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 변화 비교

다문화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 변화 양상을 비교한 결과, 다문화청소년은 이차변화모형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반청소년의 경우 분할함수모형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다문화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 변화 궤적이 상이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구체적으로 다문화청소년의 경우 다문화수용성이 증가하다가 점차 그 증가폭이 감소하는 역-U자 형태의 궤적을 그리는 반면, 일반청소년의 경우 초등학교 시기에 다문화수용성이 감소하다가 중학교 이후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내었다. 두 집단의 형태동일성이 기각됨에 따라 계수비교와 같은 추가적인 다집단분석은 실시하지 않았다. [그림 III-10]은 다문화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 변화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두 집단의 평균값과 변화 궤적을 도식화한 것이다.



【그림 III-10】 다문화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 변화 비교

6. 건강상태

1) 일반청소년의 건강상태 변화

일반청소년의 건강상태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조사에 참여한 1,825명을 대상으로 모형 비교를 실시하였다. <표 III-13>은 건강상태에 대한 무변화모형, 선형변화모형, 이차변화모형, 분할함수모형을 비교한 분석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분석결과, 일반청소년의 건강상태 변화 양상을 가장 잘 설명하는 모형은 학교급별로 변화 양상이 상이한 분할함수모형인 것으로 판명되었다. 분할함수모형의 적합도는 TLI 0.973, CFI 0.978, RMSEA 0.045로 여타 모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좋은 적합도를 나타냈다.

표 III-13 일반청소년의 건강상태 변화 모형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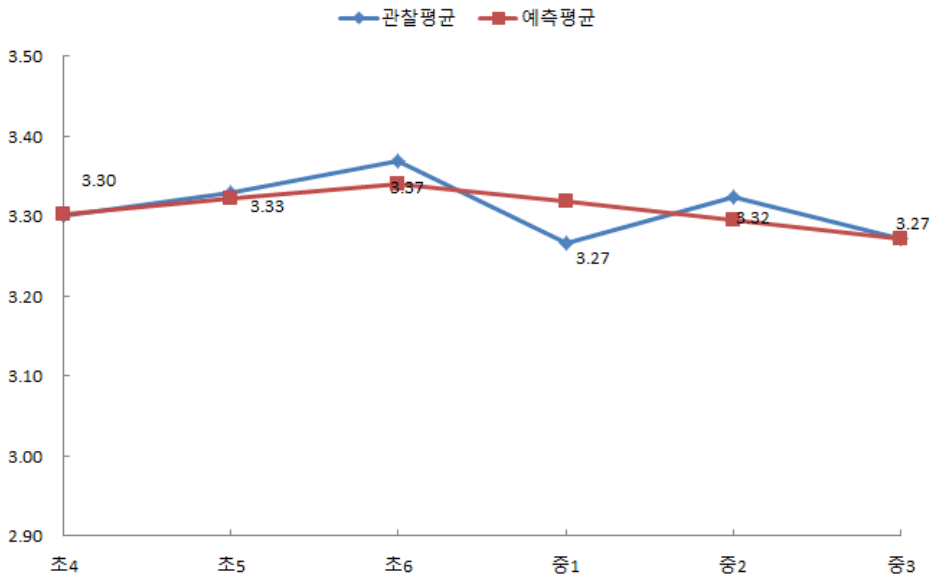
모형	χ^2	df	TLI	CFI	RMSEA
무변화모형	211.599	19	0.926	0.906	0.075
선형변화모형	89.407	16	0.967	0.964	0.05
이차변화모형	60.271	12	0.971	0.977	0.047
분할함수모형	57.033	12	0.973	0.978	0.045

<표 III-14>에는 분할함수모형에 기초하여 일반청소년의 건강상태 변화를 추정한 결과가 제시되었으며, [그림 III-11]에는 연도별 실제 관측값과 모형에 의한 예측값이 제시되었다. 분석결과, 초등학교 4학년 당시 일반청소년의 주관적 건강상태 초기값은 평균적으로 3.303이었으며, 초등학교 시기의 변화율은 0.019, 중학교 시기의 변화율은 -0.023로 나타났으며,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술한 결과는 일반청소년의 주관적 건강상태가 초등학교 시기에 증가하다가 중학교 시기에는 반대로 감소하는 양상을 나타내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다음으로 초기치와 두 변화율의 분산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이러한 건강상태의 변화 양상에 개인 간의 차이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초기치와 초등학교 시기 변화율의 공분산(-0.022), 초기치와 중학교 시기 변화율과의 공분산(-0.012)은 모두 부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초기 건강상태 수준의 높은 일반청소년의 경우 초등학교 시기에 더디게 증가하거나, 중학교 시기의 빠르게 감소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III-14 일반청소년의 건강상태 변화 분할함수모형 분석 결과

	I (초기치)		S1 (초등학교 변화율)		S2 (중학교 변화율)		I-S1의 공분산	I-S2의 공분산	S1-S2의 공분산
	평균	분산	평균	분산	평균	분산			
건강 상태	3.303***	0.155***	0.019*	0.021***	-0.023***	0.011***	-0.022**	-0.012***	-0.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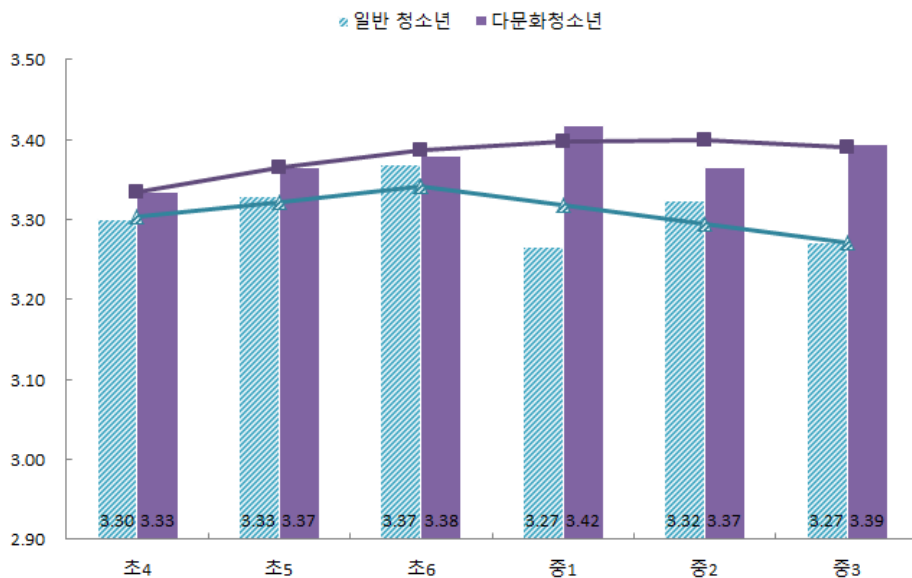
*** $p < 0.001$, ** $p < 0.01$, * $p < 0.05$



【그림 III-11】 일반청소년 건강상태의 관찰평균과 예측평균

2) 다문화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건강상태 변화 비교

앞서 다문화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건강상태 변화 양상을 추정한 결과, 집단에 따라 서로 다른 궤적을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된다. 구체적으로 다문화청소년의 건강상태는 이차변화모형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반청소년의 경우에는 분할함수모형이 변화 양상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다문화청소년의 경우 주관적 건강상태 수준이 증가하다가 그 증가폭이 점차 감소하는 역-U자 형태의 변화 추이를 나타내었으나, 일반청소년의 경우 초등학교 시기에 건강상태 수준이 증가하다가 중학교 진학 이후에는 감소하는 변화 추이를 보였다. 형태동일성이 기각됨에 따라 추가적인 다집단분석은 실시하지 않았다. 다문화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건강상태 평균값과 변화 궤적을 [그림 III-12]에 제시하였다.



【그림 Ⅲ-12】 다문화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건강상태 변화 비교

7. 요약 및 소결

이 절에서는 다문화청소년과 일반청소년 간 발달 추이에 대한 비교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는 II장에서 도출된 다문화청소년의 발달 변화를 다문화청소년 집단의 특성으로 볼 것인지, 일반적인 청소년의 발달 변화로서 이해할 것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보다 객관적인 비교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일반청소년 대상으로 수행된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를 활용하여, 앞서 II장에서 분석한 주요 변인들 가운데 다문화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을 비교할 수 있는 문항을 중심으로 각 요인들의 변화 궤적을 체계적으로 비교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다문화청소년과 일반청소년 간의 발달 추이를 비교한 결과, 다수의 요인에서 두 집단 간의 변화 궤적에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Ⅲ-15>에 제시된 바와 같이 일차적으로 각 집단에서 모형 비교를 통해 도출된 변화 모형의 형태에서 상당부분 차이가 발생하였다. 전술한 결과는 해당 요인들에 대한 다문화청소년의 발달 과정이 일반청소년과 다른 궤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다문화청소년의 성장과정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들 집단에 대한 지속적이고 세밀한 연구가 뒷받침 될 필요성이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습활동, 교사관계, 다문화수용성, 건강상태 변화 궤적을 설명하는 모형이 집단별로 상이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령 학습활동의 경우 다문화청소년에서는 학교급에 따라 서로 다른 변화율을 갖는 것으로 가정하는 분할함수모형이 적절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일반청소년에서는 이차함수 곡선으로 변화하는 모형이 더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다문화청소년과 일반청소년 간에 학습활동의 변화 궤적은 다른 것으로 판명되었으며, 조사시점에 따라 학습활동의 수준이 높은 집단이 다르게 나타나, 특정 집단의 우위나 열세를 논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교사관계에서도 다문화청소년의 경우 분할함수모형이, 일반청소년의 경우 이차변화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두 집단 간의 변화 양상에 차이가 있었다. 또한 다문화수용성과 건강상태의 변화에서는 다문화청소년 집단에서 이차함수로 변화하는 모형이 가장 적절하였으나, 일반청소년 집단에서는 초등학교 시기와 중학교 시기의 변화율이 다른 분할함수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드러나 두 집단 간 변화 모형에 차이가 존재하였다.

한편 교우관계와 삶의 만족도 요인에서는 다문화청소년과 일반청소년 간의 발달 모형이 동일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특히 교우관계의 경우 이차변화모형으로 도출된 계수를 비교한 결과, 각 집단의 초기치와 변화율이 두 집단 간에 모두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교우관계의 변화에서 다문화청소년과 일반청소년 사이에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사실을 시사하는 것이다. 반면에 삶의 만족도의 경우 두 집단에서 변화를 설명하는 모형은 분할함수모형으로 동일하였으나, 변화율의 평균에 일부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학교 진학 이후 다문화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는 모두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러한 삶의 만족도의 감소 경향이 일반청소년보다 다문화청소년에게서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물론 중학교 시기에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적인 어려움이 가중되는 현상은 비단 다문화청소년만의 문제는 아닐 수 있다. 하지만 다문화청소년의 경우 일반청소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러한 심리적 문제가 더 심각할 개연성이 높음을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전술한 결과는 다문화청소년이 중학교 시기에 겪는 심리·정서적인 어려움이 무엇 때문인지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표 III-15 다문화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발달 변화 비교

	분석 결과
학습활동	변화 모형의 형태가 서로 다름.
교사관계	변화 모형의 형태가 서로 다름.
교우관계	변화 모형이 형태가 동일하고, 추정모수도 동일함. 즉, 집단 간 변화 궤적이 모두 동일함.
삶의 만족도	변화 모형의 형태는 동일하나 추정모수(변화율)이 서로 다름.
다문화수용성	변화 모형의 형태가 서로 다름.
건강상태	변화 모형의 형태가 서로 다름.

제 IV 장

다문화청소년의 발달 추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1. 학습활동
2. 교우관계
3. 학교성적수준
4. 성적에 대한 만족도
5. 자아존중감
6. 삶의 만족도
7. 비행경험
8. 요약 및 소결

제 IV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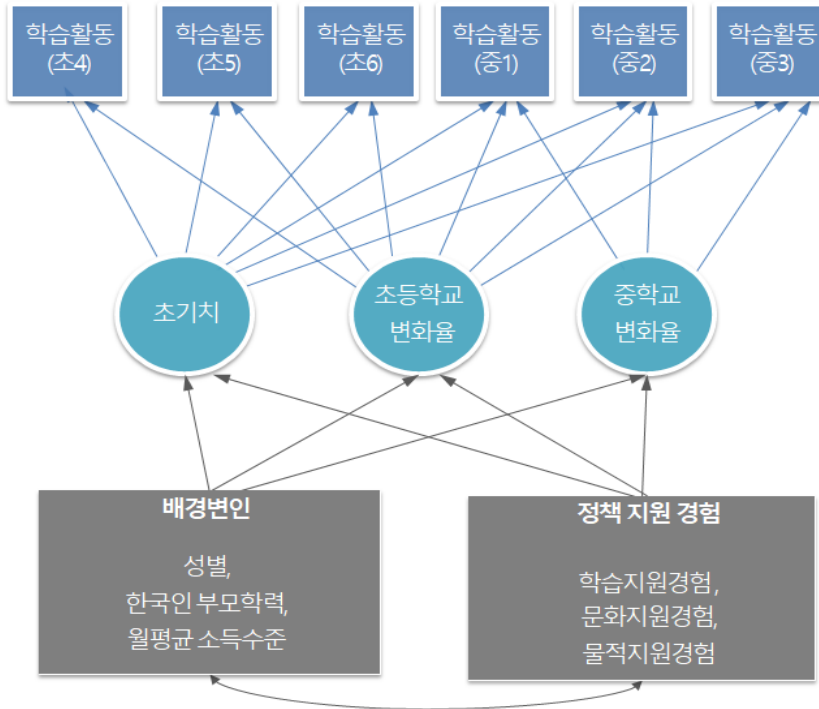
다문화청소년의 발달 추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앞서 다문화청소년의 발달의 변화 양상을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면, 이 절에서는 심층 분석으로서 다문화청소년의 발달 추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무엇인지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학업 및 학교생활적응, 심리적응, 사회적응 영역에 대한 심층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기초 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를 나타내었던 발달 변인들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¹⁰⁾. 그리하여 학습활동, 교우관계, 학교성적수준, 성적에 대한 만족도,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 비행경험 등 7개 요인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하였다. 기초분석과 마찬가지로 다문화청소년 1,296명을 대상으로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영향요인으로서 개인 및 가정의 배경변인과 정책지원경험에 초점을 두어 해당 변인들이 다문화청소년의 발달 변화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았다.

1. 학습활동

기초 분석에서 2011년 초등학교 4학년부터 2016년 중학교 3학년에 이르기까지 다문화청소년의 학습활동의 변화 양상을 추정한 결과, 학교급별 상이한 변화 양상을 갖는 분할함수모형이 이들이 학습활동 변화를 가장 잘 설명해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해당 분할함수모형에 독립변인을 추가로 투입한 조건모형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 성별, (한국인)부모학력, 가정의 월평균 소득수준 등의 개인 배경변인과, 6년 동안의 평균값으로 학습지원경험, 문화지원경험, 물적지원경험 변인들을 각각 투입하여, 해당 변인들이 변화 궤적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았다. [그림 IV-1]은 전술한 분석모형을 도식화한 것이다.

10) 본 연구에서는 이 외에도 여러 변인들에 대한 기초 분석을 수행하였으나, 연구의 밀도 있는 논의와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보다 의미 있다고 판단된 주요 변인들을 선택하여 중심으로 심층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림 IV-1】 학습활동 변화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모형

분석결과, 학습활동에 대한 조건모형의 적합도는 <표 IV-1>에 제시된 바와 같이 TLI는 0.964, CFI는 0.984로 모두 0.9 이상으로 좋은 적합도를 나타내었고, RMSEA는 0.037로 0.5보다 작게 나타나 좋은 적합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모형이 본 연구의 분석자료를 잘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표 IV-1 학습활동 조건모형 적합도

	χ^2	df	TLI	CFI	RMSEA
조건모형	83,944	30	0.964	0.984	0.037

다음으로 경로계수를 검증한 분석결과가 <표 IV-2>에 제시되었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경로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먼저 성별의 경우 학습활동 초기치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가령 여자 청소년의 경우 남자 청소년에 비해 초등학교 4학년 당시 학습활동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성별은 초등학교 변화율에 부적인 효과를 발휘하였는데, 무조건부 모형에서 초등학교 변화율의 평균값이 유의하지 않았으나 성별에 따라 이러한 초등학교 시기의 변화 양상에 차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 한다. (한국인)부모학력의 경우 자녀의 초기 학습활동 수준에 정적인 효과를 나타내었으며, 이는 부모학력이 높은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경우 초기에 학습활동 수준이 더 높은 경향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정책지원경험과 관련해서는 물적지원경험이 중학교 변화율에 정적인 효과를 발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앞서 II장의 기초 분석 결과, 중학교 시기에 다문화청소년의 학습활동 수준이 평균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학용품이나 급식비 지원과 같은 물적지원이 뒷받침 되었던 청소년의 경우 이러한 학습활동의 감소하는 경향이 더디게 진행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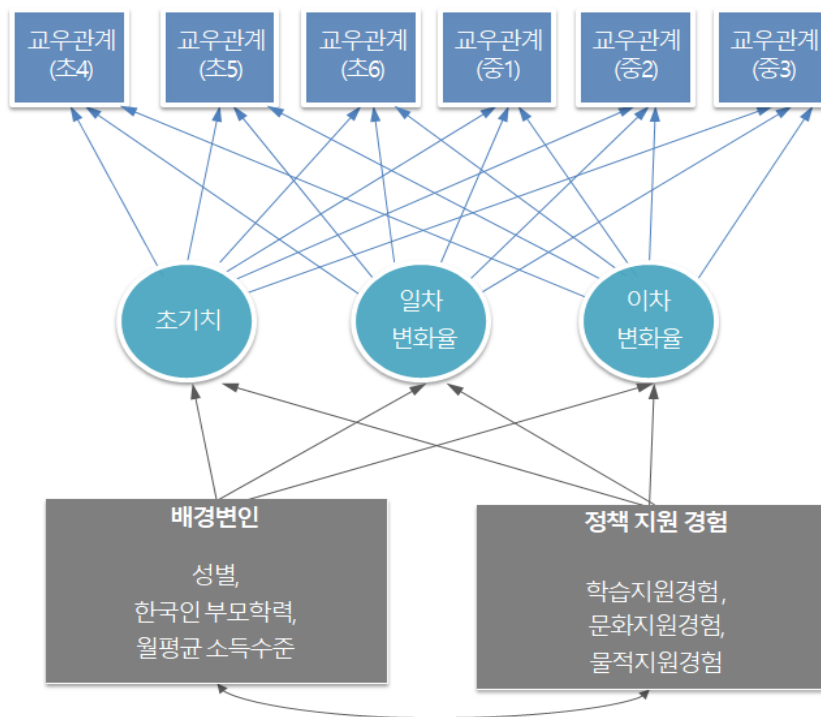
표 IV-2 학습활동 조건모형 경로계수

경로	비표준화 계수(b)	표준오차	표준화계수(β)
성별 → 초기치	0.153***	0.026	0.215
성별 → 초등학교 변화율	-0.068***	0.014	-0.267
성별 → 중학교 변화율	0.007	0.009	0.032
부모학력 → 초기치	0.056***	0.013	0.169
부모학력 → 초등학교 변화율	-0.002	0.007	-0.021
부모학력 → 중학교 변화율	-0.006	0.005	-0.063
월평균 소득 → 초기치	0.026	0.015	0.066
월평균 소득 → 초등학교 변화율	-0.005	0.008	-0.035
월평균 소득 → 중학교 변화율	0.009	0.006	0.072
학습지원경험 → 초기치	0.031	0.060	0.021
학습지원경험 → 초등학교 변화율	-0.026	0.033	-0.050
학습지원경험 → 중학교 변화율	0.026	0.022	0.059
문화지원경험 → 초기치	0.010	0.068	0.006
문화지원경험 → 초등학교 변화율	0.030	0.037	0.047
문화지원경험 → 중학교 변화율	-0.024	0.024	-0.045
물적지원경험 → 초기치	0.001	0.073	0.000
물적지원경험 → 초등학교 변화율	0.036	0.040	0.054
물적지원경험 → 중학교 변화율	0.055***	0.027	0.100

*** $p < 0.001$, ** $p < 0.01$, * $p < 0.05$

2. 교우관계

다음으로 다문화청소년의 교우관계 변화에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심층 분석을 수행하였다. 학습활동에 대한 분석과 마찬가지로 기초 분석에서 선정된 이차변화모형을 토대로 성별, 부모학력, 월평균 소득 등의 배경변인과 학습지원경험, 문화지원경험, 물적지원경험 등의 정책지원경험 변인들을 투입하였다. 최종 분석모형은 [그림 IV-2]와 같다.



【그림 IV-2】 교우관계 변화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모형

<표 IV-3>에 제시된 바와 같이 교우관계 조건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보면, TLI는 0.971, CFI는 0.987, RMSEA는 0.030으로 모두 좋은 적합도인 것으로 확인되어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형이 타당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표 IV-3 교우관계 조건모형 적합도

	χ^2	df	TLI	CFI	RMSEA
조건모형	63.850	30	0.971	0.987	0.030

교우관계에 대한 조건모형의 경로계수를 검증한 분석결과를 <표 IV-4>에 제시하였다. 먼저 성별은 교우관계의 초기치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초등학교 4학년 당시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보다 교우관계가 더 좋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성별은 교우관계의 일차 변화율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앞서 교우관계의 순간변화율 평균값이 정적으로 나타났던 것을 고려해볼 때, 여자 청소년의 경우 초등학교 4학년 당시의 이러한 증가추세가 남자 청소년보다 더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전술한 결과는 다문화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교우관계의 초기 궤적에 차이가 존재함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가정의 월평균소득 수준도 다문화청소년의 교우관계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소득수준이 높은 다문화가정일수록 자녀의 초기 교우관계가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역으로 경제적으로 열악한 다문화청소년의 경우 교우관계에서도 상대적으로 더 어려움을 겪고 있을 공산이 큰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표 IV-4 교우관계 조건모형 경로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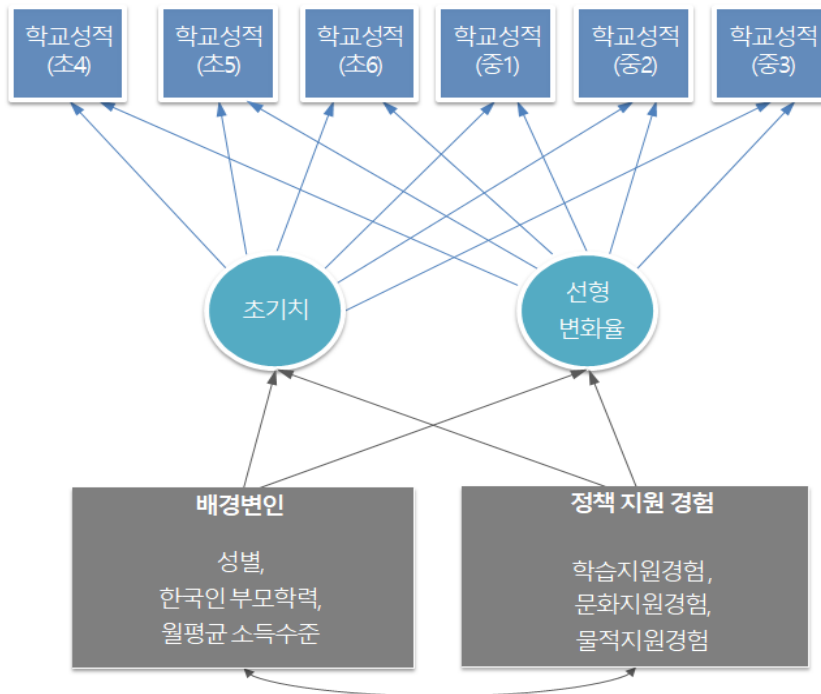
경로	비표준화 계수(b)	표준오차	표준화계수(β)
성별 → 초기치	0.086**	0.028	0.123
성별 → 일차 변화율	-0.049*	0.019	-0.161
성별 → 이차 변화율	0.006	0.003	0.095
부모학력 → 초기치	0.026	0.014	0.082
부모학력 → 일차 변화율	0.006	0.009	0.044
부모학력 → 이차 변화율	-0.002	0.002	-0.079
월평균 소득 → 초기치	0.042*	0.017	0.106
월평균 소득 → 일차 변화율	-0.012	0.011	-0.072
월평균 소득 → 이차 변화율	0.001	0.002	0.040
학습지원경험 → 초기치	0.060	0.065	0.042
학습지원경험 → 일차 변화율	-0.006	0.045	-0.010
학습지원경험 → 이차 변화율	0.000	0.008	0.004
문화지원경험 → 초기치	0.052	0.074	0.030
문화지원경험 → 일차 변화율	-0.031	0.050	-0.041

경로	비표준화 계수(b)	표준오차	표준화계수(β)
문화지원경험 → 이차 변화율	0.009	0.009	0.060
물적지원경험 → 초기치	0.075	0.080	0.042
물적지원경험 → 일차 변화율	0.002	0.055	0.002
물적지원경험 → 이차 변화율	-0.001	0.010	-0.005

*** $p < 0.001$, ** $p < 0.01$, * $p < 0.05$

3. 학교성적수준

2011년 초등학교 4학년부터 2016년 중학교 3학년까지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성적수준 변화 양상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앞서 학교성적수준의 변화 양상에 대한 무조건부 모형을 분석한 결과 선형으로 변화하는 모형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하여 학교성적수준의 선형변화모형에 개인 배경변인과 정책지원경험을 추가적으로 투입하여 심층 분석을 수행하였다. 최종 분석모형을 [그림 IV-3]에 제시하였다.



【그림 IV-3】 학교성적수준 변화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모형

학교성적수준에 대한 조건모형을 분석한 결과, <표 IV-5>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적합도는 TLI는 0.902, CFI는 0.942로 모두 0.9 이상의 좋은 적합도를 나타내었고, RMSEA는 0.069로 괜찮은 적합도로 판단할 수 있다. 이는 본 연구에서 설정한 모형이 적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IV-5 학교성적수준 조건모형 적합도

	χ^2	df	TLI	CFI	RMSEA
조건모형	277.189	39	0.902	0.942	0.069

조건모형에서 각각의 경로계수를 검증한 분석결과를 <표 IV-6>에 제시하였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경로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한국인 부모의 학력과 가정의 월평균소득이 초기 학교성적수준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먼저 부모학력의 경우 초등학교 4학년 당시의 학교성적 초기값에 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하였는데, 이는 부모학력이 높은 다문화청소년의 경우 초기 학교성적수준도 높은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가정의 월평균 소득수준도 초기 학교성적수준에 정적인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다문화가정의 경우 자녀의 초기 학교성적수준도 더 우수한 경향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부모학력과 가정의 경제적 여건이 지속적으로 학교성적수준의 변화율에까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성적수준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정책지원경험의 효과를 살펴본 결과, 물적지원경험의 유의미한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책, 학용품, 급식비와 같은 물적 지원이 학교성적수준의 변화율에 정적인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앞서 기초 분석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성적수준이 평균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술한 결과는 물적지원을 받은 경험이 많은 청소년일수록 이러한 감소경향이 더디게 나타날 경향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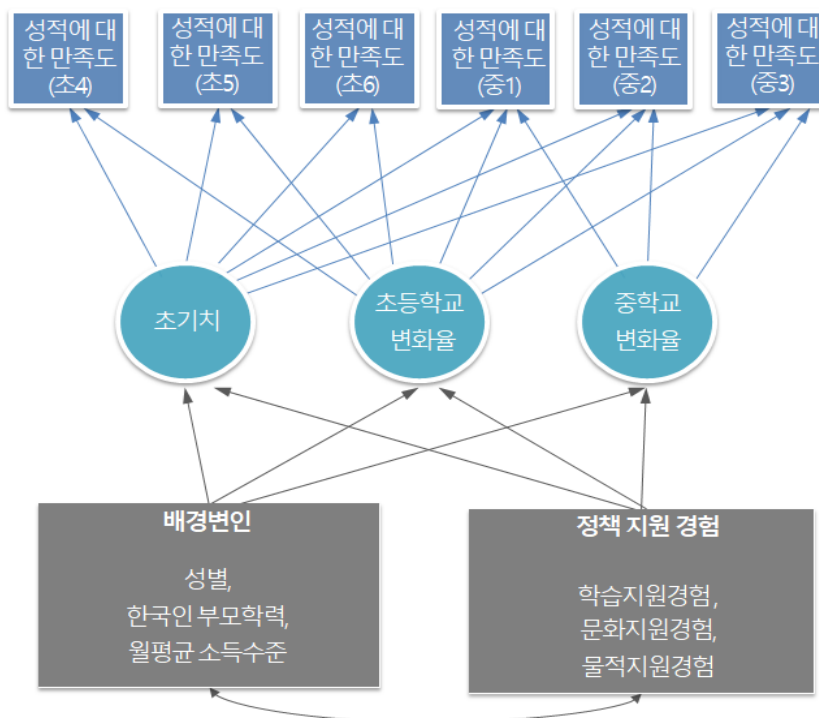
표 IV-6 학교성적수준 조건모형 경로계수

경로	비표준화 계수(b)	표준오차	표준화계수(β)
성별 → 초기치	-0.046	0.034	-0.044
성별 → 선형 변화율	-0.007	0.009	-0.025
부모학력 → 초기치	0.088***	0.017	0.180
부모학력 → 선형 변화율	0.002	0.004	0.018
월평균 소득 → 초기치	0.040*	0.020	0.068
월평균 소득 → 선형 변화율	0.006	0.005	0.048
학습지원경험 → 초기치	-0.084	0.079	-0.039
학습지원경험 → 선형 변화율	-0.007	0.020	-0.013
문화지원경험 → 초기치	0.126	0.089	0.048
문화지원경험 → 선형 변화율	0.002	0.022	0.002
물적지원경험 → 초기치	0.072	0.097	0.026
물적지원경험 → 선형 변화율	0.065**	0.024	0.110

*** $p < 0.001$, ** $p < 0.01$, * $p < 0.05$

4. 성적에 대한 만족도

다음으로 다문화청소년의 성적에 대한 만족도 변화에 미치는 영향 요인에 대한 심층 분석을 수행하였다. 앞선 분석들과 마찬가지로 기초 분석에서 도출된 성적에 대한 만족도 분할함수모형에 개인 배경변인(성별, 부모학력, 월평균 가구소득)과 정책지원경험(학습지원경험, 문화지원경험, 물적지원경험) 변인을 추가로 투입하였다. 이에 따른 최종 분석모형을 도식화하면 아래의 [그림 IV-4]과 같다.



【그림 IV-4】 성적에 대한 만족도 변화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모형

<표 IV-7>에 제시된 바와 같이 성적에 대한 만족도 조건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보면, TLI는 0.928, CFI는 0.967, RMSEA는 0.044로 모두 좋은 적합도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형이 분석자료를 잘 설명하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표 IV-7 성적에 대한 만족도 조건모형 적합도

	χ^2	df	TLI	CFI	RMSEA
조건모형	106.259	30	0.928	0.967	0.044

성적에 대한 만족도 조건모형의 경로계수를 검증한 결과가 <표 IV-8>에 제시되어 있다. 유의미한 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먼저 성별에 따라 성적에 대한 만족도 변화 궤적에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성별은 초등학교 시기의 변화율에는 부정적인 효과를 나타내었고, 중학교 시기의 변화율에는 정적인 효과를 나타내었다. 앞서 II장에서 다문화

청소년의 평균 성적에 대한 만족도가 감소하는 것을 고려해볼 때, 여자 청소년의 경우 남자 청소년에 비하여 초등학교 시기에 성적에 대한 만족도가 빠르게 감소하는 경향이 있으나, 중학교 시기에는 더디게 감소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한국인 부모의 학력도 자녀의 성적에 대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부모학력이 높은 다문화청소년의 경우 초기 성적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중학교 진학 이후에 성적에 대한 만족도가 감소하는 경향은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유사하게 정책지원경험에서 문화활동지원을 많이 받은 청소년의 경우 초등학교 4학년 당시 성적에 대한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으나 중학교 시기에 감소폭은 더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술한 결과들은 초기에 성적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던 청소년이 더 빠르게 만족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낸 기초 분석의 결과와도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책지원경험에서는 물적지원경험이 초등학교 시기의 변화율에 정적인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즉, 물적지원경험을 많이 받았던 청소년의 경우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하여 초등학교 시기에 성적에 대한 만족도가 감소하는 경향이 더디게 진행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IV-8 성적에 대한 만족도 조건모형 경로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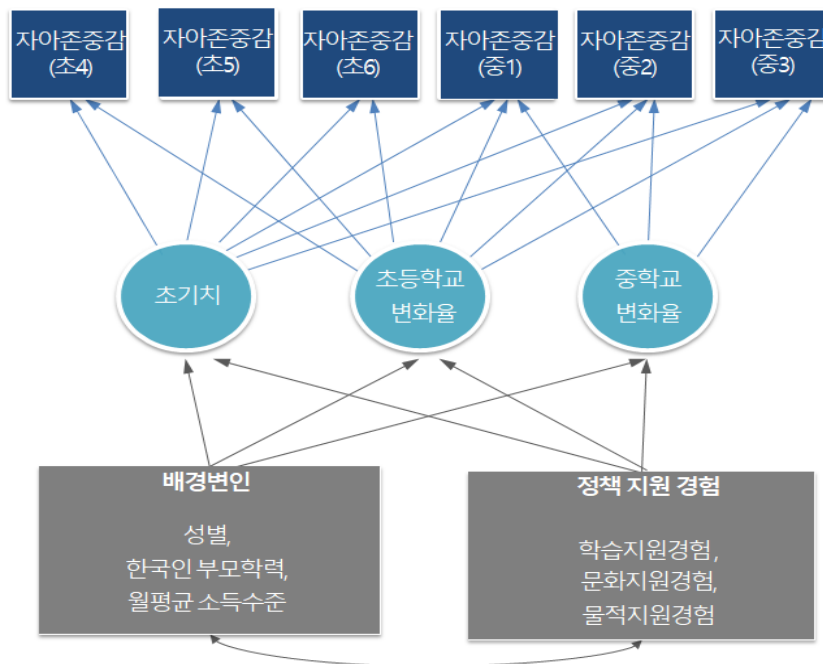
경로	비표준화 계수(b)	표준오차	표준화계수(β)
성별 → 초기치	-0.040	0.038	-0.043
성별 → 초등학교 변화율	-0.078***	0.022	-0.229
성별 → 중학교 변화율	0.033*	0.015	0.110
부모학력 → 초기치	0.043*	0.018	0.099
부모학력 → 초등학교 변화율	-0.003	0.011	-0.020
부모학력 → 중학교 변화율	-0.015*	0.007	-0.106
월평균 소득 → 초기치	0.023	0.023	0.045
월평균 소득 → 초등학교 변화율	0.005	0.013	0.025
월평균 소득 → 중학교 변화율	-0.004	0.009	-0.023
학습지원경험 → 초기치	-0.071	0.087	-0.038
학습지원경험 → 초등학교 변화율	-0.051	0.051	-0.074
학습지원경험 → 중학교 변화율	-0.008	0.034	-0.014
문화지원경험 → 초기치	0.216*	0.099	0.093
문화지원경험 → 초등학교 변화율	0.031	0.057	0.036

경로	비표준화 계수(b)	표준오차	표준화계수(β)
문화지원경험 → 중학교 변화율	-0.107**	0.039	-0.141
물적지원경험 → 초기치	-0.052	0.107	-0.022
물적지원경험 → 초등학교 변화율	0.159*	0.062	0.182
물적지원경험 → 중학교 변화율	-0.031	0.042	-0.040

*** $p < 0.001$, ** $p < 0.01$, * $p < 0.05$

5. 자아존중감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적응 영역으로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자아존중감의 변화 양상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앞서 기초 분석에서 다문화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변화 양상을 분석한 결과, 학교급별로 상이한 궤적을 갖는 분할함수모형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에 따라 자아존중감의 분할함수모형에 개인 배경변인과 정책지원경험을 추가적으로 독립변수로 투입한 조건모형을 분석하였다. 최종 분석모형을 [그림 IV-5]에 제시하였다.



【그림 IV-5】 자아존중감 변화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모형

다문화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조건모형을 분석한 결과를 <표 IV-9>에 제시하였다. 표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적합도는 TLI는 0.987, CFI는 0.994로 나타났으며, 모두 0.9 이상으로 좋은 적합도로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RMSEA는 0.021로 좋은 적합도로 판단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 설정한 모형이 적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IV-9 **자아존중감 조건모형 적합도**

	χ^2	df	TLI	CFI	RMSEA
조건모형	47.900	30	0.987	0.994	0.021

조건모형의 경로계수를 검증한 결과가 <표 IV-10>에 제시되었다. 먼저 개인 배경변인으로서 성별은 자아존중감의 초기치에는 정적인 효과를 나타내었는데, 여자 청소년의 경우 남자 청소년에 비해 초등학교 4학년 당시 자아존중감이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성별은 초등학교 시기의 변화율에는 부적인 효과를 나타내었는데, 앞서 평균적으로 초등학교 시기에 자아존중감이 증가하는 것을 고려해볼 때, 여자 청소년의 경우 이러한 증가양상이 남자 청소년에 비해 더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전술한 결과는 성별에 따라 다문화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변화 궤적에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다문화가정의 월평균 소득수준도 자녀의 초기 자아존중감에 정적인 효과를 발휘하였는데, 가정의 소득수준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자아존중감의 초기값도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반대로 경제적으로 열악한 청소년의 경우 자아존중감이 낮은 경향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다문화청소년에게 집중적인 심리·정서적 지원이 뒷받침 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정책지원경험과 관련해서는 물적지원경험이 자아존중감 초기치에 미치는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물적지원경험이 많은 청소년의 경우 상대적으로 초기 자아존중감이 높을 공산이 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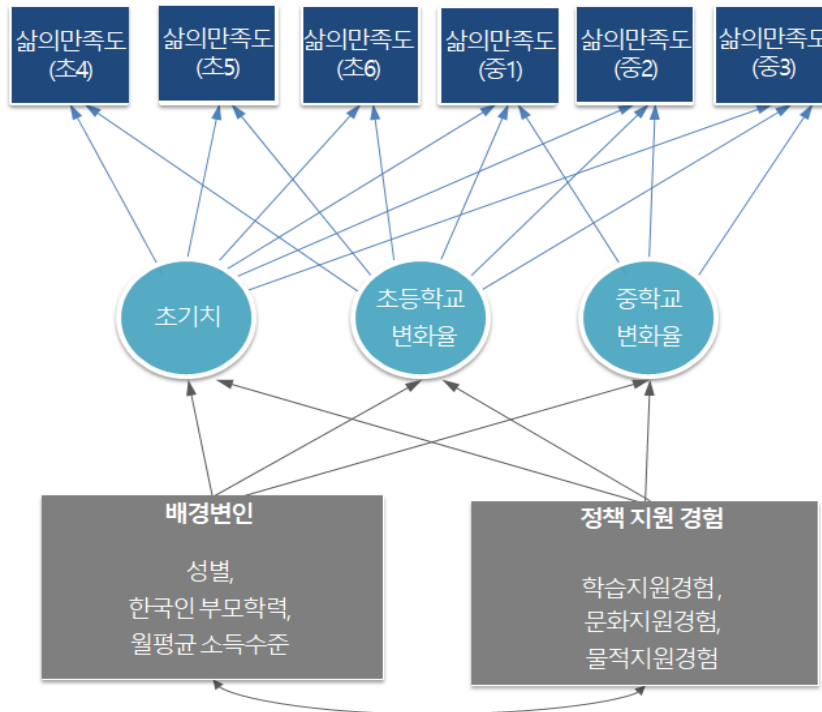
표 IV-10 자아존중감 조건모형 경로계수

경로	비표준화 계수(b)	표준오차	표준화계수(β)
성별 → 초기치	0.071*	0.029	0.092
성별 → 초등학교 변화율	-0.046**	0.016	-0.162
성별 → 중학교 변화율	-0.009	0.010	-0.040
부모학력 → 초기치	0.021	0.014	0.059
부모학력 → 초등학교 변화율	0.000	0.008	-0.003
부모학력 → 중학교 변화율	-0.003	0.005	-0.026
월평균 소득 → 초기치	0.051***	0.017	0.117
월평균 소득 → 초등학교 변화율	-0.008	0.009	-0.050
월평균 소득 → 중학교 변화율	0.003	0.006	0.023
학습지원경험 → 초기치	-0.047	0.067	-0.030
학습지원경험 → 초등학교 변화율	0.015	0.036	0.025
학습지원경험 → 중학교 변화율	0.002	0.023	0.004
문화지원경험 → 초기치	0.087	0.076	0.045
문화지원경험 → 초등학교 변화율	0.001	0.041	0.001
문화지원경험 → 중학교 변화율	0.020	0.026	0.037
물적지원경험 → 초기치	0.232**	0.082	0.117
물적지원경험 → 초등학교 변화율	-0.035	0.044	-0.048
물적지원경험 → 중학교 변화율	0.000	0.029	0.000

*** $p < 0.001$, ** $p < 0.01$, * $p < 0.05$

6. 삶의 만족도

다음으로 다문화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변화에 미치는 요인을 심층 분석하였다. 앞서 자아존중감에 대한 분석과 마찬가지로 기초 분석에서 선정된 분할함수모형에 추가로 성별, 부모학력, 월평균 소득 등의 배경변인과 학습지원경험, 문화지원경험, 물적지원경험 등의 정책지원경험 변인들을 투입하여 분석모형을 설정하였다. 이에 따른 최종 분석모형은 아래의 [그림 IV-6]과 같다.



【그림 IV-6】 삶의 만족도 변화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모형

<표 IV-11>에는 삶의 만족도 조건모형의 적합도가 제시되어 있다. 분석결과, TLI는 0.993, CFI는 0.977, RMSEA는 0.014로 모두 좋은 적합도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형이 타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IV-11 삶의 만족도 조건모형 적합도

	χ^2	df	TLI	CFI	RMSEA
조건모형	37.417	30	0.993	0.997	0.014

삶의 만족도에 대한 조건모형의 경로계수를 검증한 분석결과를 <표 IV-12>에 제시하였다. 유의미한 경로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먼저 성별은 초등학교 시기의 삶의 만족도 변화에 부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앞서 II장에서 초등학교 시기에 다문화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평균 변화율이 정적으로 유의하였는데, 여자 청소년의 경우 남자 청소년에 비해 삶의

만족도가 더디게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부모학력은 중학교 시기의 삶의 만족도 변화율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 시기의 삶의 만족도 평균 변화율은 부적으로 나타났었는데, 부모의 학력이 높은 다문화청소년의 경우 이처럼 삶의 만족도가 감소하는 경향이 더 두드러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가정의 월평균 소득은 초등학교 4학년 당시 삶의 만족도 초기치에 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소득수준이 높은 다문화가정의 경우 자녀의 초기 삶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을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아울러 정책지원경험과 관련해서는 문화지원경험이 삶의 만족도의 초기치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발휘하였으며, 이는 문화지원경험이 많은 청소년의 경우 초기 삶의 만족도 수준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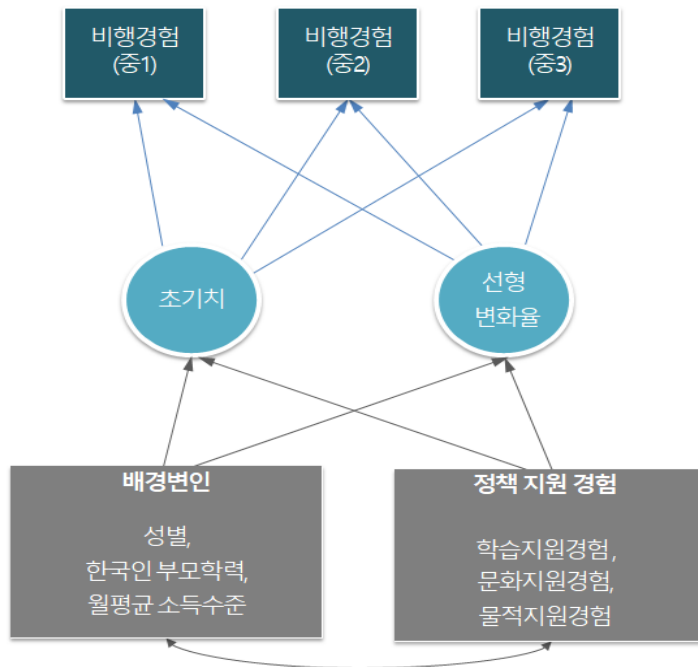
표 IV-12 삶의 만족도 조건모형 경로계수

경로	비표준화 계수(b)	표준오차	표준화계수(β)
성별 → 초기치	0.008	0.032	0.009
성별 → 초등학교 변화율	-0.052**	0.018	-0.141
성별 → 중학교 변화율	-0.016	0.012	-0.064
부모학력 → 초기치	-0.005	0.015	-0.013
부모학력 → 초등학교 변화율	0.006	0.009	0.032
부모학력 → 중학교 변화율	-0.017**	0.006	-0.148
월평균 소득 → 초기치	0.040*	0.019	0.084
월평균 소득 → 초등학교 변화율	-0.014	0.011	-0.065
월평균 소득 → 중학교 변화율	0.002	0.007	0.015
학습지원경험 → 초기치	0.068	0.073	0.039
학습지원경험 → 초등학교 변화율	-0.029	0.042	-0.038
학습지원경험 → 중학교 변화율	-0.051	0.027	-0.099
문화지원경험 → 초기치	0.248**	0.083	0.117
문화지원경험 → 초등학교 변화율	-0.085	0.047	-0.091
문화지원경험 → 중학교 변화율	0.026	0.030	0.041
물적지원경험 → 초기치	0.030	0.090	0.014
물적지원경험 → 초등학교 변화율	0.023	0.051	0.024
물적지원경험 → 중학교 변화율	0.036	0.033	0.056

*** $p < 0.001$, ** $p < 0.01$, * $p < 0.05$

7. 비행경험

마지막으로 2014년 중학교 1학년부터 2016년 중학교 3학년에 이르기까지 다문화청소년의 비행경험 수준의 변화 양상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대한 심층 분석을 실시하였다. 기초 분석에서 비행경험의 변화 추이를 분석한 결과, 선형으로 변화하는 모형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다문화청소년의 비행경험의 선형변화모형에서 개인의 배경변인 및 정책지원경험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는지 독립변수들을 추가로 투입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최종 분석모형은 다음 [그림 IV-7]과 같다.



【그림 IV-7】 비행경험 변화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모형

비행경험에 대한 조건모형을 분석한 결과, <표 IV-1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적합도는 TLI는 0.992, CFI는 0.998로 모두 0.9 이상으로 확인되었으며, RMSEA는 0.013으로 0.5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 좋은 적합도로 볼 수 있다. 즉, 본 연구에서 설정한 모형이 자료를 잘 설명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IV-13 비행경험 조건모형 적합도

	χ^2	df	TLI	CFI	RMSEA
조건모형	8.516	7	0.992	0.998	0.013

비행경험에 대한 조건모형에서 경로계수를 검증한 분석결과를 아래의 <표 IV-14>에 제시하였다. 먼저 개인 배경변인의 효과를 살펴보면, 성별은 비행경험의 초기치와 선형변화율 모두 유의미한 영향력을 발휘하였는데, 성별에 따라 다문화청소년의 비행경험 변화 양상이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구체적으로 여자 청소년의 경우 남자 청소년보다 초기 비행경험이 적었으며, 비행경험의 증가 양상도 더디게 진행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역으로, 남자 청소년의 경우 여자 청소년에 비해 초기 비행경험이 많고, 증가속도도 더 빠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국인 부모학력도 비행경험의 초기치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는데, 부모의 학력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상대적으로 중학교 1학년 당시 비행을 저지를 확률은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정책지원경험과 관련해서는 비행경험의 변화에 별다른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표 IV-14 비행경험 조건모형 경로계수

경로	비표준화 계수(b)	표준오차	표준화계수(β)
성별 → 초기치	-0.074***	0.015	-0.190
성별 → 선형 변화율	-0.030**	0.011	-0.120
부모학력 → 초기치	-0.016*	0.007	-0.090
부모학력 → 선형 변화율	0.009	0.005	0.075
월평균 소득 → 초기치	-0.005	0.007	-0.034
월평균 소득 → 선형 변화율	0.003	0.009	0.016
학습지원경험 → 초기치	0.058	0.036	0.073
학습지원경험 → 선형 변화율	-0.012	0.025	-0.023
문화지원경험 → 초기치	0.077	0.040	0.079
문화지원경험 → 선형 변화율	-0.024	0.029	-0.038
물적지원경험 → 초기치	0.015	0.044	0.015
물적지원경험 → 선형 변화율	-0.052	0.031	-0.08

*** $p < 0.001$, ** $p < 0.01$, * $p < 0.05$

8. 요약 및 소결

지금까지 다문화청소년의 발달 추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심층 분석을 수행하였다. 앞서 기초 분석에서 도출한 다문화청소년의 발달 변화 양상이 개인의 배경에 따라 차이가 존재하는지 살펴보고, 정책지원경험은 이들의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집중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다문화청소년의 성별, 부모학력, 월평균 소득수준 등 개인의 배경 변인에 따라 발달 추이에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가운데 성별은 학습활동, 교우관계, 성적에 대한 만족도,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 비행경험 등 대부분의 발달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전술한 결과는 다문화청소년의 발달 과정에서 남자 청소년과 여자 청소년이 상이한 변화 양상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초기에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에 비해 학습활동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우관계에서는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보다 초기치가 더 높았으나 당시의 순간 증가속도는 낮게 나타나 초기 궤적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초등학교 시기와 중학교 시기의 성적에 대한 만족도의 감소 양상도 여자 청소년과 남자 청소년 사이에 차이가 존재하였다. 심리적 측면에서는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보다 초기 자아존중감은 더 높았으나, 초등학교 시기에 자아존중감 및 삶의 만족도의 증가 양상은 더디게 진행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비행경험은 초기치와 변화율 모두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였는데,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보다 초기 비행경험이 많고, 이후 비행경험의 증가 속도도 더 빠른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다문화청소년의 비행경험과 관련하여 남자 청소년이 상대적으로 비행에 노출된 공산이 더 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한국인 부모의 학력은 자녀의 학습활동, 학교성적수준, 성적에 대한 만족도, 삶의 만족도, 비행경험 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드러났다. 학습과 관련해서는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초기 학습활동, 학교성적수준, 성적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나 일관성 있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는 다문화청소년의 부모의 학력이 자녀의 학습적인 측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부모의 학력수준이 지속적으로 학습 요인들의 변화에까지 효과를 나타내지는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오히려 성적에 대한 만족도 요인의 경우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중학교 시기에 성적에 대한 만족도 감소 속도가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유사하게 삶의 만족도 요인에서도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중학교 시기에 삶의 만족도가 감소하는 경향이 더 강하게 나타났다. 전술한 결과는 고학력 부모를 둔 다문화청소년이 중학교에 진학하면서 학습 및 심리·정서적 측면에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더 급격히 떨어질 경향이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비행경험과 관련해서는 부모의 학력이 높은 다문화청소년일수록 초기 비행경험이 적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가정의 경제적 여건으로서 월평균 소득수준은 다문화청소년의 교우관계와 학교성적수준,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가령 월평균 소득 수준이 높은 다문화가정일수록 자녀의 초등학교 4학년 당시 교우관계가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성적수준도 높게 나타났다. 가정의 경제적 형편은 자녀의 심리적 측면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경제적 여건이 좋은 다문화청소년일수록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의 초기값이 더 높은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는 경제적으로 열악한 다문화청소년의 경우 초기에 학업 및 학교생활, 심리적인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더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으로서, 초기에 다문화가정의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저소득 다문화가정 자녀들에 대한 초기의 집중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월평균 소득수준이 변화율에 미치는 효과는 모든 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가정의 경제적 형편이 지속적으로 다문화청소년의 발달 변화에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다문화청소년이 받은 정책지원경험이 이들의 발달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 결과, 문화지원경험과 물적지원경험이 일부 발달 요인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문화지원경험의 경우 성적에 대한 만족도와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지원경험을 많이 받았던 다문화청소년의 경우 초등학교 4학년 당시 성적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 중학교 시기에 성적에 대한 만족도가 감소하는 폭은 더 큰 것으로 드러났다. 삶의 만족도와 관련해서는 문화지원경험을 많이 받았던 청소년이 초등학교 4학년 당시의 만족도가 더 높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술한 결과를 종합해보면, 다문화청소년의 문화지원경험이 발달에 미치는 영향력이 발달 시기별로 상이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아울러 물적지원경험은 학습활동과 학교성적수준, 성적에 대한 만족도, 자아존중감 등 여러 요인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가령 책이나 학용품, 급식비 지원과 같은 물적지원을 많이 받았던 청소년의 경우 중학교 시기에 학습활동 수준의 감소 양상이 더디게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성적수준이 감소하는 경향도 더딘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와 유사하게 성적에 대한 만족도 요인에서도 물적지원을 많이 받았던 청소년일수

록 성적에 대한 만족도가 초등학교 시기에 감소하는 경향이 더디게 나타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물적지원은 이들의 학습 관련 요인들의 변화에 일정부분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다문화청소년의 물적지원경험은 학업적 측면뿐 아니라 심리적 측면에서도 유의미한 영향을 나타냈는데, 자아존중감의 초기값에 정적인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책지원경험 가운데 학습지원경험은 다문화청소년의 모든 발달 요인에 별다른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5>는 다문화청소년의 발달 추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심층 분석의 주요 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요인		독립변인		배경 변인			정책지원경험		
				성별	한국인 부모학력	월평균 소득수준	학습지원경험	문화지원경험	물적지원경험
학습활동	초기치	+	+						
	초등학교 변화율	-							
	중학교 변화율							+	
교우관계	초기치	+		+					
	일차 변화율	-							
	이차 변화율								
학교성적수준	초기치		+	+					
	선형 변화율							+	
성적에 대한 만족도	초기치		+				+		
	초등학교 변화율	-						+	
	중학교 변화율	+	-			-			
자이존중감	초기치	+		+				+	
	초등학교 변화율	-							
	중학교 변화율								
삶의 만족도	초기치			+			+		
	초등학교 변화율	-							
	중학교 변화율		-						
비행경험	초기치	-	-						
	선형 변화율	-							

제 V 장



결론

1. 요약
2. 제언

제 V 장

결 론

1. 요약

본 연구는 다문화청소년의 발달 추이를 종단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일반청소년과의 비교를 통해 객관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다문화청소년의 발달에 미치는 요인들을 탐색함으로써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분석 대상은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 2011년 1차년도부터 2016년 6차년도까지 참여한 다문화청소년 1,296명이며, 비교집단인 일반청소년은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다문화청소년의 발달 추이에 대한 기초 분석

다문화청소년의 전반적인 발달 영역에 대하여 변화 추이를 살펴본 결과, 각 발달 요인마다 다양한 변화 궤적을 나타내었다. 학업 및 학교생활적응, 심리적응, 사회적응, 문화적응 및 정체성, 신체발달 및 건강영역 등 각 영역의 주요 변인별로 상이한 발달 양상을 보였다. 또한 발달 변인의 초기값과 변화율의 분산은 대부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발달 과정에서 개인 간에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다문화청소년의 발달에 대한 일괄적인 해석보다는 개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아울러 상당수의 변인들의 변화 형태는 단순히 선형으로 증가하거나 감소한다기보다는 이차함수 곡선을 따르거나 학교급별로 서로 다른 궤적을 갖는 등 다문화청소년의 발달 과정이 좀 더 복잡다단한 양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6년 간의 다문화청소년의 발달을 추적한 결과로서, 이들의 발달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과정으로서 계속하여 변화하고 있으며 복잡한 형태를 지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각 변인별로 살펴보면, 다문화청소년의 학업과 관련해서는 공통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는데, 학교성적, 성적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졌으며, 중학교 시기에 학습활동 수준도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학업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교우관계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증가 속도는 점차 줄어드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심리적응과 관련해서는 학교급별로 뚜렷한 차이가 발견되었는데, 초등학교 시기에는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는 증가하였으나, 중학교 진학 이후에는 반대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중학교 시기에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적인 어려움이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사회적응 영역에서는 다문화청소년의 비행경험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진로의식의 경우 별다른 변화가 감지되지 않았다. 문화적응과 관련해서는 다문화청소년이 문화적응에서 받는 스트레스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 정체성은 초등학교 시기에서만 유의한 변화를 나타내었는데 한국인 정체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이중문화수용태도의 경우 초등학교 시기에는 증가하였으나, 중학교 진학 이후에는 반대로 감소하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다문화수용성은 계속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내었는데, 이차함수 곡선의 형태를 띠며 그 증가속도는 점차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다. 다음으로 다문화청소년의 신체 만족도는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문화청소년의 주관적 건강상태 변인도 증가하였으나 증가폭은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지속적인 추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2) 다문화청소년과 일반청소년 간 발달 추이 비교 분석

다문화청소년의 발달 추이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를 위해 일반청소년과의 비교 분석을 수행한 결과, 다수의 변인에서 두 집단 간의 변화 궤적에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학습활동, 교사관계, 다문화수용성, 건강 상태 등 각 요인의 발달 양상을 설명하는 모형이 다문화청소년과 일반청소년 간에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학습활동의 경우 다문화청소년은 학교급에 따라 변화 양상이 다른 분할함수변화모형을 따르며 중학교 시기에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일반청소년의 경우 U자 형태의 이차변화모형으로 학습활동 수준이 감소하다가 중학교 3학년에는 오히려 증가하는 궤적을 나타내었다. 그리하여 조사시점에 따라 학습활동의 수준이 높은 집단이 다르게 나타났으며, 특정 집단의 우위를 논의하기에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다문화수용성과 관련해서는 다문화청소년의 경우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그 증가폭이 감소하

는 이차함수 곡선의 형태를 나타내었으나, 일반청소년의 경우 초등학교 시기에 감소하다가 중학교 시기에는 증가하는 분할된 형태의 궤적을 나타내었다. 건강상태의 경우 다문화청소년은 주관적 건강상태가 증가하다가 그 증가속도가 줄어드는 완만한 역U자 형태인 반면, 일반청소년은 분할함수모형으로 초등학교 시기에 건강상태가 증가하다가 중학교 시기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문화청소년의 발달 과정이 일반청소년과 다른 궤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하는 것으로서 이들 집단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가 요구된다.

한편 일부 요인에서는 다문화청소년과 일반청소년 간의 발달 변화 모형이 동일한 결과를 보이기도 하였다. 가령 교우관계와 관련해서는 다문화청소년과 일반청소년 집단 모두 이차함수의 형태로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변화 모형뿐 아니라 초기치와 변화율도 모두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 다문화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교우관계 변화 궤적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삶의 만족도 변화에서는 다문화청소년과 일반청소년 모두 분할함수모형을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중학교 시기의 변화율에서 집단 간 차이가 발견되었다. 중학교 진학 이후 다문화청소년의 삶의 만족도가 일반청소년보다 더 빠르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문화청소년이 겪고 있는 심리·정서적 어려움이 무엇인지 보다 세밀하게 파악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3) 다문화청소년의 발달 추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다문화청소년의 발달 추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심층적으로 분석한 결과, 먼저 개인의 배경에 따라 다문화청소년의 발달 양상에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성별은 학습활동, 교우관계, 성적에 대한 만족도,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 비행경험 등 다양한 발달 요인에 영향을 주었는데, 남자 청소년과 여자 청소년이 발달 과정에서 서로 다른 변화 추이를 나타내었다. 특히 비행경험과 관련해서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보다 초기에 비행경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고, 비행경험의 증가 속도도 더 빠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가정배경으로서 한국인 부모의 학력은 초기 다문화청소년의 학업 관련 요인에 영향을 주었으나, 이러한 부모 학력이 학업의 변화에까지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지는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울러 월평균 소득수준도 비슷한 양상을 나타내었는데, 다문화가정 내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초기에 자녀들의 교우관계가 좋고, 학교성적수준이 높으며, 자아존중감이 높고,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경향을 나타내었으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다.

정책지원경험과 관련해서는 학습지원경험의 경우 다문화청소년의 발달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에 문화지원경험과 물적지원경험은 일부 유의미한 영향을 발견할 수 있었다. 문화지원경험을 많이 받은 청소년이 초기 성적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삶의 만족도도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책, 학용품 및 급식비 지원과 같은 물적지원경험은 학습활동과 학교성적수준, 성적에 대한 만족도 등 학업관련 변인의 변화율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었고, 심리적 측면에서 자아존중감의 초기치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제언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다문화청소년의 건강한 발달과 성장을 돕기 위한 정책 지원 방향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측면에서 제언하고자 한다. <표 V-1>은 본 연구의 주요 분석 결과와 그로부터 도출한 시사점 및 정책 지원 방향을 압축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표 V-1 주요 결과의 시사점 및 정책 지원 방향

연구의 주요 결과		시사점 및 정책 지원 방향	
1) 다문화 청소년의 발달 추이에 대한 기초 분석	• 각 발달 영역 요인에 따라 다양한 변화 궤적이 나타남.	• 다문화청소년의 발달에 대한 일률적인 해석은 지양될 필요가 있음.	객관적 근거에 기반한 다문화청소년 지원 정책 수립
	• 상당수의 요인들은 단순히 선형으로 증가, 감소하기보다 이차함수 곡선의 형태나 학교급별로 상이한 궤적을 갖는 등 복잡다단한 양상을 보임.	• 과정으로서 이들의 발달과 성장 과정에 대한 이해가 요구됨.	
	• 심리적응 등 일부 다문화청소년의 발달 요인에서 학교급별로 상반된 변화 양상이 나타남.	• 발달 시기를 고려한 정책 지원의 필요성을 시사함.	
	• 각 발달 과정에서 개인 간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됨.	• 다문화청소년의 발달 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종단조사와 분석이 요구됨.	
2) 다문화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 간 발달 추이 비교 분석	• 다수의 발달 요인에서 다문화청소년과 일반청소년 간 변화 궤적에 차이가 존재하였으나 특정 집단의 우위를 논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다문화청소년’이라는 특성만으로 발달과정에서 결핍된 존재로서 인식하는 기존의 고정관념은 재고될 필요가 있음.	통합적 관점의 다문화청소년 지원 방안 마련
	• 학습활동에서 다문화청소년이 열세에 놓여있다는 근거는 찾기 어려움. 교우관계에서도 다문화청소년과 일반청소년 간의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음.	•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모든 영역에서의 선별적인 지원 방식은 변화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 삶의 만족도의 경우 변화 모형은 동일하였으나, 다문화청소년이 일반청소년보다 중학교 시기에 삶의 만족도가 더 빠르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중학교 시기에 심리·정서적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다문화적 소양을 갖춘 전문적인 인적자원의 확보가 요구됨.	
3) 다문화 청소년의 발달 추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 개인의 배경에 따라 다문화청소년의 발달 추이에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다문화청소년의 개별 특성에 따라 각각의 필요와 요구에 부응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함.	개별 특성에 따른 다문화청소년 맞춤형 지원 방안 마련
	• 부모의 학력, 소득수준과 같은 배경 변인에 따라서 이들의 발달 변화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남.	• 기존의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기준을 토대로 통합적 관점에서의 지원이 요구됨.	
	• 정책지원경험과 관련해서 학습지원 경험은 별다른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음. 문화지원경험은 성적에 대한 만족도와 삶의 만족도에, 물질지원경험은 학습활동, 학교 성적수준, 성적에 대한 만족도,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기존 정책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내실화 방안이 요구됨. •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물질지원 확대가 필요함.	

1) 객관적 근거에 기반한 다문화청소년 지원 정책 수립

본 연구의 결과는 다문화청소년의 발달이 각 요인에 따라 다양한 변화 궤적을 가지며, 단순히 증가하거나 감소하기보다는 좀 더 복잡다단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문화청소년의 발달은 고정된 상태라기보다 계속해서 변화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요인에 따라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변화하기도 하였고, 학교급에 따라 상이한 변화 양상도 발견되었다. 또한 이러한 변화 양상에는 다문화청소년 집단 내에 개인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인의 배경변인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술한 결과는 **다문화청소년의 발달에 대한 일률적인 평가나 해석은 지양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결과적 양태보다는 **과정으로서 다문화청소년의 발달과 성장 과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요구되는 대목이다.

다음으로 다문화청소년의 발달 과정을 일반청소년과 비교한 결과에서는 특정 집단의 우위를 논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예컨대 학습활동의 경우 두 집단에서 서로 다른 궤적으로 변화하였으나, 다문화청소년이 더 열세에 놓여있다는 근거는 찾기 어려웠다. 교우관계에서는 다문화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변화에 어떠한 차이도 발견할 수 없었다. 물론 본 연구의 결과는 일부 비교 가능한 변인들에 대한 한정된 해석으로서, 청소년의 주관적인 응답에 의존하여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그 제한점을 노정하고 있다. 하지만 ‘다문화청소년’이라는 특성만으로 이들이 **결핍된 존재로서 발달 과정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기존의 편견과 고정관념은 재고될 필요성이 있으며**(김승경, 2013, p.162), 본 연구의 결과는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전술한 맥락에서 다문화청소년의 발달 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종단조사가 요구된다. 아울러 연구에서 도출된 다문화청소년의 발달 과정이 ‘다문화’라는 특성에 기인한 것인지 청소년의 일반적인 특성인지 엄밀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비교 집단으로서 일반청소년의 발달 과정에 대한 조사도 함께 구축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만하다. 축적된 자료를 토대로 다문화청소년의 발달 변화를 살펴보고, 그 변화의 원인들을 분석하고, 지원 정책의 효과는 어떠한지 면밀하게 파악되어야 한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의 ‘다문화가족 청소년’에 대한 지원 정책의 상당수는 이들 청소년이 낮은 적응 수준에 머물 것이라는 피상적인 이해와 고정관념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다(김승경, 2013, p. 161).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드러났듯이 **객관적인 자료에 기반하여 다문화청소년의 발달 과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며, 이들에 대한 우리

사회의 잘못된 편견과 고정관념을 되짚어보고, 이를 기초로 하여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적절한 정책 수립의 방향과 지원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 통합적 관점의 다문화청소년 지원 방안 마련

다문화청소년과 관련한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이들 청소년을 하나의 동질적인 집단으로서 부족하고 결핍된 측면에 초점을 둠으로써 다문화청소년이 일반청소년에 비해 열세에 놓여 있는 집단이라는 고정관념을 강화시킨 제한점을 지닌다(양계민, 김승경, 김운영, 2012, p. 402).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소득수준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다문화청소년의 발달 추이가 일반청소년보다 떨어지거나 부족하다는 근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다문화청소년과 일반청소년 집단 간의 변화 궤적을 설명하는 모형에 차이가 있었지만, 특정 집단의 우세나 열세를 논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단지 ‘다문화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이들을 취약계층으로 소외시키고, 일반청소년과 다른 집단으로 구분하여 분리하는 지원 방식의 패러다임은 변화될 필요가 있다(김승경, 2013, p. 162). 이와 같은 주장은 앞서 수행된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에서도 이미 제기된 바 있다. 다문화청소년의 상당수가 ‘다문화청소년’이라는 명목으로 분리된 정책 지원에 의해 자신의 정체성이 부각되는 것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으며,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에 근거한 선별적 지원 프로그램에 대하여 오히려 거부감을 지닐 수 있다고 지적된 바 있다(양계민, 박주희, 2013, p. 326). 더욱이 현재의 대상 중심적인 분리된 지원 방식은 일반청소년에 대한 역차별 논란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재고될 필요성이 있다. ‘다문화청소년’에게만 주어지는 지원 정책들이 여타 취약계층 청소년에게는 상대적인 박탈감을 갖게 할 수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사회 갈등의 요소로서 다문화청소년의 사회통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양계민, 김승경, 김운영, 2012, p. 405).

이러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지원 정책과 프로그램의 상당수는 선별적 지원을 따르고 있다. 일반청소년과의 통합프로그램이 일정 부분 증가하기도 하였으나, ‘다문화청소년’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실시되는 프로그램들이 대다수에 해당한다. 다문화청소년의 고유한 특성에 기인하여 취약한 부분에서는 일부 분리된 지원 방식이 효과적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이 반드시 분리된 지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일반청소년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 타당할 것이다(김승경, 2013. p.162; 양계민 외, 2016, p. 344). 예컨대 다문화청소년이

발달 과정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이 '다문화' 특성에 기인한다기보다는 빈곤과 같은 경제적 어려움이 더 크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권순희, 2007). 다문화가정의 상당수는 저소득층에 속할 가능성이 높는데, 실제로 통계청에서 발표한 연간 가구동향(통계청, 2012; 통계청, 2017)을 토대로 본 연구에 참여한 가구의 소득수준을 살펴보면, 2011년에는 다문화가정의 89.4%가 전체 소득 1, 2분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6년에는 다문화가정의 80.9%가 전체 소득 1, 2분위에 해당하였는데, 이전에 비해 다문화가정의 경제적 여건이 조금 나아진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많은 다문화가정이 한국의 평균 소득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어려운 여건임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에서 가정의 소득수준은 다문화청소년의 초기 학교성적뿐 아니라 교우관계,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와 같은 심리적인 측면에서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다문화가정에서 빈곤으로 파생되는 어려움들은 일반적인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정책과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즉, 기존의 다양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기준을 토대로 일반적 특성에 따라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지원 정책이 마련될 필요성이 있다.

3) 개별 특성에 따른 다문화청소년 맞춤형 지원 방안 마련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다문화청소년의 발달 변화에서 개인 간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성별이나 부모의 학력, 소득수준과 같은 배경 변인에 따라서도 이들의 발달 변화가 상이한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는 다문화청소년을 하나의 동질적인 집단으로서 이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저마다 서로 다른 특성을 지니고 발달 과정에서 다양한 변화 궤적을 나타낼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전술한 맥락에서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정책 지원은 수혜자의 필요와 요구에 부응한 맞춤형 지원 방안이 되어야 할 것이다(양계민, 박주희, 2013, p. 329). 예컨대, 본 연구의 분석결과 성별에 따라 발달 변화 궤적에 많은 차이를 나타내었는데, 특히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보다 비행을 저지를 확률이 더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일반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비행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발견할 수 있는데(이종원, 이순래, 정윤미, 2016, p. 183), 대상별 특성에 부합하여 비행예방 교육 및 대응방안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부모의 학력이나 가정의 소득수준이 낮은 다문화청소년의 경우 초기에 여러 발달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처럼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청소년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필요에 부합한 지원 정책들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서 물질지원경험은 학습활동, 학교성적수준, 성적에 대한 만족도, 자아존중감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청소년에게 이러한 학용품이나 급식비 지원과 같은 물질지원이 일정 부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지원 정책은 수혜자의 특성 외에도 이들의 발달 시기를 함께 고려하여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일부 다문화청소년의 발달 요인에서 초등학교 시기와 중학교 시기에 상반된 변화 양상을 지니는 것을 보여주었다. 심리적 측면에서 이러한 경향성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초등학교 시기에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가 증가하다가 중학교 진학 이후에는 반대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삶의 만족도의 경우 이러한 중학교 시기의 감소폭이 일반청소년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나, 중학교 시기에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 그간 다문화청소년 대상 정책을 살펴보면, 대다수 언어교육과 일회성 캠프, 멘토링, 학습지원에 국한되어 있으며, 심리·정서적 지원은 매우 미흡한 수준이었다(양계민, 신현옥, 박주희, 2014, p. 405-406). 따라서 중학교 시기에 다문화청소년이 경험하는 심리적 문제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에게 집중적인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방안이 고려된다. 한편 이중문화환경에 노출되는 다문화청소년의 경우 일반청소년이 청소년기에 요구되는 과업 이외에도 문화적응이나 정체성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김승경, 2013, p. 163).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서도 다문화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가 초등학교 시기에는 증가하였으나 중학교에 진학한 이후에는 감소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상담지원은 일반적인 청소년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다문화청소년의 고유한 특성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다문화적 소양을 갖춘 전문적인 인적자원의 확보가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존의 교사 및 청소년지도사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다문화적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양계민, 신현옥, 박주희, 2014, p. 410-411). 그리고 이러한 다문화청소년 전문가들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이들을 양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도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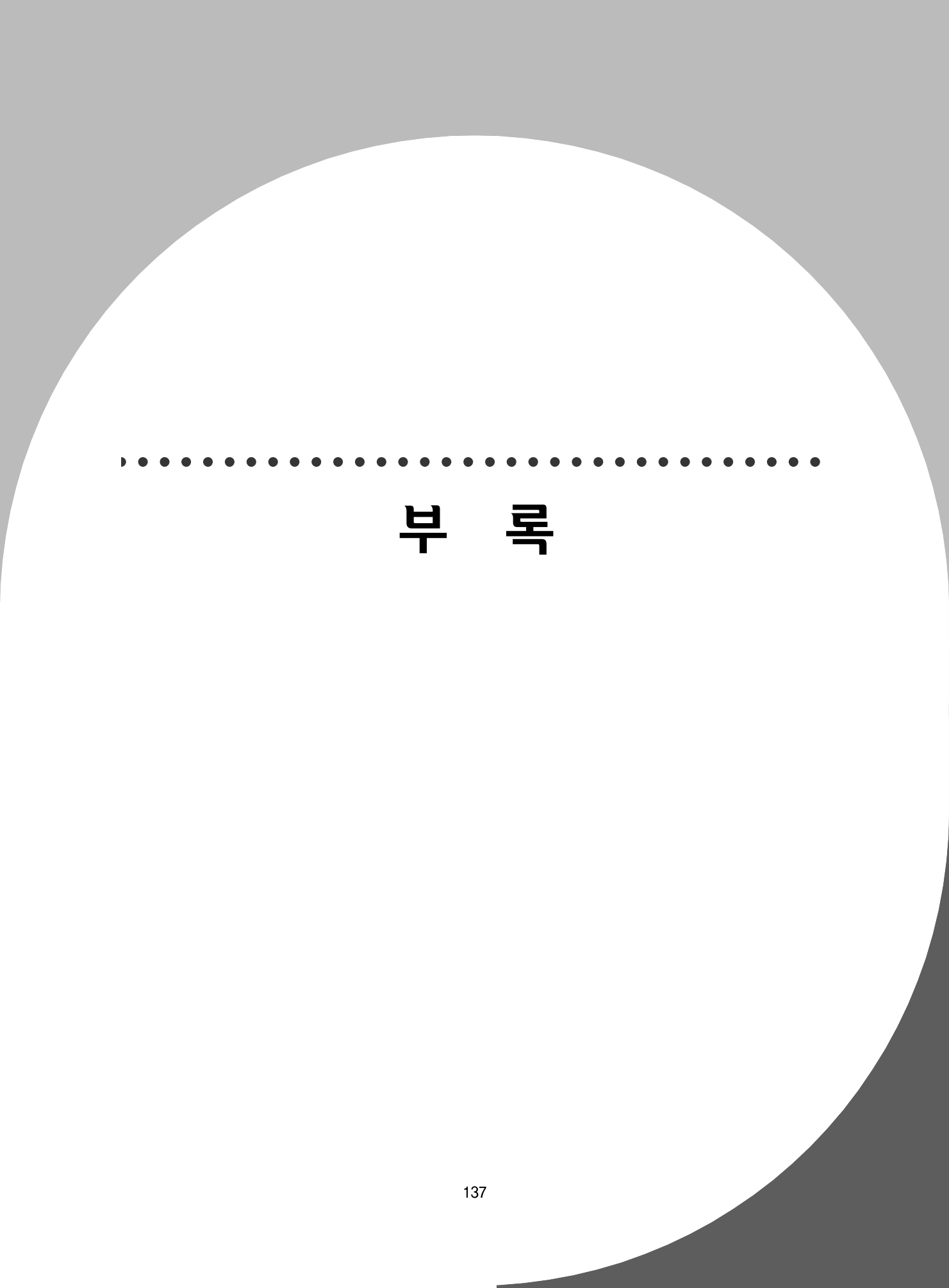
참 고 문 헌

참 고 문 헌

- 교육부 보도자료 (2017.8.31). 2017년 교육기본통계. <http://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294&boardSeq=71941&lev=0&searchType=S&statusYN=C&page=2&s=moe&m=0503&opType=N>에서 2017.10.17. 인출.
- 권순희 (2007). 다문화 가정 자녀의 상담 지도 사례. **국어교육학연구**, 29, 127-174.
- 김갑성 (2008). 한국 내 다문화가정의 자녀교육 실태 조사 연구. **청소년문화포럼**, 18, 58-95.
- 김순규 (2011). 다문화가정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 **청소년학연구**, 18(3), 247-272.
- 김승경 (2013).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연구 I: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연구보고 13-R12-1).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주환, 김민규, 홍세희 (2009). 구조방정식모형으로 논문 쓰기.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김현식, 김두섭 (2014). 다문화가족 청소년과 자살행위. **한국사회학**, 48(2), 35-66.
- 김홍주, 박길태 (2010).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생활실태와 복지욕구 특징. **사회과학연구**, 49(1), 93-128.
- 배은주 (2006). 차별과 동화: 초등학교 이주노동자 자녀들의 학교생활. **교육비평**, 22, 214-234.
- 손수경, 이현정, 홍세희 (2017). 학교 학습활동과 교우관계가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분할함수 잠재성장모형을 이용한 종단관계 분석. **한국청소년연구**, 28(3), 57-88.
- 서현, 이승은 (2007). 농촌지역의 국제결혼 가정 자녀가 경험하는 어려움에 관한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12(4), 25-47.
- 양계민, 김승경 (2010).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발달과정 추적을 위한 종단연구 I. (연구보고 10-R12).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양계민, 박주희 (2013).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I: 총괄보고서(연구보

- 고 13-R12).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양계민, 신현옥, 박주희 (2014).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연구 II: 총괄보고서 (연구보고서 14-R16).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양계민, 윤민중, 신현옥, 최홍일 (2016).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IV: 총괄보고서(연구보고 16-R13).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오성배 (2005). 코시안(Kosian)아동의 성장과 환경에 관한 사례 연구. *한국교육*, 32(3), 61-83.
- 이애련 (2015). 한국의 다문화가정자녀의 학교부적응 및 폭력문제 해결방안에 일본의 다문화정책 적용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 9(2), 111-142.
- 이영주 (2007). 국제 결혼한 여성의 자녀에 대한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보호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2(2), 83-105.
- 이종원, 이순래, 정윤미 (2016).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Ⅶ: 기초분석보고서 I -청소년 비행의 실태와 추이 분석: 현실비행과 사이버비행(연구보고 16-R17-1).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통계청 보도자료 (2012.2.24.). 2011년 4/4분기 및 연간 가계동향.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2/4/3/index.board?bmode=read&bSeq=&aSeq=253813&pageNo=3&rowNum=10&navCount=10&currPg=&sTarget=title&sTxt=에서 2017.8.29. 인출.
- 통계청 보도자료 (2017.2.24.). 2016년 4/4분기 및 연간 가계동향.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2/4/3/index.board?bmode=read&bSeq=&aSeq=359260&pageNo=1&rowNum=10&navCount=10&currPg=&sTarget=title&sTxt=에서 2017.9.19. 인출.
- 한금섭 (2003). 이주노동자 자녀 교육의 문제. *월간복지동향*, 53, 17-19.
- 홍세희 (2000). 구조 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임상심리학회*, 19(1), 161-177.
- Arbuckle, J. L. (1996). Full information estimation in the presence of incomplete data. In G. A. Marcoulides, & R. E. Schumacker (Eds.), *Advanc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ssues and techniques* (pp. 243-277).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Browne, M. W., & Cudeck, R. (1993).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Sociological Methods & Research*, 21(2), 230-258.
- Cheung, G. W., & Rensvold, R. B. (2002). Evaluating goodness-of-fit indexes for testing measurement invarianc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9(2), 233-255.
- Duncan, T. E. & Duncan, S. C. (2004). An introduction to latent growth curve modeling. *Behavior therapy*, 35(2), 333-363.
- Hoe, S. L. (2008). Issues and procedures in adop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echnique, *Journal of Applied Quantitative Methods*, 3(1), 76-83.
- Kline, R. B. (2010).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3rd ed.)*. New York: Guilford Press.



부 록

부 록

부록 1. 기술통계치(다문화청소년)

변인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학습활동(초4)	1.20	4.00	2.93	0.50	-0.13	0.31
학습활동(초5)	1.00	4.00	2.93	0.48	-0.16	0.60
학습적응(초6)	1.00	4.00	2.96	0.49	-0.08	0.28
학습적응(중1)	1.00	4.00	2.88	0.53	-0.06	0.17
학습적응(중2)	1.00	4.00	2.87	0.52	0.01	0.10
학습적응(중3)	1.00	4.00	2.88	0.51	-0.11	0.38
교사관계(초4)	1.00	4.00	3.10	0.61	-0.45	0.49
교사관계(초5)	1.00	4.00	3.06	0.61	-0.26	0.10
교사관계(초6)	1.00	4.00	3.09	0.60	-0.25	0.16
교사관계(중1)	1.00	4.00	3.11	0.56	-0.21	0.29
교사관계(중2)	1.00	4.00	3.09	0.56	-0.19	0.24
교사관계(중3)	1.00	4.00	3.10	0.56	-0.30	0.62
교우관계(초4)	1.00	4.00	3.04	0.55	-0.52	1.15
교우관계(초5)	1.00	4.00	3.09	0.52	-0.38	1.10
교우관계(초6)	1.00	4.00	3.12	0.48	-0.12	0.64
교우관계(중1)	1.00	4.00	3.17	0.47	-0.18	0.77
교우관계(중2)	1.00	4.00	3.18	0.44	-0.02	0.65
교우관계(중3)	1.00	4.00	3.16	0.42	0.11	0.74
학교성적수준(초4)	1.00	5.00	3.39	0.68	-0.12	0.39
학교성적수준(초5)	1.00	5.00	3.41	0.69	0.08	-0.19
학교성적수준(초6)	1.00	5.00	3.42	0.71	0.01	0.17

변인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학교성적수준(중1)	1.00	5.00	3.13	0.72	0.09	0.39
학교성적수준(중2)	1.00	5.00	3.09	0.74	0.13	0.21
학교성적수준(중3)	1.00	5.00	3.08	0.75	-0.02	0.30
성적에 대한 만족도(초4)	1.00	4.00	2.84	0.71	-0.26	-0.05
성적에 대한 만족도(초5)	1.00	4.00	2.79	0.76	-0.21	-0.29
성적에 대한 만족도(초6)	1.00	4.00	2.79	0.77	-0.15	-0.41
성적에 대한 만족도(중1)	1.00	4.00	2.53	0.77	0.08	-0.39
성적에 대한 만족도(중2)	1.00	4.00	2.41	0.77	0.08	-0.37
성적에 대한 만족도(중3)	1.00	4.00	2.34	0.73	0.17	-0.20
자아존중감(초4)	1.00	4.00	3.14	0.55	-0.34	0.12
자아존중감(초5)	1.00	4.00	3.17	0.55	-0.27	-0.11
자아존중감(초6)	1.25	4.00	3.22	0.53	-0.14	-0.59
자아존중감(중1)	1.25	4.00	3.20	0.53	-0.11	-0.46
자아존중감(중2)	1.00	4.00	3.18	0.53	-0.10	-0.30
자아존중감(중3)	1.00	4.00	3.14	0.55	-0.11	-0.00
삶의 만족도(초4)	1.00	4.00	3.23	0.59	-0.55	0.45
삶의 만족도(초5)	1.00	4.00	3.25	0.61	-0.58	0.56
삶의 만족도(초6)	1.00	4.00	3.30	0.57	-0.45	0.15
삶의 만족도(중1)	1.00	4.00	3.22	0.59	-0.35	0.02
삶의 만족도(중2)	1.00	4.00	3.15	0.62	-0.33	0.10
삶의 만족도(중3)	1.00	4.00	3.05	0.59	-0.10	0.12
우울(초5)	1.00	4.00	1.60	0.52	0.82	0.76
우울(초6)	1.00	3.90	1.59	0.52	0.67	-0.04
우울(중1)	1.00	3.70	1.64	0.53	0.52	-0.49
우울(중2)	1.00	4.00	1.69	0.53	0.47	-0.17
우울(중3)	1.00	4.00	1.72	0.54	0.39	-0.25
사회적 위축(초5)	1.00	4.00	2.20	0.73	-0.04	-0.54
사회적 위축(초6)	1.00	4.00	2.23	0.72	-0.10	-0.62
사회적 위축(중1)	1.00	4.00	2.26	0.74	-0.16	-0.63

변인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사회적 위축(중2)	1.00	4.00	2.35	0.73	-0.21	-0.50
사회적 위축(중3)	1.00	4.00	2.33	0.73	-0.14	-0.50
비행경험(중1)	0.00	1.00	0.09	0.29	2.80	5.84
비행경험(중2)	0.00	1.00	0.10	0.30	2.69	5.26
비행경험(중3)	0.00	1.00	0.12	0.32	2.37	3.62
진로의식(중1)	1.10	4.00	2.62	0.55	0.42	-0.02
진로의식(중2)	1.20	4.00	2.56	0.56	0.63	0.17
진로의식(중3)	1.00	4.00	2.59	0.57	0.47	0.06
한국인 정체성(초4)	1.00	4.00	2.65	0.67	-0.34	-0.02
한국인 정체성(초5)	1.00	4.00	2.71	0.64	-0.35	0.29
한국인 정체성(초6)	1.00	4.00	2.80	0.64	-0.37	0.39
한국인 정체성(중1)	1.00	4.00	2.78	0.66	-0.45	0.50
한국인 정체성(중2)	1.00	4.00	2.78	0.65	-0.49	0.64
한국인 정체성(중3)	1.00	4.00	2.82	0.64	-0.43	0.58
다문화수용성(초5)	1.00	4.00	2.93	0.57	-0.21	0.69
다문화수용성(초6)	1.00	4.00	3.02	0.54	0.03	0.54
다문화수용성(중1)	1.00	4.00	3.08	0.55	-0.33	1.21
다문화수용성(중2)	1.00	4.00	3.15	0.55	-0.17	0.52
다문화수용성(중3)	1.00	4.00	3.15	0.55	-0.16	0.52
이중문화수용태도(초4)	1.00	4.00	2.90	0.41	-0.37	1.69
이중문화수용태도(초5)	1.20	4.00	2.90	0.40	0.10	0.78
이중문화수용태도(초6)	1.50	4.00	2.96	0.38	0.22	0.49
이중문화수용태도(중1)	1.30	4.00	2.92	0.39	0.07	0.82
이중문화수용태도(중2)	1.60	4.00	2.92	0.39	0.27	0.36
이중문화수용태도(중3)	1.00	4.00	2.93	0.39	-0.04	0.99
문화적응스트레스(초4)	1.00	2.90	1.45	0.36	1.20	1.14
문화적응스트레스(초5)	1.00	3.40	1.44	0.36	1.37	2.12
문화적응스트레스(초6)	1.00	3.20	1.43	0.37	1.42	2.14
문화적응스트레스(중1)	1.00	2.60	1.38	0.31	1.25	1.20

변인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문화적응스트레스(중2)	1.00	2.90	1.41	0.34	1.24	1.24
문화적응스트레스(중3)	1.00	3.70	1.40	0.32	1.44	3.10
건강상태(초4)	1.00	4.00	3.33	0.62	-0.74	1.33
건강상태(초5)	1.00	4.00	3.37	0.62	-0.69	0.76
건강상태(초6)	1.00	4.00	3.38	0.63	-0.85	1.38
건강상태(중1)	1.00	4.00	3.42	0.61	-0.78	0.86
건강상태(중2)	1.00	4.00	3.37	0.66	-0.86	0.95
건강상태(중3)	1.00	4.00	3.39	0.60	-0.57	0.24
신체만족도(초4)	1.17	4.00	2.93	0.50	-0.25	0.09
신체만족도(초5)	1.17	4.00	2.95	0.50	-0.16	-0.10
신체만족도(초6)	1.00	4.00	3.00	0.49	-0.20	0.41
신체만족도(중1)	1.00	4.00	3.00	0.50	-0.22	0.16
신체만족도(중2)	1.17	4.00	3.01	0.50	-0.06	0.07
신체만족도(중3)	1.33	4.00	3.03	0.50	-0.09	-0.16
성별	0.00	1.00	0.51	0.50	-0.04	-2.00
부모학력	1.00	8.00	3.91	1.09	0.35	0.58
월평균 소득	1.00	5.00	1.55	0.89	1.82	2.83
학습지원경험	0.00	1.00	0.26	0.25	0.84	0.14
문화지원경험	0.00	1.00	0.20	0.20	1.00	1.13
물적지원경험	0.00	1.00	0.12	0.19	1.81	3.21

부록 2. 기술통계치(일반청소년)

변인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학습활동(초4)	1.00	4.00	3.03	0.50	-0.45	0.73
학습활동(초5)	1.00	4.00	2.98	0.52	-0.46	0.71
학습적응(초6)	1.00	4.00	2.93	0.52	-0.33	0.58
학습적응(중1)	1.00	4.00	2.86	0.56	-0.14	0.28
학습적응(중2)	1.00	4.00	2.85	0.52	-0.04	0.43
학습적응(중3)	1.00	4.00	2.87	0.54	-0.09	0.49
교사관계(초4)	1.00	4.00	3.15	0.65	-0.66	0.16
교사관계(초5)	1.00	4.00	3.12	0.65	-0.52	0.02
교사관계(초6)	1.00	4.00	3.02	0.71	-0.51	-0.02
교사관계(중1)	1.00	4.00	2.92	0.64	-0.24	0.07
교사관계(중2)	1.00	4.00	2.94	0.62	-0.21	0.11
교사관계(중3)	1.00	4.00	3.04	0.59	-0.17	0.13
교우관계(초4)	1.00	4.00	3.03	0.54	-0.49	0.19
교우관계(초5)	1.00	4.00	3.10	0.53	-0.48	0.42
교우관계(초6)	1.00	4.00	3.15	0.51	-0.46	0.75
교우관계(중1)	1.00	4.00	3.14	0.47	-0.10	0.79
교우관계(중2)	1.50	4.00	3.16	0.44	0.24	-0.13
교우관계(중3)	1.00	4.00	3.17	0.43	0.13	0.46
삶의 만족도(초4)	1.00	4.00	3.21	0.70	-0.83	0.33
삶의 만족도(초5)	1.00	4.00	3.25	0.63	-0.62	0.22
삶의 만족도(초6)	1.00	4.00	3.24	0.66	-0.62	0.11
삶의 만족도(중1)	1.00	4.00	3.15	0.63	-0.37	-0.04
삶의 만족도(중2)	1.00	4.00	3.04	0.59	-0.12	0.03
삶의 만족도(중3)	1.00	4.00	3.06	0.61	-0.19	-0.03
다문화수용성(초5)	1.00	4.00	2.90	0.63	-0.02	-0.23
다문화수용성(초6)	1.00	4.00	2.83	0.66	-0.13	0.17
다문화수용성(중1)	1.00	4.00	2.95	0.58	0.04	0.07
다문화수용성(중2)	1.00	4.00	3.04	0.57	0.03	-0.18

변인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다문화수용성(중3)	1.00	4.00	3.08	0.58	-0.03	-0.24
건강상태(초4)	1.00	4.00	3.30	0.62	-0.51	0.43
건강상태(초5)	1.00	4.00	3.33	0.60	-0.49	0.45
건강상태(초6)	1.00	4.00	3.37	0.61	-0.54	0.19
건강상태(중1)	1.00	4.00	3.27	0.55	-0.06	-0.02
건강상태(중2)	1.00	4.00	3.32	0.56	-0.18	-0.23
건강상태(중3)	1.00	4.00	3.27	0.60	-0.38	0.48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analyze multicultural adolescents' development trends longitudinally and have an objective view on multicultural adolescents by comparing them to non-multicultural adolescents. In addition, it attempted to set a direction for developing related policies by thoroughly exploring the factors affecting such trends. For this, based on the data from longitudinal survey of multicultural youth from 2011 to 2016, multicultural adolescents' development trends were systematically analyzed, using latent growth modeling.

The results found the followings: First, multicultural adolescents had diverse change trajectories depending on each development factor, as it didn't just increase or decrease linearly. Instead, it changed in a more complicated pattern. Difficulty in studying further increased over time. While the level of peer relationship is increasing, the rate is gradually decreased. In terms of psychological adjustment, different change patterns appeared by school level. In addition, juvenile delinquency experience increased. Cultural adjustment stress continuously declined. Bicultural acceptance attitude increased during elementary school and then started to decline by entering middle school. Physical satisfaction increased, and subjective health conditions improved as well. However, the rate is gradually decreased. In addition, these multicultural adolescents' development patterns varied among the students. Second, a difference in the trajectory of change was found between multicultural and non-multicultural adolescents in some development elements. However, it was difficult to identify any superiority or inferiority in a certain group. In peer relationship, same change patterns were observed between general and multicultural adolescents. Life satisfaction after entering middle school decreased faster in multicultural adolescents than in non-multicultural adolescents. Third, there was a difference in multicultural adolescents' development trends by background variables such as gender, parents' education and income level. Regarding policy support, no particular influence was observed in learning support. However, cultural and physical supports had a partial influence on such development factors.

Based on the above research results, this study proposes the followings: objective

ground-based multicultural adolescents support policy, development, support plan from the integrated perspective, custom-made support plan according to individual characteristics.

Keywords: Multicultural Adolescents, Longitudinal Study, Development,
Latent Growth Modeling

2017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행물 안내

기관고유과제

- 17-R01 청소년의 지역사회 참여 모형개발 연구 / 황여정
- 17-R02 청소년보호정책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 김지연 · 정소연
- 17-R02-1 청소년보호정책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 기초분석보고서 / 김지연 · 정소연
- 17-R03 아동 · 청소년을 위한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 : 기업-아동 · 청소년 NPO-정부의 파트너십 구축 / 임지연 · 김한별
- 17-R04 20대 청년들의 사회활동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 김정숙 · 강영배
- 17-R05 세제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청소년활동 활성화 방안 / 황세영 · 최정원
- 17-R06 청소년 사이버일탈 유형별 대책 연구 / 배상률 · 박남수 · 백강희
- 17-R07 청소년수련시설의 공공성 제고를 통한 운영 활성화 지원방안 연구 / 김형주 · 김정주 · 김혁진
- 17-R08 아동 · 청소년 · 가족 보호 통합게이트웨이 구축 · 운영 모형 개발 연구 / 서정아
- 17-R09 청년 사회 · 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Ⅱ / 김기현 · 이윤주 · 유설희
- 17-R09-1 청년 사회 · 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Ⅱ - 기초분석 보고서 - / 김기현 · 이윤주 · 유설희
- 17-R10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Ⅳ / 임희진 · 문호영 · 조남익
- 17-R10-1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Ⅳ - 기초분석 보고서 / 임희진 · 문호영
- 17-R11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조사 및 조성사업 연구Ⅴ / 오해섭 · 최인재 · 염유식 · 김세광
- 17-R12 다문화 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Ⅴ - 총괄보고서 - / 양계민 · 강경균
- 17-R12-1 다문화 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Ⅴ - 다문화청소년의 발달 추이 분석 - / 연보라
- 17-R12-2 다문화 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Ⅴ - 정책제언 - / 양계민
- 17-R13 미래인재 개발 전략으로서 재외동포 청소년 지원방안 연구Ⅲ / 김경준 · 정은주
- 17-R14 학교 밖 청소년 이행경로에 따른 맞춤형 대책 연구Ⅱ / 윤철경 · 성윤숙 · 최홍일 · 유성렬 · 김강호
- 17-R15 아동 · 청소년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아동 · 청소년인권실태 2017 : 총괄보고서 / 김영지 · 김희진 · 이민희 · 김진호
- 17-R15-1 아동 · 청소년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아동 · 청소년인권실태 2017 : 심화분석보고서 -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관련 정보접근성과 인권의식 / 김진석
- 17-R15-2 아동 · 청소년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아동 · 청소년인권실태 2017 통계 / 김영지 · 김희진
- 17-R16 한국아동 · 청소년패널조사Ⅷ : 사업보고서 / 하형석 · 최용환 · 정은진 · 정윤미 · 한지형
- 17-R16-1 한국아동 · 청소년패널조사Ⅷ : 연구성과분석보고서 / 최용환 · 박상현 · 한지형
- 17-R16-2 한국아동 · 청소년패널조사Ⅷ : 데이터분석보고서 - 청소년 수면시간의 긍정적 효과 - / 정은진 · 하형석 · 고강혁 · 정윤미
- 17-R16-3 한국아동 · 청소년패널조사Ⅷ : 한국청소년패널조사 2018 기초연구 / 하형석 · 정은진 · 최승주

협동연구과제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7-39-01 청소년 역량차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Ⅳ : IEA ICCS 2016 - 총괄보고서 - / 장근영·성은모·이경상·진성희·최효선·김균희 (자체번호 17-R17)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7-39-02 청소년 역량차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Ⅳ : IEA ICCS 2016 - 초·중·고등학생용 기초통계보고서 - / 장근영·성은모·이경상·진성희·최효선·김균희 (자체번호 17-R17-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7-39-03 청소년 역량차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Ⅳ : IEA ICCS 2016 - 대학생용 기초통계보고서 - / 장근영·성은모·이경상·진성희·최효선·김균희 (자체번호 17-R17-2)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7-39-04 청소년 역량차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Ⅳ : IEA ICCS 2016 - 사회참여역량 분석 - / 김태준·홍영란·김홍민 (자체번호 17-R17-3)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7-39-05 IEA ICCS 2016 조사틀(Assessment framework) / Schulz, W·Airley, J·Losito, B·Agrusti, G (자체번호 17-R17-4)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7-40-01 아시아 청소년 진로체험활동 국제비교 연구Ⅱ / 김현철·백혜정·이지연 (자체번호 17-R18)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7-40-01 아시아 청소년 진로체험활동 국제비교 연구Ⅱ - 한국과 일본의 청소년 진로체험활동 운영사례집 / 김현철·백혜정 (자체번호 17-R18-1)

연구개발적립금

- 17-R19 청소년의 노동기본권 보장방안연구(2018년 4월 발간) / 황진구·유민상
- 17-R20 인구절벽 현상과 청소년정책의 과제(2018년 4월 발간) / 이유진·김영한·윤옥경

수시과제

- 17-R21 고등학생들의 정치참여욕구 및 실태 연구 / 이창호
- 17-R22 지방자치단체 청년참여기구 실태 및 체계 연구 / 조진우·이윤주
- 17-R23 인터넷사회의 부모와 자녀관계에 관한 한·중·일 비교 : 한국사례분석 / 이창호·김기현
- 17-R24 현장적용 제고를 위한 자유학기제 학교-청소년시설의 협업지침 분석 / 임지연
- 17-R25 지역별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 특성 연구 / 이윤주
- 17-R26 청소년 분야 SDGs 이행을 위한 국내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 방안 연구 / 황세영·김기현
- 17-R27 청소년동반자 활성화 방안 연구 / 장근영·진은설
- 17-R28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사업 실태조사 연구 / 황진구

수 탁 과 제

- 17-R29 2017년 4개국(한일중미) 청소년 의식조사 / 김기현
- 17-R30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잰버리 운영계획 수립연구 / 장근영 · 황진구
- 17-R31 2016 학교 내 대안교실 우수사례집 /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 17-R32 2016년도 청소년인터넷게임 건전이용제도 관련 평가 / 배상률 · 김동일 · 유홍식
- 17-R33 화랑마을 운영관리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 김영한 · 서정아 · 임지연 · 좌동훈 · 한상철 · 신상구 · 박시현
- 17-R34 다문화 교육 종합 발전방안 / 양계민
- 17-R35 SDGs 시대 청소년 역량 증진을 위한 환경교육 활동 개발 및 활용 방안 / 황세영 · 이윤주 · 조성화
- 17-R35-1 SDGs 시대 청소년 역량 증진을 위한 환경교육 활동 개발 및 활용 방안 - 세미나 자료집 / 황세영 · 이윤주 · 조성화
- 17-R35-2 SDGs 시대 청소년 역량 증진을 위한 환경교육 활동 개발 및 활용 방안 - 국내외 사례요약집 / 황세영 · 이윤주 · 조성화
- 17-R35-3 SDGs 시대 청소년 역량 증진을 위한 환경교육 활동 개발 및 활용 방안 - 정책리포트 / 황세영 · 이윤주 · 조성화
- 17-R36 지식협력단지 초 · 중학생 기업가정신 교육 모듈 교재 개발 / 강경균
- 17-R36-1 (초등학생) 기업가처럼 생각하기(학생용 워크북) / 강경균
- 17-R36-2 (초등학생) 기업가처럼 생각하기(교사용 매뉴얼) / 강경균
- 17-R36-3 (중학생) 기업가처럼 생각하기(학생용 워크북) / 강경균
- 17-R36-4 (중학생) 기업가처럼 생각하기(교사용 매뉴얼) / 강경균
- 17-R37 청소년의 디지털 역기능 예방 교육 프로그램 효과성 연구-초 · 중 · 고등학생과 학교밖 청소년을 중심으로 / 성윤숙 · 김경준 · 최정원
- 17-R37-1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매뉴얼 / 정제영 · 김성기 · 선미숙
- 17-R37-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매뉴얼 개발 연구 / 정제영 · 김성기 · 선미숙
- 17-R37-3 국내외 청소년 사이버 범죄 실태와 예방 대책 연구 / 안동근 · 박병식 · 김영욱
- 17-R38 청년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청년 정책 방향과 과제 : 2017년 청년정책포럼 / 김기현 · 한지형
- 17-R39 청년정책 추진체계 발전방안 연구 / 이윤주 · 김기현 · 하형식
- 17-R40 2017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 백혜정 · 임희진 · 김현철 · 유성렬
- 17-R41 2017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 김경준 · 최인재 · 정은주 · 김영지
- 17-R42 청소년자립지원관 운영 모형 개발 연구 / 김지연 · 백혜정
- 17-R43 제5 · 6차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상황 연구 / 김영지 · 이윤주 · 유설희
- 17-R44 시립청소년시설 적정 위탁운영비 배분을 위한 모형개발 연구 / 최용환 · 이재완 · 박정배
- 17-R45 지역아동센터 아동패널조사2017 / 김희진 · 정윤미
- 17-R46 중국인 유학생의 한국사회 · 문화적응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 배상률 · 이경상 · 이창호
- 17-R47 청소년 국제교류사업 성과측정 체계연구 / 황세영 · 강경균
- 17-R48 청소년용 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 성은모 · 이성혜
- 17-R49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매뉴얼 개발 연구 / 김지연 · 유민상 · 이상정
- 17-R49-1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매뉴얼 개발 연구 -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매뉴얼 - / 김지연 · 유민상 · 이상정
- 17-R49-2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매뉴얼 개발 연구 - 기초분석보고서 / 김지연 · 유민상 · 이상정

- 17-R50 2017 청소년활동 실태 및 요구조사 / 이윤주·하형석·한지형
- 17-R51 국립강진청소년문화예술센터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 / 김영한·이유진·정은진·강동영
- 17-R52 2017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연구사업 / 서정아·연보라
- 17-R53 청소년 자기주도형 봉사활동 시범사업 운영/ 장근영
- 17-R54 시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기능강화를 위한 평가체계 개편 연구 / 김형주·김정주
- 17-R55 2017년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기관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 17-R55-1 학업중단 숙려제 특화 프로그램집 /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 17-R56 2017년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학교 컨설팅 결과보고서 /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 17-S01 선거연령 만 18세 하향의 의미 및 과제 (2/9)
- 17-S02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디지털 역기능 예방 프로그램 교육 심화 워크숍 (2/13~14)
- 17-S03 제7차 청년정책포럼 (2/23)
- 17-S04 제8차 청년정책포럼 (4/20)
- 17-S05 유엔아동권리협약 5·6차 국가보고서 공청회 (3/7)
- 17-S06 2016년도 고유과제 연구성과발표회 (3/31)
- 17-S07 2017년 학업중단예방을 위한 학교담당자 연수 : 제1권역 (4/4)
- 17-S08 2017년 학업중단예방을 위한 학교담당자 연수 : 제2권역 (4/7)
- 17-S09 2017년 학업중단예방을 위한 학교담당자 연수 : 제3권역 (4/11)
- 17-S10 2017년 학업중단예방을 위한 학교담당자 연수 : 제4권역 (4/12)
- 17-S11 2017년 학업중단예방을 위한 학교관리자 연수 : 제1권역 (4/14)
- 17-S12 2017년 학업중단예방을 위한 학교관리자 연수 : 제2권역 (4/18)
- 17-S13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디지털 역기능 예방 프로그램 교육 2차 심화 워크숍 (3/31)
- 17-S14 2017년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학교 컨설팅 위원 워크숍 (4/21)
- 17-S15 2017년 학교 내 대안교실 (4/13)
- 17-S16 2017년 학교 내 대안교실 담당자 기초 연수(1권역) (4/20)
- 17-S17 2017년 학교 내 대안교실 담당자 기초 연수(2권역) (4/28)
- 17-S18 2017년 제1회 대안학교장 협의회 (5/12)
- 17-S19 2017 NYPI & ARACD INTERNATIONAL CONFERENCE – Career Education and VET(Vocational Education & Trainig) for Youth in Asia : 청소년 진로교육 국제학술회의 아시아 청소년 진로교육과 직업교육 및 직업훈련 (5/17)
- 17-S20 2017 NYPI & ARACD INTERNATIONAL CONFERENCE – Career Education and VET(Vocational Education & Trainig) for Youth in Asia : Special Roundtable for Comparing career education between Korea and Japan (5/18)
- 17-S21 2017년 학교 내 대안교실 관리자 연수 - 1권역 (5/22)
- 17-S22 2017년 학교 내 대안교실 관리자 연수 - 2권역 (5/24)
- 17-S23 2017년 학교 내 대안교실 관리자 연수 - 3권역 (5/29)
- 17-S24 2017년 학교 내 대안교실 관리자 연수 - 4권역 (5/30)
- 17-S25 제4차 산업혁명과 미래의 청소년정책 (5/31)

- 17-S26 세계시민교육 사례 공유를 통한 청소년 활동 활성화 방안 논의 (5/26)
- 17-S27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조사 및 조성사업 연구Ⅴ 콜로키움 (6/22)
- 17-S28 SDGs 청소년 역량 환경교육 (6/26)
- 17-S29 2017 13th citizED International Conference Global citizenship and youth work: educational meanings, possibilities and practices (6.29~7.1)
- 17-S30 다문화 청소년의 효율적 지원 방안(통합과 선별) (9.22)
- 17-S31 청소년활동 중심 행복마을 운영 모형 및 지원방안 (7.28)
- 17-S32 2017년 한·러 차세대 전문가 세미나 - 한국과 러시아의 성인기 이행 : 청년 자립 '결혼 출산 현황 및 정책' (7.27)
- 17-S33 2017년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기관 모니터링 위원 워크숍 (8.18)
- 17-S34 청소년정치참여확대 및 활성화 방안 (8.28)
- 17-S35 2017년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담당자 연수 (8.29)
- 17-S36 2017년 「대안학교(각종학교 및 특성화중·고교) 담당교원 협의회」 (9.1)
- 17-S37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 학술대회 (9.14)
- 17-S38 다문화청소년패널 학술대회 (9.15)
- 17-S39 지역별 청소년운영위원회 토론회 세미나 (9.9, 9.16)
- 17-S40 4차 산업혁명 및 인구절벽 현상과 청소년역량증진의 방향 (9.13)
- 17-S41 국제심포지엄 2017 [무업청소년(NEET) : 국제적 동향과 대응] (9.25)
- 17-S42 한-중 국제세미나 (10/31)
- 17-S43 청소년의 디지털 역기능(사이버범죄) 예방과 대책수립을 위한 전문가 포럼 (11.3)
- 17-S4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연계기관 성과발표 및 우수사례발표 워크숍 (11.17)
- 17-S45 청소년의 노동권 관련 법제 현황과 주요 입법 과제 (11.28)

학 술 지

- 「한국청소년연구」 제28권 제1호(통권 제84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8권 제2호(통권 제85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8권 제3호(통권 제86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8권 제4호(통권 제87호)

기 타 발 간 물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77호 : 청소년정책평가제도 체계화 방안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78호 : 청소년의 세대통합역량 증진을 위한 지원 방안 연구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79호 : 미래인재 개발 전략으로서 재외동포청소년 지원 방안 연구Ⅱ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80호 : 청소년의 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방안 연구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81호 : 지방자치단체 청년참여기구 실태 및 체계 연구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82호 :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2013-2016)'의 성과와 향후 연구방향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83호 : 고등학생들의 정치참여욕구 및 정치참여 활성화방안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84호 : 중도입국 청소년의 실태 및 자립지원 방안 연구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85호 : 탈북청소년 지원 체계화 방안 연구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86호 :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Ⅴ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87호 : 청소년 분야 SDGs 이행을 위한 국내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 방안 연구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88호 : 청소년 동반자 활동 효율화 방안연구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89호 : 지역별 청소년운영위원회 활동 운영 특성 연구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90호 : 인터넷사회의 부모와 자녀관계에 관한 한·중·일 비교: 한국사례 분석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91호 : 아동·청소년을 위한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실태와 과제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92호 : 학교 밖 청소년 이행경로에 따른 맞춤형 대책연구Ⅰ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93호 :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연구성과분석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94호 : 자유학기제 등 학교-청소년시설의 협업지침 활용방안

NYPI Bluenote 통계 33호 : 청소년 차별 실태 연구
NYPI Bluenote 통계 34호 : 2016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NYPI Bluenote 통계 35호 :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
NYPI Bluenote 통계 36호 : 청소년 수면과 비만의 종단적 변화
NYPI Bluenote 통계 37호 : 한국아동·청소년패널자료로 살펴본 청소년 관련 국정과제
NYPI Bluenote 통계 38호 : 청소년의 학습습관 통제능력, 성적 만족도, 삶에 대한 만족도의 종단적 변화 -KCYPs 초 4패널-

연구보고 17-R12-1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V:
다문화청소년의 발달 추이 분석**

인 쇄 2017년 12월 23일

발 행 2017년 12월 30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발행인 송 병 국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주)아르빛 전화 044)863-0933 대표 유채란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44) 415-2125(학술정보관)

ISBN 979-11-5654-165-3 94330

979-11-5654-145-5 (세트)

연구보고 17-R12-1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Ⅴ

- 다문화청소년의 발달 추이 분석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D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6/7층
Social Policy Building, Sejong National Research Complex,
370, Sicheong-daero, Sejong-si, 30147, Korea
Tel. 82-44-415-2114 Fax. 82-44-415-2369 www.nypi.re.kr

 9 791156 541653
ISBN 979-11-5654-165-3
ISBN 979-11-5654-145-5 (세트)